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반려견의 생활환경이 비만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Effect of Living Environmental Factors on Obesity  
in Companion Dogs

제 출 자 : 이 해 연

지도교수 : 김 인 호

2013

생명자원과학과  
동물자원학 전공  
단국대학교 대학원

반려견의 생활환경이 비만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Effect of Living Environmental Factors on Obesity  
in Companion Dogs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6월

단국대학교 대학원  
생명자원과학과  
동물자원학 전공

이 해 연

이해연의 석사학위 논문을  
합격으로 판정함

심사일 : 2013. 05. 23.

심사위원장            강    대    경            인

심사위원            김    철    현            인

심사위원            김    인    호            인

단국대학교 대학원

(국문초록)

## 반려견의 생활환경이 비만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생명자원과학과

동물자원학전공

이 해 연

지도교수 : 김 인 호

최근 저출산과 만혼(晩婚), 높은 이혼율 그리고 독신자와 독거노인 가구의 증가 등 사회 구조의 변화와 IT산업과 디지털제품의 확산으로 인한 개인주의의 심화는 인간성 상실과 함께 사회적 관계의 단절로 인한 외로움과 소외감을 야기시켰다. 특히 사회적 상호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인간의 특성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감정이입 및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대상을 찾게 되었으며 그러한 결과로 반려동물의 존재가 또 다른 가족의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렇듯 인간 생활에서 역할이 증대되어 반려견의 사육 가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런 반려동물의 인간에 대한 역할 증대와 달리, 정작 사람과 동일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반려동물은 실내 사육과 고 영양 식품의 급여로 비만과 같은 질병에 쉽게 노출되어지나, 대부분의 보호자들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반려견에서 비만을 유발하는 환경적 문제를 명확히 도출하

고자 ① 보호자의 생활환경에 따른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반려견의 비만에 미치는 영향 ② 보호자의 일반적 특성과 반려견의 특성이 비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관성 여부 ③ 반려견의 비만 인지에 따른 보호자의 태도가 반려견의 비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연구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첫째, 반려견의 크기와 각 견종 등에 따른 올바른 양육방식, 각 가족 구성원의 협력부족과 인식차이에 따른 영향으로 운동의 중요성 미인식과 일정하지 않은 급여에 따른 사료량에 대한 충분하지 못한 이해로 불필요한 영양소의 과잉섭취로 과체중 또는 비만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중성화 수술 후 호르몬의 변화와 활동량의 감소로 비만이 될 소지가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개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식이요법 및 주기적인 산책 등으로 운동량을 증가시켜 에너지 소모량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셋째, 활동량과 운동량이 적은 반려견들은 비만이 될 확률이 높는데 이는 생활환경의 일부인 산책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함으로 인해 에너지의 소모가 적어 체내에 축적되어 비만이 된 것으로 알 수 있었다.

넷째, 신중구매자들은 반려견의 식품 구매시 대부분 가족 구성원이 적은 핵가족이었고, 반려견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해 특히 반려견의 건강을 고려하여 식품을 구매 하였다.

다섯째, 비만견이나 비만하지 않은 견을 소유한 대부분의 보호자들에서 비만에 대한 인식은 동일하게 높았음을 알 수 있으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만의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된다.

상기의 결과로 본 연구에서는 비만에 대한 정확한 인식의 제고와 가족의 협력, 식습관개선, 생활 환경의 변화에 의한 비만의 예방 등이 중요함을 제

시한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만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하며 사회적 인식의 제고를 통해 반려견의 비만을 예방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 감사의 글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시고, 석사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세심한 지도와 많은 격려로 이끌어 주신 김인호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논문심사를 기꺼이 맡아주신 강대경 교수님, 김철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SNFT에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도와주신 권기범 박사님, 홍종욱 박사님, 권오석 박사님, 민병준 박사님, 박진성 박사님, 김용기 박사님, 김완태 박사님, 홍석만 박사님, 김재형 박사님, 최영조 박사님, 손경승 박사님, 이제현 박사님, 장해동 박사님, 김효진 박사님, 유종상 박사님, 정지홍 박사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대학원 수업을 통해 소중한 인연과 추억을 만든 유동휘, 이광용, 김상진, 김동현, 백희엽, 유공열, 이충희, 윤재웅, 김보연, 김승희, 피승호, 이동우님과 실험실 홍성민 전임실장님, 김승철 실장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졸업 후 고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을 여러 학형님들께 고마움을 표합니다. 앞으로 실험실을 함께 이끌어 나갈 이한린, 이종필, 이보람, 박재원, 최연, 김근형, 정듬, 장이지, 장홍창, 김종근, 윤혁민 학형님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끝으로 항상 응원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정하정 교수님, 이세나 교수님, 윤미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항상 믿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어머니와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고, 논문의 어려운 고비마다 용기와 격려를 주는 사랑하는 남편 김재곤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남깁니다.

2013년 6월 논문을 마무리하며

이 해연 드림



# 목 차

I. 연구사 .....	1
II. 서론 .....	2
1. 연구배경 .....	3
2. 연구 목적 .....	5
III. 연구대상과 방법 .....	6
1.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	6
2. 연구 모형 및 가설 .....	9
3. 자료분석 .....	10
IV. 결과 및 고찰 .....	11
V. 결론 .....	94
VI. 참고문헌 .....	97
VII. 부 록 .....	99
VIII. 영문요약 .....	105

## 표목차

<표Ⅲ-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6
<표Ⅳ-1> 견주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반려견의 규칙적인 식사시간	11
<표Ⅳ-2> 반려견의 특성에 따른 반려견의 규칙적인 식사시간 .....	12
<표Ⅳ-3> 견주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반려견의 사료량 .....	14
<표Ⅳ-4> 반려견의 특성에 따른 반려견의 사료량 .....	15
<표Ⅳ-5> 견주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반려견의 과식여부 .....	17
<표Ⅳ-6> 반려견의 특성에 따른 반려견의 과식여부 .....	18
<표Ⅳ-7> 견주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반려견의 간식먹는 빈도 .....	20
<표Ⅳ-8> 반려견의 특성에 따른 반려견의 간식먹는 빈도 .....	21
<표Ⅳ-9> 견주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반려견의 하루식사 횟수-3번이상 여부 .....	23
<표Ⅳ-10> 반려견의 특성에 따른 반려견의 하루식사 횟수-3번이상 여부 .....	24
<표Ⅳ-11> 견주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반려견의 식탐 .....	26
<표Ⅳ-12> 반려견의 특성에 따른 반려견의 식탐 .....	27
<표Ⅳ-13> 견주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반려견의 식사담당 유무 .....	29
<표Ⅳ-14> 반려견의 특성에 따른 반려견의 식사담당 유무 .....	30
<표Ⅳ-15> 견주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반려견의 고칼로리 식품 섭취	32
<표Ⅳ-16> 반려견의 특성에 따른 반려견의 고칼로리 식품 섭취 .....	33
<표Ⅳ-17> 견주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반려견의 활발한 성격 .....	35
<표Ⅳ-18> 반려견의 특성에 따른 반려견의 활발한 성격 .....	36
<표Ⅳ-19> 견주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반려견의 산책시간 .....	38
<표Ⅳ-20> 반려견의 특성에 따른 반려견의 산책시간 .....	39
<표Ⅳ-21> 견주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반려견의 평소 움직임 .....	41
<표Ⅳ-22> 반려견의 특성에 따른 반려견의 평소 움직임 .....	42
<표Ⅳ-23> 견주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반려견의 산책횟수 .....	44
<표Ⅳ-24> 반려견의 특성에 따른 반려견의 산책횟수 .....	45
<표Ⅳ-25> 견주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반려견의 스트레스 해소-음식	47
<표Ⅳ-26> 반려견의 특성에 따른 반려견의 스트레스 해소-음식 .....	48
<표Ⅳ-27> 견주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애견식품의 양과 질에 대한 선호도	

.....	50
<표IV-28> 견주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사료에 대한 선호도 ..	52
<표IV-29 견주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명브랜드 사료에 대한 선호도 ..	54
<표IV-30> 견주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애견식품의 가격구매 영향 ..	56
<표IV-31> 견주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애견식품의 기호성 생각 .....	58
<표IV-32> 견주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애견식품의 영양소와 성분생각	60
<표IV-33> 견주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애견식품의 안전성 확인-특허 및 인증마크 .....	62
<표IV-34> 응답자의 반려견의 특성 .....	67
<표IV-35> 응답자의 반려견의 견종 .....	68
<표IV-36> 응답자의 비만견의 견종 .....	68
<표IV-37> 응답자의 반려견의 살찐체형의 견종 .....	69
<표IV-38> 비만견에 대한 경험사례 결과 .....	71
<표IV-39> 견주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반려견 비만의 위험성 인지	73
<표IV-40> 반려견의 특성에 따른 반려견 비만의 위험성 인지 .....	74
<표IV-41> 견주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반려견 비만의 대응방안 인지	76
<표IV-42> 반려견의 특성에 따른 반려견 비만의 대응방안 인지 .....	77
<표IV-43> 견주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반려견 비만의 예방책 인지	79
<표IV-44> 반려견의 특성에 따른 반려견 비만의 예방책 인지 .....	80
<표IV-45> 견주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반려견 비만원인 인지 .....	82
<표IV-46> 반려견의 특성에 따른 반려견 비만원인 인지 .....	83
<표IV-47> 견주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반려견 비만치료의 필요성 인지 .....	85
<표IV-48> 반려견의 특성에 따른 반려견 비만치료의 필요성 인지 ..	86
<표IV-49> 반려견의 특성에 따른 반려견의 비만여부 .....	87
<표IV-50> 반려견의 특성에 따른 반려견 비만치료의 필요성 인지 ..	88
<표IV-51> 반려견의 비만에 미치는 요인 분석 변수선정 .....	89
<표IV-52> 회귀모형의 적합성 검정 .....	90
<표IV-53>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1 .....	91
<표IV-54>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2 .....	92

## 그림목차

<그림Ⅲ-1> 응답자의 성별 .....	7
<그림Ⅲ-2> 응답자의 나이 .....	7
<그림Ⅲ-3> 응답자의 가족수 .....	8
<그림Ⅲ-4> 연구모형 .....	8
<그림Ⅳ-1> 반려견의 규칙적인 식사 .....	10
<그림Ⅳ-2> 반려견의 사료량 .....	13
<그림Ⅳ-3> 반려견의 과식여부 .....	16
<그림Ⅳ-4> 반려견의 간식 먹는 빈도 .....	19
<그림Ⅳ-5> 반려견의 하루식사 횟수-3번 이상 여부 .....	22
<그림Ⅳ-6> 반려견의 식탐 .....	25
<그림Ⅳ-7> 반려견의 식사담당 유무 .....	28
<그림Ⅳ-8> 반려견의 고칼로리 식품 섭취 .....	31
<그림Ⅳ-9> 반려견의 활발한 성격 .....	34
<그림Ⅳ-10> 반려견의 산책시간 .....	37
<그림Ⅳ-11> 반려견의 평소 움직임 .....	40
<그림Ⅳ-12> 반려견의 산책횟수 .....	43
<그림Ⅳ-13> 반려견의 스트레스 해소-음식 .....	46
<그림Ⅳ-14> 애견식품의 양과 질에 대한 선호도 .....	49
<그림Ⅳ-15> 애견식품의 친환경 사료에 대한 선호도 .....	51
<그림Ⅳ-16> 애견식품의 유명브랜드 사료에 대한 선호도 .....	53
<그림Ⅳ-17> 애견식품 가격의 구매 영향 .....	55
<그림Ⅳ-18> 애견식품의 기호성 생각 .....	57
<그림Ⅳ-19> 애견식품의 영양소와 성분 생각 .....	59
<그림Ⅳ-20> 애견식품의 안정성 확인-특허 및 인증마크 .....	61
<그림Ⅳ-21> 응답자의 반려견의 나이 .....	63
<그림Ⅳ-22> 응답자의 반려견의 성별 .....	63
<그림Ⅳ-23> 응답자의 반려견의 중성화 수술 여부 .....	64
<그림Ⅳ-24> 응답자의 반려견의 체형 .....	64
<그림Ⅳ-25> 응답자의 반려견의 비만 .....	65
<그림Ⅳ-26> 응답자의 반려견의 견종 .....	66
<그림Ⅳ-27> 응답자의 비만견의 견종 .....	67

<그림 IV-28> 응답자의 반려건의 살찐 체형의 견종 .....	67
<그림 IV-29> 반려건의 비만의 위험성 인지 .....	72
<그림 IV-30> 반려건의 비만의 대응방안 인지 .....	75
<그림 IV-31> 반려건의 비만 예방책 인지 .....	78
<그림 IV-32> 반려건의 비만원인 인지 .....	81
<그림 IV-33> 반려견 비만치료의 필요성 인지 .....	84



## I. 연구사

국내에 애견문화가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2007). 20여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은 경제적 풍요로움과 문화적, 산업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으며 성장 해왔다. 또한, 급격한 사회 문화의 변화와 가족 구성원의 핵가족화, 디지털 문화의 발전에 따른 인간성 상실감을 느낀 현대인의 삶이 자연적으로 반려견을 통한 심리 안정을 얻으려는 사회적 배경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김(2008)은 개는 1만년이 넘는 세월을 인간과 함께 살아 온 인간과 가장 친숙한 관계의 반려견으로 친구, 가족, 동료 등을 대신하는 역할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오랜 역사를 통해 반려견은 정서적 교감을 통해 인간 사회에서 행복감과 건강증진,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간의 삶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매개체로 활용되기에 이르렀다.

이(2009)는 인간은 이처럼 다양한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아 살아가고, 개는 사람들의 가장 가까운 존재로서 정서적 결핍의 완화와 감정적 교감을 함께 나누는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반려견의 위치는 그 지위가 확고해져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조(2005).

또한,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만족을 찾기 어려운 사회구조 속에서 동물을 통한 행복 창출이라는 새로운 소통경로를 만들고, 이에 맞는 애완동물산업(Pet industry)이 생기게 되었다 이(2010).

2012년 현재 국내에서 사육되는 반려견 수는 약 440만 마리 정도이고 사육 인구 수는 약 1천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반려견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 수는 약 395만 가구로 우리나라 가정의 17.9%로 국민 5명중 1명꼴로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2012).

세계적으로 반려견에 대한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무미건조하고 각박한 현대사회의 변화에 반려견이 사람들에게 동물 이상의 의미로 인식되면서, 반려견도 사람과 같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차원으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려견에게 비만이 건강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지 못하여 간과하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반려견의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인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 요인을 규명하며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 II. 서 론

### 1. 연구 배경

급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핵가족화, 이혼, 독신, 여성의 사회 진출 등으로 가족 문화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 또한, 인구의 노령화와 도시화, IT기기의 발달, 디지털기기의 보급 등으로 인한 개인주의가 심화 되었으며, 아이를 갖지 않고 자신들만의 경제적인 안정(安定)과 편리(便利)를 추구하는 맞벌이 부부를 일컫는 덩크족(DINK: Double Income No Kid)의 증가, 저 출산, 사회적 소외감과 정서적인 결핍이 유발됨과 함께 애완동물의 존재감이 새롭게 대두되어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애완동물이란 일반적으로 좋아해서 옆에 가까이 두고 귀여워하며 키우는 동물을 말하는데, 최근에는 사람과 더불어 공생하며 사랑을 주고받는 가족의 일원이라는 의미에서 반려동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1983년 10월 27~28일 “인간과 애완동물의 관계”를 주제로 하는 국제 심포지엄이 동물 행동학자이며 노벨상 수상자인 K. 로렌츠가 오스트리아 과학 아카데미가 주최한 자리에서 개·고양이·새·말 등을 포함하여 애완동물을 종래의 가치성을 재인식하여 ‘애완동물(Pet Animal)’이라는 명칭 대신 ‘반려동물(Companion Animal)’로 부르도록 제안하였는데, 이는 사람의 장난감이 아니라는 뜻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두산백과(2013).

반려동물 바라보는 인식 변화는 반려(伴侶)의 개념으로 수요를 크게 급증하게 만들었고, 반려동물 중 개는 지금의 각박하고 소외되는 현실에 또 다른 존재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오(2004)는 이러한 현상은 독신가구, 무자녀 가정, 노인 단독가구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김희연(2004)은 1999년 미국의 ‘세계 미래학회’는 2035년부터 세계인구의 증가세가 멈추는 대신 반려동물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 동안의 사회구조 변화와 지금의 현대사회에서 반려동물의 필요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 증대 되고 있으며, 상호작용을 통해 인간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최(2006).

반려동물이 가족의 일원으로 공생하면서, 인간과 마찬가지로 건강에 대한 관심과 유기농 사료 및 간식, 통조림 등의 친환경 바람이 불면서 건강식품에 대한 웰빙 문화가 더욱 전문화되고 고급화된 동물 의료서비스로 인해 반려동물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다.



웰빙의 열풍은 건강을 추구하는 성향에 힘입어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지만 전반적인 붐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임(2006).

이에 반려견 역시 사람 못지않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게 되었고, 이에 힘입어 웰빙 사료를 통한 반려견의 건강과 비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어, 애완동물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한국사료협회 2003년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반려동물의 70% 정도가 비만이라고 발표되었으며, 미국애완동물비만방지협회(APOP)는 최근 조사를 토대로 미국 반려견의 53%, 고양이의 55%가 과체중인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미국 개와 고양이중 8,840만 마리의 개, 고양이가 과체중 상태라는 얘기로, 수의사 테드 셔먼은 30년 전에는 비만율이 5~7%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85%에 달하고 있다고 보고 하였다 또한, 영국에는 현재 반려견의 830만 마리가 비만이라는 보고도 있다 세계일보 (2012).

장(2013)은 전 세계적으로도 개들이 사람처럼 점점 뚱뚱해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이어지면서 주인 소득에 비례해서 반려견도 비만 가능성이 높다고 연구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는 경제소득의 안정으로 인한 풍부한 식생활로 인해 반려견 들에게도 비만으로 인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2007)는 반려견의 비만으로 인한 비만조절 약이나 다이어트 조절식품 시장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현재 미국과 영국, 호주는 동물을 위한 체중 감량 산업도 등장하면서 반려견을 위한 다이어트 합숙 캠프와 다이어트 클럽이 문을 여는 등 개들의 다이어트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출시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외에도 보호자에게 올바른 식습관 개선과 사료량 칼로리 교육을 시키는 등 많은 프로그램이 생겨나고 있다 장(2013).

호주의 학술 연구 전문지에서 '더 컨버세이션(The Conversation)'은 사람들의 허리둘레가 늘듯이 반려동물들 역시 허리둘레가 두꺼워졌는데, 사람이나 동물 모두 비만이 늘어났다는 것은 비만의 가능성이 높은 보호자일수록 과체중인 반려견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또한, 영국과 네델란드에서도 사람과 반려견 사이의 비만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장(2013). 이러한 사실은 반려견들의 비만 원인이 되는 것은 바로 보호자 자신이라는 것을 시사 하는 것이다.

비만은 골격 및 신체적 요구한계를 초과하는 체지방 과다축적으로 인한 체중증가를 말하는데, 개의 경우 이상적인 체중의 20%이상일 때를 비만이라고 정의한다 정과 이(2005).

비만은 종종 규칙적인 운동의 부재와 자유급식 때문에 나타나는데, 이러한 원인



은 사료의 기호성이 매우 좋아지고 있고, 한정되고 제한되어 있는 실내사육으로 인해 운동량은 감소되면서 에너지의 사용량은 줄고, 심리적, 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한 식욕의 증가에 의해 비만이 발생하고 있다 리처드H 등 (2010).

이와 같이 한국을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반려동물의 비만은 증가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나 아직까지 국내의 보호자들은 비만이 질병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위험성의 인지정도를 간과하고 있어 비만이 반려견의 생명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와 대응책을 제시 하여 소중한 반려견의 생명을 잃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자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 2. 연구 목적

반려견은 과거 애완동물의 차원을 넘어서 인간과 삶을 공생하며,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희노애락(喜怒哀樂)을 함께하며 동고동락(同苦同樂)하는 인간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호자들의 반려견과 함께 건강하게 오랫동안 삶을 영위하고 싶은 욕망도 증대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한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반려견의 비만율도 증가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만이라는 질병이 반려견의 건강과 생명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는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보호자의 환경에 따라 반려견의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비만에 미치는 영향, 반려견에 대한 보호자의 비만 인지수준, 반려견의 특성과 비만의 상관성, 보호자의 애견식품에 대한 생각이 반려견의 비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원인을 찾아내어 그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반려견의 나이가 많고, 중성화 수술을 했을 경우, 반려견은 비만일 것이다.

가설 2. 반려견의 비만 정보에 무지할수록 반려견은 비만일 것이다.

가설 3. 보호자의 애견식품 구입 시 따질수록 반려견은 비만일 것이다.

가설 4. 반려견의 음식습관이 나쁠수록 반려견은 비만일 것이다.

가설 5. 반려견의 생활습관이 나쁠수록 반려견은 비만일 것이다.

### Ⅲ. 연구대상과 방법

#### 1. 연구의 대상 및 자료수집

이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특히 애견 미용학원의 학원생, 펫샵 및 동물병원을 방문하는 견주, 애완동물과 전공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려견의 음식습관, 생활습관, 견주의 애견식품에 대한 생각이 반려견의 비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2013년 3월 7일부터 3월 15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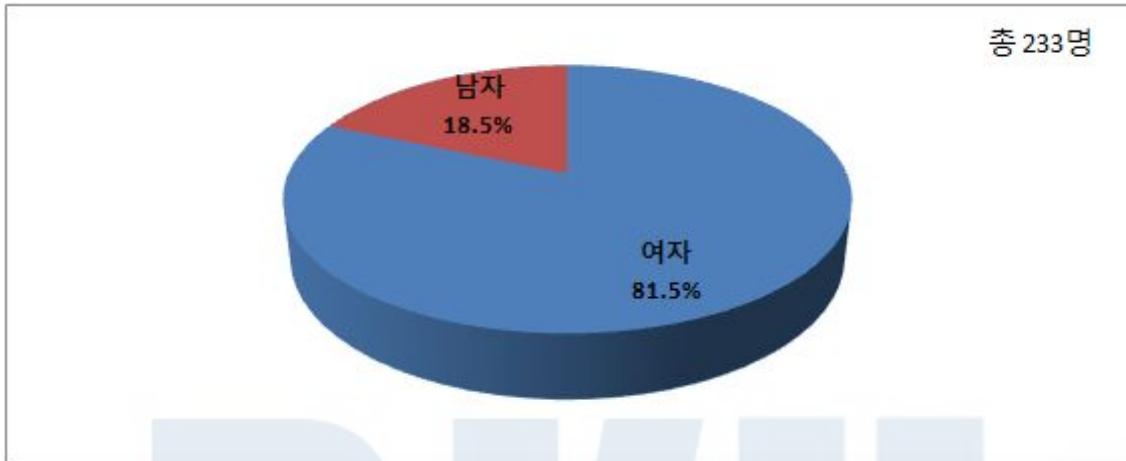
회수된 설문지는 총 237부로 불성실하거나 결측치가 많은 4부를 제외한 233부를 최종 연구대상으로 삼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빈도분석 결과는 다음 <표Ⅲ-1>과 같다.

<표Ⅲ-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항목	세부사항	빈도	백분율
성별	여자	190	81.5%
	남자	43	18.5%
나이	10대	4	1.7%
	20대	177	76.0%
	30대	31	13.3%
	40대 이상	21	9.0%
가족 수	1명	9	3.9%
	2명	22	9.4%
	3명	43	18.5%
	4명 이상	159	6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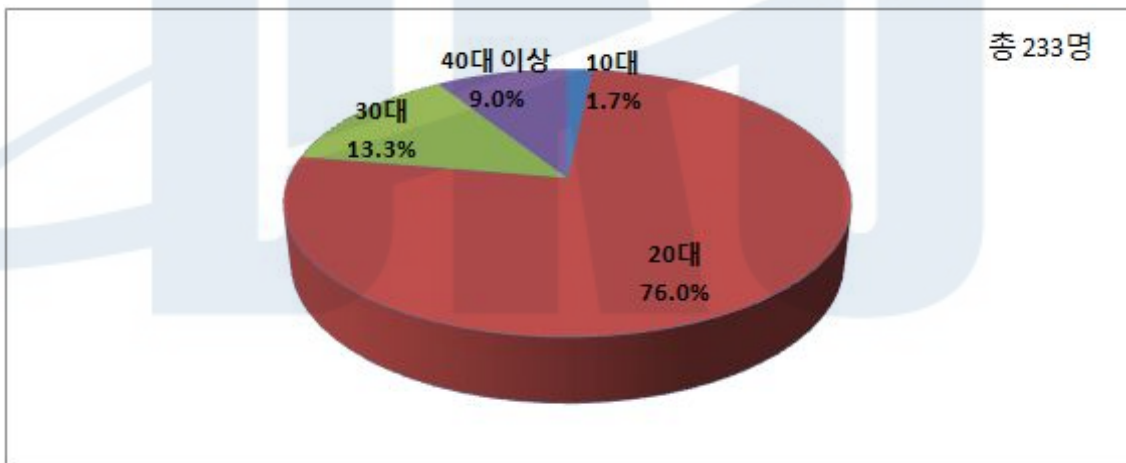
전체 응답자의 233명의 성별을 살펴보면 전체표본의 '여성'이 81.5%인 190명, '남성'이 18.5%인 43명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남성보다 애견을 키우는 비율이 높고, 애견을 돌보는 시간이 보다 많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림Ⅲ-1>.

<그림-Ⅲ-1> 응답자의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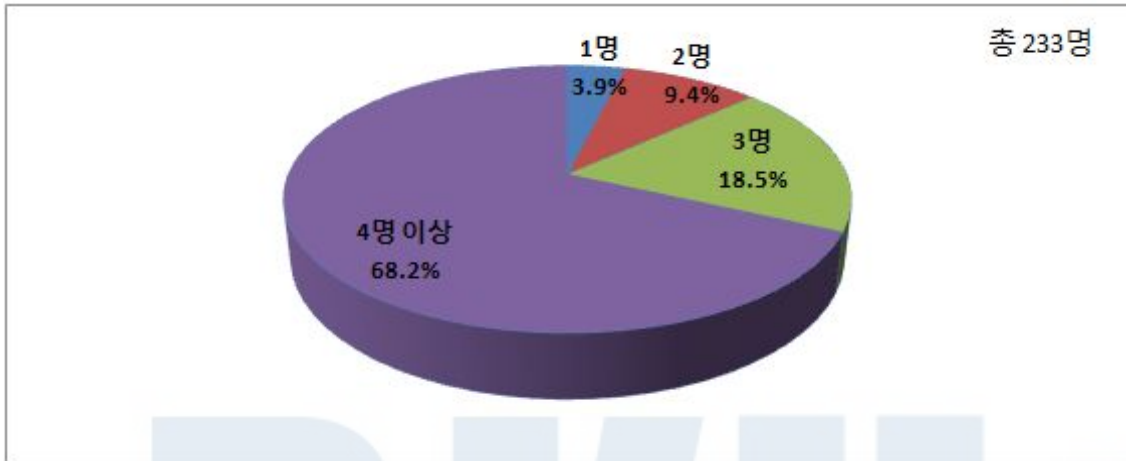
응답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10대 1.7%, 20대 76.0%, 30대, 13.3%, 40대 이상 9.0%로 나타났다 <그림Ⅲ-2>.

<그림-Ⅲ-2> 응답자의 나이



응답자의 가족 구성을 살펴보면, 가족이 4명 이상이 68.2%, 3명은 18.5%, 2명은 9.4%, 1명은 3.9%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Ⅲ-3>.

<그림-Ⅲ-3> 응답자의 가족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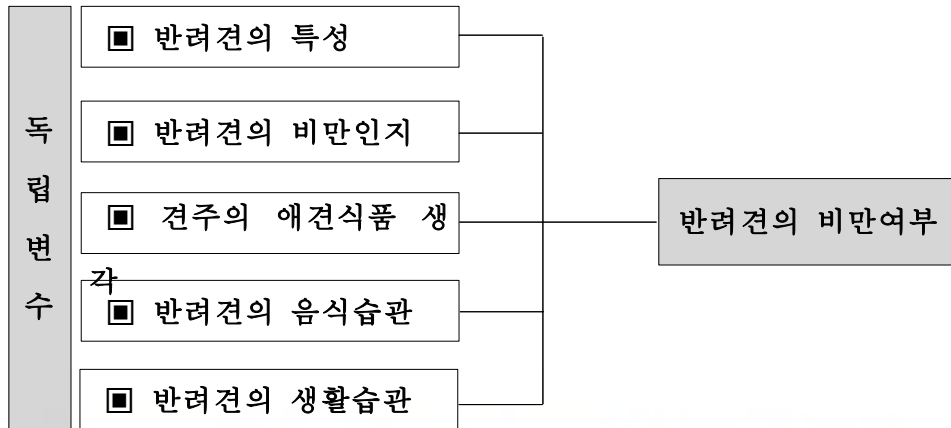
## 2.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는 반려견의 음식습관, 생활습관, 견주의 애견식품에 대한 생각이 반려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수행되었다.

견주의 인적사항과 반려견의 특성에 따라 반려견의 음식습관, 생활습관, 견주의 비만인지, 견주의 애견식품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반려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를 통하여, 연구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변수간의 구조적 관계를 나타낸 연구모형은 <그림 Ⅲ-4>와 같다.

반려견의 특성에는 반려견의 나이, 성별, 반려견의 중성화 수술여부가 있다.

<그림Ⅲ-4 > 연구모형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 1. 반려견의 나이가 많고, 중성화수술을 했을 경우, 반려견은 비만일 것이다.
- 가설 2. 반려견의 비만 정보에 무지할수록 반려견은 비만일 것이다.
- 가설 3. 견주의 애견식품 구입 시 따지지 않을수록 반려견은 비만일 것이다.
- 가설 4. 반려견의 음식습관이 나쁠수록 반려견은 비만일 것이다.
- 가설 5. 반려견의 생활습관이 나쁠수록 반려견은 비만일 것이다.

### 3.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설문 자료는 SPSS 12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통계적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적사항을 분석하고, 각 문항의 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및 기술통계(Descriptive)를 실시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반려견의 특성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와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셋째, 반려견의 비만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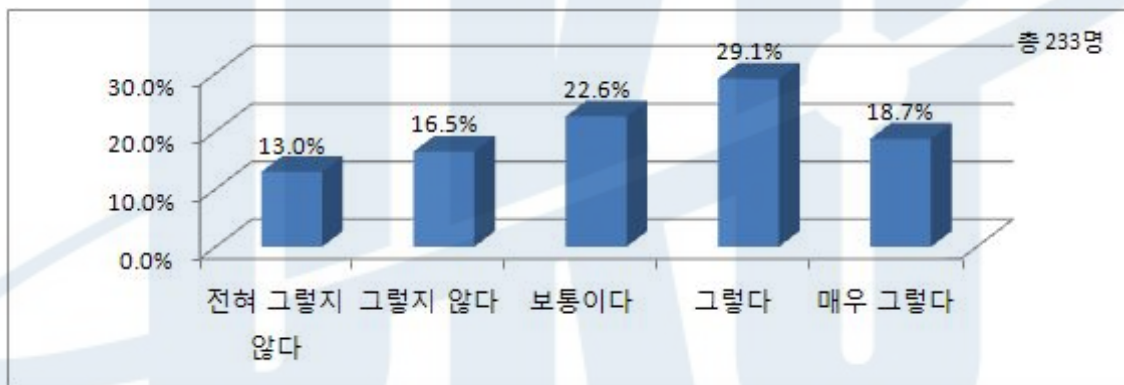
### 1. 반려견의 음식습관

#### 1.1 반려견의 규칙적인 식사시간

(매우 그렇다=5, 그렇다=4, 보통이다=3, 그렇지 않다=2, 전혀 그렇지 않다=1)

‘나의 반려견은 식사시간이 규칙적인 편이다.’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 <그림IV-1>과 같다. 전체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는 67명인 18.7%, ‘그렇다’는 43명인 29.1%, ‘보통이다’는 52명인 22.6%, ‘그렇지 않다’는 38명인 16.5%, ‘전혀 그렇지 않다’는 30명인 13.0%로 나타났다.

<그림IV-1> 반려견의 규칙적인 식사시간



견주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 결과는 다음 <표IV-1>과 같다.

여성이 3.21%, 남성이 3.42%로 남성이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연령대는 10대는 3.00%, 20대 3.15%, 30대 3.52%, 40대 이상은 3.7%로 40대 이상이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 구성원은 1명은 3.44%, 2명은 3.64%, 3명은 3.02%, 4명 이상은 3.24%로 2명이 높게 나타났지만, 연령대와 가족 구성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에서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반려견의 식사시간을 대부분 규칙적으로 급여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30대와 40대가 애견을 돌보는 시간을 더 할애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 구성원이 적을수록 반려견을 챙겨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식사시간의 책임감을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가족 구성원이 많을수록 책임전가와 스타일 라이프

에 의하여 식사급여시간이 불규칙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 식사시간이 일정하게 급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IV-1> 건주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반려견의 규칙적인 식사시간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t/F
성별	여자	빈도	27	31	43	54	35	t=-0.981 p=0.328
		비율	14.2%	16.3%	22.6%	28.4%	18.4%	
	남자	빈도	3	7	10	15	8	
		비율	7.0%	16.3%	23.3%	34.9%	18.6%	
나이	10대	빈도	0	2	1	0	1	F=1.795 p=0.149
		비율	0.0%	50.0%	25.0%	0.0%	25.0%	
	20대	빈도	26	30	42	50	29	
		비율	14.7%	16.9%	23.7%	28.2%	16.4%	
	30대	빈도	1	5	7	13	5	
		비율	3.2%	16.1%	22.6%	41.9%	16.1%	
	40대	빈도	3	1	3	6	8	
		비율	14.3%	4.8%	14.3%	28.6%	38.1%	
	이상	빈도	2	1	1	1	4	
		비율	22.2%	11.1%	11.1%	11.1%	44.4%	
가족 수	1명	빈도	1	3	5	7	6	F=1.177 p=0.319
		비율	4.5%	13.6%	22.7%	31.8%	27.3%	
	2명	빈도	5	10	13	9	6	
		비율	11.6%	23.3%	30.2%	20.9%	14.0%	
	3명	빈도	22	24	34	52	27	
		비율	13.8%	15.1%	21.4%	32.7%	17.0%	
이상	빈도							
	비율							

반려견 특성에 따른 차이 결과는 다음 <표IV-2>와 같다.

‘1~2살’이 3.3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3~4살’3.27%, ‘7~8살’3.24%, ‘5~6살’3.17%, ‘9살 이상’3.04%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암컷은 3.24%, 수컷은 3.24%로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중성화수술을 한 반려견’이 3.28%로 ‘중성화수술을 하지 않은 반려견’3.21%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체형에서는 ‘살찐형’이 3.8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마른형’3.31%, ‘표준 체형’3.23%, ‘비만형’3.15%, ‘매우 마른형’2.71%의 순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9살 이상’의 반려견과 ‘매우 마른형’다음으로 ‘비만형’의 반려견이 식사시간이 불규칙적인 것을 볼 수 있었다.



<표IV-2> 반려견의 특성에 따른 반려견의 규칙적인 식사시간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t/F
1~2살	빈도	7	9	26	27	13	3.37	
	비율	8.5%	11.0%	31.7%	32.9%	15.9%	(1.139)	
3~4살	빈도	7	7	10	14	10	3.27	
	비율	14.6%	14.6%	20.8%	29.2%	20.8%	(1.349)	
나이	5~6살	빈도	5	7	4	6	3.17	F=0.510 p=0.728
		비율	16.7%	23.3%	13.3%	20.0%	26.7%	
7~8살	빈도	2	5	4	6	4	3.24	
	비율	9.5%	23.8%	19.0%	28.6%	19.0%	(1.300)	
9살 이상	빈도	9	10	8	14	8	3.04	
	비율	18.4%	20.4%	16.3%	28.6%	16.3%	(1.384)	
성별	암컷	빈도	19	18	27	31	3.24	t=-0.018 p=0.986
		비율	15.6%	14.8%	22.1%	25.4%	22.1%	
수컷	빈도	11	20	25	36	16	3.24	
	비율	10.2%	18.5%	23.1%	33.3%	14.8%	(1.214)	
중성화 수술 여부	수술함	빈도	16	13	18	36	3.28	t=0.437 p=0.662
		비율	15.7%	12.7%	17.6%	35.3%	18.6%	
수술 안함	빈도	14	25	34	32	24	3.21	
	비율	10.9%	19.4%	26.4%	24.8%	18.6%	(1.260)	
매우 마른형	빈도	1	3	1	1	1	2.71	
	비율	14.3%	42.9%	14.3%	14.3%	14.3%	(1.380)	
마른형	빈도	5	7	12	16	8	3.31	
	비율	10.4%	14.6%	25.0%	33.3%	16.7%	(1.223)	
표준 체형	빈도	16	20	33	38	22	3.23	F=0.852 p=0.494
	비율	12.4%	15.5%	25.6%	29.5%	17.1%	(1.259)	
살찐형	빈도	1	0	1	3	3	3.88	
	비율	12.5%	.0%	12.5%	37.5%	37.5%	(1.356)	
비만형	빈도	7	8	5	10	9	3.15	
	비율	17.9%	20.5%	12.8%	25.6%	23.1%	(1.4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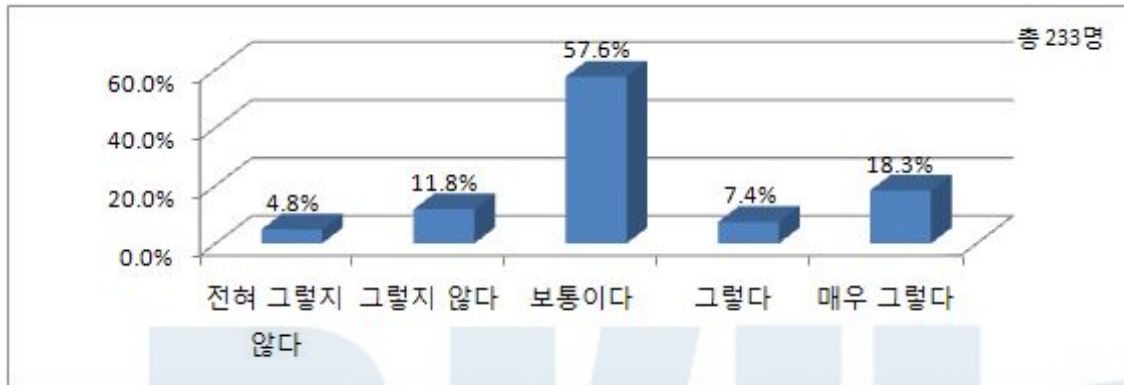
## 1.2 반려견의 사료량

(매우 그렇다=5, 그렇다=4, 보통이다=3, 그렇지 않다=2, 전혀 그렇지 않다=1)

‘나의 반려견에게 사료량을 적당히 주는 편이다.’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 <그림IV-2>와 같다. ‘매우 그렇다’는 42명인 18.3%, ‘그렇다’는 17명인 7.4%, ‘보통이다’는 132명

인 57.6%, '그렇지 않다'는 27명인 11.8%, '전혀 그렇지 않다'는 11명인 4.8%로 나타났다.

<그림 IV-2> 반려견의 사료량



견주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 결과는 다음 <표 IV-3>와 같다.

여성이 3.28%, 남성이 3.09%로 여성이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연령대는 10대는 3.75%, 20대 3.20%, 30대 3.27%, 40대 이상은 3.48%로 10대가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 구성원 1명은 2.78%, 2명은 3.73%, 3명은 3.21%, 4명 이상은 3.21%로 2명이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대체적으로 사료량을 적당히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반면 각 가정에서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의 견종, 체격 등에 맞는 올바른지 못한 급여방법으로 인해 가족 구성원 개개인이 사료 급여량의 인식차이를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표IV-3> 건주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반려견의 사료량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t/F		
성별	여자	빈도 8	19	111	15	36	3.28	t=1.035 p=0.302		
	비율 4.2%	10.1%	58.7%	7.9%	19.0%	(1.020)				
남자	빈도 3	8	22	2	8	3.09	(1.130)			
	비율 7.0%	18.6%	51.2%	4.7%	18.6%					
나이	10대	빈도 0	1	1	0	2	3.75	F=0.781 p=0.505		
		비율 .0%	25.0%	25.0%	.0%	50.0%	(1.500)			
	20대	빈도 10	23	97	16	31	3.20			
		비율 5.6%	13.0%	54.8%	9.0%	17.5%	(1.056)			
	30대	빈도 1	3	19	1	6	3.27			
		비율 3.3%	10.0%	63.3%	3.3%	20.0%	(1.015)			
	40대	빈도 0	0	16	0	5	3.48			
		비율 .0%	.0%	76.2%	.0%	23.8%	(0.873)			
	가족 수	1명	빈도 1	0	8	0	0		2.78	F=2.294 p=0.079
			비율 11.1%	.0%	88.9%	.0%	.0%		(0.667)	
2명		빈도 0	1	12	1	8	3.73			
		비율 0.0%	4.5%	54.5%	4.5%	36.4%	(1.032)			
3명		빈도 1	9	21	4	8	3.21			
		비율 2.3%	20.9%	48.8%	9.3%	18.6%	(1.059)			
4명		빈도 9	17	92	12	28	3.21			
		비율 5.7%	10.8%	58.2%	7.6%	17.7%	(1.041)			

반려견의 특성에 따른 차이 결과는 다음 <표IV-4>와 같다.

연령대는 '9살 이상'이 3.3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3~4살'3.29%, '1~2살' 3.22%, '5~6살' 3.10%, '7~8살'2.95%의 순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암컷은 3.23%, 수컷은 3.24%로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중성화수술을 한 반려견'이 3.39%로 '중성화수술을 하지 않은 반려견'3.11%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체형에서는 매우 마른형'이 3.5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마른형'3.43%, '표준 체형'3.2%7, '비만형'2.95%, '살찐형'2.63%의 순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IV-4> 반려견의 특성에 따른 반려견의 사료량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t/F
1~2살	빈도	3	13	44	7	15	3.22	
	비율	3.7%	15.9%	53.7%	8.5%	18.3%	(1.043)	
3~4살	빈도	3	2	30	4	9	3.29	
	비율	6.3%	4.2%	62.5%	8.3%	18.8%	(1.031)	
나이	5~6살	빈도	1	5	18	2	3.10	F=0.773
	비율	3.3%	16.7%	60.0%	6.7%	13.3%	(0.960)	p=0.544
7~8살	빈도	1	3	15	0	2	2.95	
	비율	4.8%	14.3%	71.4%	0.0%	9.5%	(0.865)	
9살 이상	빈도	3	4	25	4	12	3.38	
	비율	6.3%	8.3%	52.1%	8.3%	25.0%	(1.142)	
성별	암컷	빈도	9	15	63	7	3.23	t=-0.068
	비율	7.4%	12.4%	52.1%	5.8%	22.3%	(1.153)	p=0.946
수컷	빈도	2	12	68	10	16	3.24	
	비율	1.9%	11.1%	63.0%	9.3%	14.8%	(0.906)	
중성화 수술 여부	수술함	빈도	3	7	60	11	3.39	t=2.065
	비율	2.9%	6.9%	58.8%	10.8%	20.6%	(0.987)	p=0.040
수술 안함	빈도	8	20	72	6	22	3.11	
	비율	6.3%	15.6%	56.3%	4.7%	17.2%	(1.067)	
매우 마른형	빈도	0	2	2	0	3	3.57	
	비율	.0%	28.6%	28.6%	.0%	42.9%	(1.397)	
마른형	빈도	2	4	24	6	11	3.43	
	비율	4.3%	8.5%	51.1%	12.8%	23.4%	(1.078)	
표준 체형	빈도	4	15	77	8	25	3.27	F=2.086
	비율	3.1%	11.6%	59.7%	6.2%	19.4%	(1.006)	p=0.084
살찐형	빈도	1	1	6	0	0	2.63	
	비율	12.5%	12.5%	75.0%	.0%	.0%	(0.744)	
비만형	빈도	4	5	23	3	4	2.95	
	비율	10.3%	12.8%	59.0%	7.7%	10.3%	(1.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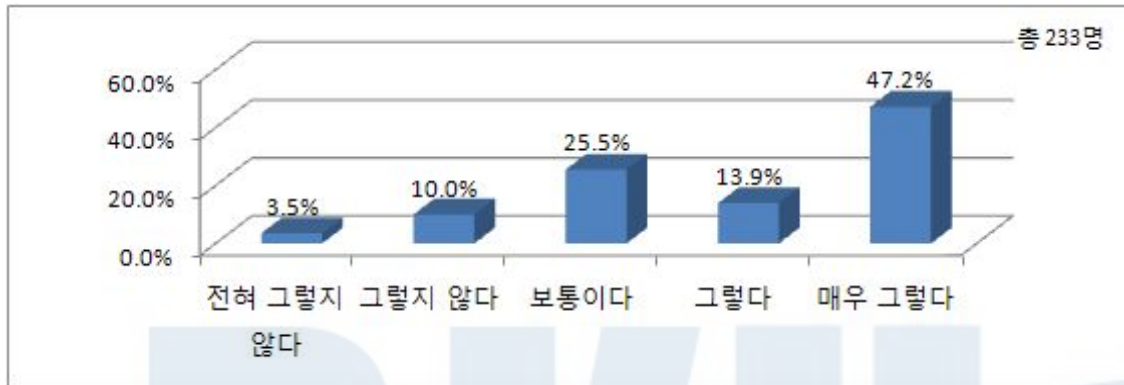
### 1.3 반려견의 과식여부

(매우 그렇다=5, 그렇다=4, 보통이다=3, 그렇지 않다=2, 전혀 그렇지 않다=1)

‘나의 반려견은 평소 음식을 적당량 먹는 편이다.’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 <그림IV-3 > 과 같다. 전체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는 109명인 47.2%, ‘그렇다’는 32명인 13.9%, ‘보통이다’는 59명인 25.5%, ‘그렇지 않다’는 23명인 10.0%, ‘전혀 그렇지 않

다'는 8명인 3.5%로 나타났다.

<그림 IV-3> 반려견의 과식여부



견주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 결과는 다음 <표 IV-3>과 같다.

여성이 3.95%, 남성이 3.77%로 여성이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연령대는 10대는 3.75%, 20대 3.79%, 30대 4.35%, 40대 이상은 4.38%로 40대 이상이 높게 나타났고, 유의확률이  $p=0.022$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족 구성원은 1명은 3.89%, 2명은 4.23%, 3명은 3.86%, 4명 이상은 3.89%로 2명이 높게 나타났다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40대 이상이 유의한 차이로( $p=0.022$ )음식에 대한 조절과 절제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고, 가족 구성원 대부분이 반려견의 양육자로서 과식여부를 인식하면서 음식을 급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IV-5> 견주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반려견의 과식여부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t/F
성별	여자	빈도	7	17	47	27	92	3.95
	비율	3.7%	8.9%	24.7%	14.2%	48.4%	(1.194)	t=0.890
남자	빈도	1	6	13	5	18	3.77	p=0.374
	비율	2.3%	14.0%	30.2%	11.6%	41.9%	(1.212)	
나이	10대	빈도	0	1	1	0	2	3.75
	비율	0.0%	25.0%	25.0%	0.0%	50.0%	(1.500)	
20대	빈도	7	20	53	21	76	3.79	F=3.268
	비율	4.0%	11.3%	29.9%	11.9%	42.9%	(1.224)	p=0.022
30대	빈도	1	2	1	8	19	4.35	
	비율	3.2%	6.5%	3.2%	25.8%	61.3%	(1.050)	
40대	빈도	0	0	5	3	13	4.38	
	비율	0.0%	0.0%	23.8%	14.3%	61.9%	(0.865)	
이상	빈도	0	3	0	1	5	3.89	
	비율	0.0%	33.3%	0.0%	11.1%	55.6%	(1.453)	
가족 수	1명	빈도	1	2	3	1	15	4.23
	비율	4.5%	9.1%	13.6%	4.5%	68.2%	(1.270)	F=0.557
2명	빈도	0	6	13	5	19	3.86	p=0.644
	비율	0.0%	14.0%	30.2%	11.6%	44.2%	(1.146)	
3명	빈도	7	12	44	25	71	3.89	
	비율	4.4%	7.5%	27.7%	15.7%	44.7%	(1.191)	

반려견의 특성에 따른 차이 결과는 다음 <표IV-6>과 같다.

연령대는 5~6살'이 4.17%로 다음으로 '3~4살'4.15%, '7~8살'3.86%, '1~2살'3.78%, '9살 이상'3.7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수컷'이 3.97%로 '암컷'3.86%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중성화수술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 3.93%으로 '중성화수술을 한 반려견'3.89%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체형에서는 '마른형'이 4.0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표준 체형'4.06%, '매우 마른형'3.86%, '살찐형'3.38%, '비만형'3.33%의 순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 결과는 '비만형'39마리 중 11마리와 '살찐형'의 8마리 중 2마리가 다른 체형보다 과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식이 비만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IV-6> 반려견의 특성에 따른 반려견의 과식여부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t/F
1~2살	빈도	2	6	32	10	32	3.78	
	비율	2.4%	7.3%	39.0%	12.2%	39.0%	(1.122)	
3~4살	빈도	1	4	8	9	26	4.15	
	비율	2.1%	8.3%	16.7%	18.8%	54.2%	(1.111)	
5~6살	빈도	0	3	6	4	17	4.17	F=1.268
	비율	.0%	10.0%	20.0%	13.3%	56.7%	(1.085)	p=0.283
7~8살	빈도	1	4	2	4	10	3.86	
	비율	4.8%	19.0%	9.5%	19.0%	47.6%	(1.352)	
9살 이상	빈도	4	6	11	5	23	3.76	
	비율	8.2%	12.2%	22.4%	10.2%	46.9%	(1.377)	
암컷	빈도	6	15	28	14	59	3.86	t=-0.702
	비율	4.9%	12.3%	23.0%	11.5%	48.4%	(1.281)	p=0.483
수컷	빈도	2	8	31	17	50	3.97	
	비율	1.9%	7.4%	28.7%	15.7%	46.3%	(1.106)	
중성화 수술 여부	빈도	3	12	24	17	46	3.89	t=-0.239
	비율	2.9%	11.8%	23.5%	16.7%	45.1%	(1.193)	p=0.811
수술 안함	빈도	5	11	35	15	63	3.93	
	비율	3.9%	8.5%	27.1%	11.6%	48.8%	(1.207)	
매우 마른형	빈도	1	0	1	2	3	3.86	
	비율	14.3%	.0%	14.3%	28.6%	42.9%	(1.464)	
마른형	빈도	2	0	17	2	27	4.08	
	비율	4.2%	.0%	35.4%	4.2%	56.3%	(1.145)	
표준 체형	빈도	2	13	30	14	70	4.06	F=3.584
	비율	1.6%	10.1%	23.3%	10.9%	54.3%	(1.151)	p=0.007
살찐형	빈도	0	2	3	1	2	3.38	
	비율	.0%	25.0%	37.5%	12.5%	25.0%	(1.188)	
비만형	빈도	3	8	8	13	7	3.33	
	비율	7.7%	20.5%	20.5%	33.3%	17.9%	(1.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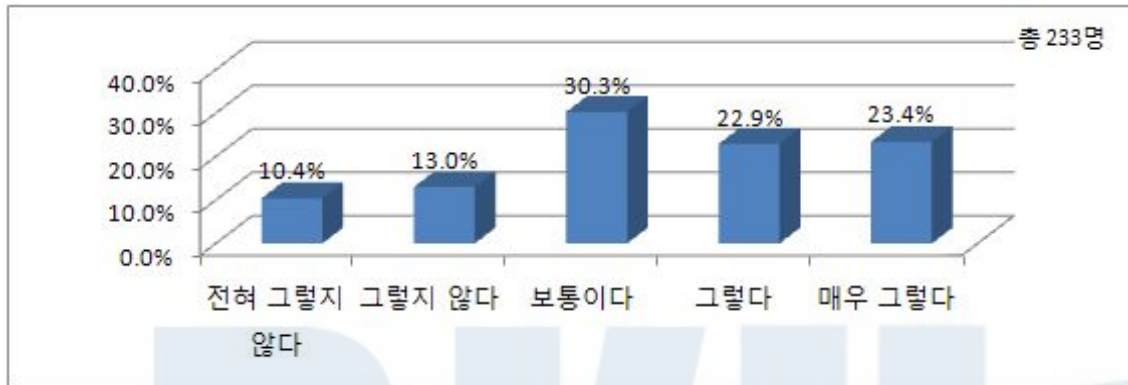
#### 1.4 반려견의 간식 먹는 빈도

(매우 그렇다=5, 그렇다=4, 보통이다=3, 그렇지 않다=2, 전혀 그렇지 않다=1)

‘나의 애완견은 평소 간식을 자주 먹지 않는 편이다.’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 <그림IV-4>와 같다. 전체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는 54명인 23.4%, ‘그렇다’는 53명인 22.9%, ‘보통이다’는 70명인 30.3%, ‘그렇지 않다’는 30명인 13.0%, ‘전혀 그렇지 않다’는

24명인 10.4%로 나타났다.

<그림IV-4> 반려견의 간식 먹는 빈도



견주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 결과는 다음 <표IV-7>과 같다.

여성이 3.33%, 남성이 3.53%로 남성이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연령대는 10대는 4.50%, 20대 3.36%, 30대 2.94%, 40대 이상은 3.90%로 10대가 높게 나타났고, 유의확률이  $p=0.013$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족 구성원은 1명이 3.67%, 2명 3.50%, 3명 3.49%, 4명 이상은 3.30%로 1명이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 구성원의 수에 상관없이 늦게 귀가하는 시간이 개개인 다르고, 부재중인 경우가 빈번히 발생할 때마다 애견을 혼자 두는 것이 안쓰러워 미안한 마음으로 가족 구성원 서로가 언제 간식을 주었는지 파악이 되지 않아 간식을 주는 횟수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대부분 간식을 조절해서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IV-7> 건주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반려견의 간식 먹는 빈도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t/F
성별	여자	빈도	23	24	56	41	46	3.33	t=-0.955 p=0.340
		비율	12.1%	12.6%	29.5%	21.6%	24.2%	(1.301)	
	남자	빈도	1	6	14	13	9	3.53	F=3.695 p=0.013
		비율	2.3%	14.0%	32.6%	30.2%	20.9%	(1.054)	
나이	10대	빈도	0	0	1	0	3	4.50	F=3.695 p=0.013
		비율	0.0%	0.0%	25.0%	0.0%	75.0%	(1.000)	
	20대	빈도	17	25	52	44	39	3.36	F=3.695 p=0.013
		비율	9.6%	14.1%	29.4%	24.9%	22.0%	(1.240)	
	30대	빈도	5	4	13	6	3	2.94	F=3.695 p=0.013
		비율	16.1%	12.9%	41.9%	19.4%	9.7%	(1.181)	
	40대	빈도	2	1	4	4	10	3.90	F=3.695 p=0.013
	이상	비율	9.5%	4.8%	19.0%	19.0%	47.6%	(1.338)	
가족 수	1명	빈도	2	0	2	0	5	3.67	F=0.523 p=0.667
		비율	22.2%	0.0%	22.2%	0.0%	55.6%	(1.732)	
	2명	빈도	2	0	9	7	4	3.50	F=0.523 p=0.667
		비율	9.1%	0.0%	40.9%	31.8%	18.2%	(1.102)	
	3명	빈도	4	8	9	7	15	3.49	F=0.523 p=0.667
		비율	9.3%	18.6%	20.9%	16.3%	34.9%	(1.387)	
	4명	빈도	16	22	50	40	31	3.30	F=0.523 p=0.667
	이상	비율	10.1%	13.8%	31.4%	25.2%	19.5%	(1.221)	

반려견의 특성에 따른 차이 결과는 다음 <표IV-8>과 같다.

‘9살 이상’이 3.5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3~4살’ 3.40%, ‘1~2살’ 3.33%, ‘7~8살’ 3.33%, ‘5~6살’ 3.07%의 순으로 나타났고, 수컷’이 3.44%로 ‘암컷’ 3.30% 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중성화수술을 한 반려견’이 3.45%으로 ‘중성화수술을 하지 않은 반려견’ 3.29%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체형에서는 ‘매우 마른형’이 3.7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표준 체형’ 3.38%, ‘살찐형’ 3.38%, ‘비만형’ 3.33%, ‘마른형’ 3.27%의 순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IV-8> 반려견의 특성에 따른 반려견의 간식 먹는 빈도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t/F
1~2살	빈도	7	13	23	24	15	3.33	
	비율	8.5%	15.9%	28.0%	29.3%	18.3%	(1.197)	
3~4살	빈도	4	6	17	9	12	3.40	
	비율	8.3%	12.5%	35.4%	18.8%	25.0%	(1.233)	
나이	5~6살	빈도	4	4	11	8	3.07	F=0.769
	비율	13.3%	13.3%	36.7%	26.7%	10.0%	(1.172)	p=0.546
7~8살	빈도	1	4	8	3	5	3.33	
	비율	4.8%	19.0%	38.1%	14.3%	23.8%	(1.197)	
9살 이상	빈도	8	3	10	9	19	3.57	
	비율	16.3%	6.1%	20.4%	18.4%	38.8%	(1.472)	
성별	암컷	빈도	15	18	33	28	3.30	t=-0.839
	비율	12.3%	14.8%	27.0%	23.0%	23.0%	(1.309)	p=0.402
수컷	빈도	9	12	36	25	26	3.44	
	비율	8.3%	11.1%	33.3%	23.1%	24.1%	(1.210)	
중성화 수술 여부	수술함	빈도	9	11	34	21	3.45	t=0.983
	비율	8.8%	10.8%	33.3%	20.6%	26.5%	(1.240)	p=0.327
수술 안함	빈도	15	19	36	32	27	3.29	
	비율	11.6%	14.7%	27.9%	24.8%	20.9%	(1.276)	
매우 마른형	빈도	1	1	0	2	3	3.71	
	비율	14.3%	14.3%	.0%	28.6%	42.9%	(1.604)	
마른형	빈도	8	6	12	9	13	3.27	
	비율	16.7%	12.5%	25.0%	18.8%	27.1%	(1.425)	
표준 체형	빈도	11	16	44	29	29	3.38	F=0.208
	비율	8.5%	12.4%	34.1%	22.5%	22.5%	(1.207)	p=0.934
살찐형	빈도	1	1	3	0	3	3.38	
	비율	12.5%	12.5%	37.5%	.0%	37.5%	(1.506)	
비만형	빈도	3	6	11	13	6	3.33	
	비율	7.7%	15.4%	28.2%	33.3%	15.4%	(1.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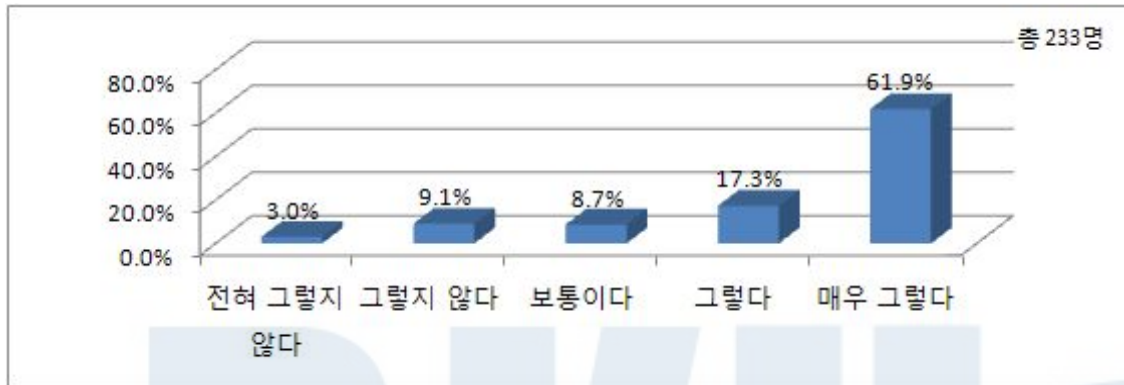
### 1.5 반려견의 하루식사 횟수(3번 이상 여부)

(매우 그렇다=5, 그렇다=4, 보통이다=3, 그렇지 않다=2, 전혀 그렇지 않다=1)

‘나의 애완견은 하루 3번 이상 식사를 하지 않는 편이다.’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 <그림IV-5>와 같다. 전체 233명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는 143명인 61.9%, ‘그렇다’는 40명인 17.3%, ‘보통이다’는 20명인 8.7%, ‘그렇지 않다’는 21명인 9.1%, ‘전혀 그렇

지 않다’는 7명인 3.0%로 나타났다.

<그림IV-5> 반려견의 하루식사 횟수(3번 이상 여부)



견주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 결과는 다음 <표IV-9>와 같다.

견주의 성별에 대한 응답 차이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여성이 4.21%, 남성이 4.49%로 남성이 높게 나타났고, 연령대는 10대는 3.25%, 20대 4.28%, 30대 4.10%, 40대 이상은 4.52%로 40대 이상이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 구성원은 1 4.67%, 2명은 4.36%, 3명은 4.07%, 4명 이상은 4.27%로 1명이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견주들이 대부분 식사횟수를 지키면서 반려견에게 사료를 급여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표IV-9> 견주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반려견의 하루식사 횟수(3번 이상 여부)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t/F	
성별	여자	빈도	7	18	18	33	114	4.21	
	비율	3.7%	9.5%	9.5%	17.4%	60.0%	(1.171)	t=-1.487	
남자	빈도	0	3	3	7	30	4.49	p=0.138	
	비율	0.0%	7.0%	7.0%	16.3%	69.8%	(0.910)		
10대	빈도	1	1	0	0	2	3.25		
	비율	25.0%	25.0%	0.0%	0.0%	50.0%	(2.062)		
20대	빈도	3	15	18	35	106	4.28		
	비율	1.7%	8.5%	10.2%	19.8%	59.9%	(1.059)	F=1.688	
30대	빈도	3	3	2	3	20	4.10	p=0.170	
	비율	9.7%	9.7%	6.5%	9.7%	64.5%	(1.423)		
40대	빈도	0	2	1	2	16	4.52		
	비율	0.0%	9.5%	4.8%	9.5%	76.2%	(0.981)		
이상	빈도	0	0	0	3	6	4.67		
	비율	0.0%	0.0%	0.0%	33.3%	66.7%	(0.500)		
가족 수	2명	빈도	0	3	2	1	16	4.36	
	비율	0.0%	13.6%	9.1%	4.5%	72.7%	(1.136)	F=0.858	
3명	빈도	2	4	5	10	22	4.07	p=0.464	
	비율	4.7%	9.3%	11.6%	23.3%	51.2%	(1.203)		
4명 이상	빈도	5	14	14	26	100	4.27		
	비율	3.1%	8.8%	8.8%	16.4%	62.9%	(1.135)		

반려견의 특성에 따른 차이 결과는 다음 <표IV-10>과 같다.

‘7~8살’이 4.6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5~6살’4.47%, ‘3~4살’4.35%, ‘9살 이상’4.18%, ‘1~2살’4.07%의 순으로 나타났고, 수컷’이 4.32%로 ‘암컷’4.20%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중성화수술을 한 반려견’이 3.29%로 ‘중성화수술을 하지 않은 반려견’3.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체형에서는 ‘표준 체형’이 4.3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비만형’4.31%, ‘마른형’4.13%, ‘살찐형’4.00%, ‘매우 마른형’3.2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는 ‘매우 마른형’의 반려견이 42.9%로 식사횟수가 3회 이상 이었고, ‘살찐형’도 4.00%로 각 견종이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의 양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체격과 견종에 맞는 식사횟수와 일정한 식사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IV-10> 반려견의 특성에 따른 반려견의 하루식사 횟수(3번 이상 여부)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t/F	
1~2살	빈도	2	11	9	17	43	4.07		
	비율	2.4%	13.4%	11.0%	20.7%	52.4%	(1.184)		
3~4살	빈도	2	2	6	5	33	4.35		
	비율	4.2%	4.2%	12.5%	10.4%	68.8%	(1.120)		
나이	5~6살	빈도	1	3	1	1	24	4.47	F=1.485 p=0.208
	비율	3.3%	10.0%	3.3%	3.3%	80.0%	(1.167)		
7~8살	빈도	0	2	0	2	17	4.62		
	비율	0.0%	9.5%	0.0%	9.5%	81.0%	(0.921)		
9살 이상	빈도	2	3	4	15	25	4.18		
	비율	4.1%	6.1%	8.2%	30.6%	51.0%	(1.093)		
성별	암컷	빈도	6	11	10	21	74	4.20	t=-0.850 p=0.396
	비율	4.9%	9.0%	8.2%	17.2%	60.7%	(1.210)		
수컷	빈도	1	10	10	19	68	4.32		
	비율	0.9%	9.3%	9.3%	17.6%	63.0%	(1.040)		
중성화 수술 여부	수술함	빈도	5	7	8	15	67	4.29	t=0.410 p=0.682
	비율	4.9%	6.9%	7.8%	14.7%	65.7%	(1.174)		
수술 안함	빈도	2	14	12	25	76	4.23		
	비율	1.6%	10.9%	9.3%	19.4%	58.9%	(1.101)		
매우 마른형	빈도	2	1	0	1	3	3.29		
	비율	28.6%	14.3%	.0%	14.3%	42.9%	(1.890)		
마른형	빈도	2	4	5	12	25	4.13		
	비율	4.2%	8.3%	10.4%	25.0%	52.1%	(1.160)		
표준 체형	빈도	1	13	12	15	88	4.36	F=1.895 p=0.112	
	비율	.8%	10.1%	9.3%	11.6%	68.2%	(1.060)		
살찐형	빈도	0	2	0	2	4	4.00		
	비율	.0%	25.0%	.0%	25.0%	50.0%	(1.309)		
비만형	빈도	2	1	3	10	23	4.31		
	비율	5.1%	2.6%	7.7%	25.6%	59.0%	(1.0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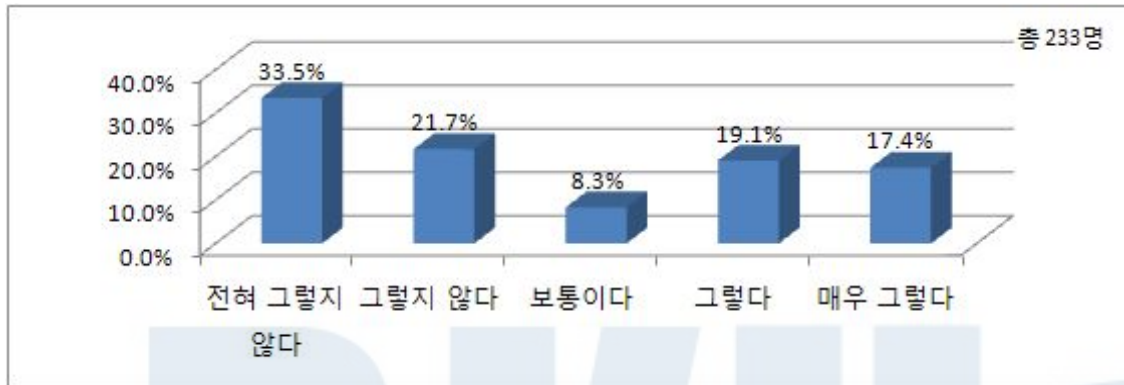
## 1.6 반려견의 식탐

(매우 그렇다=5, 그렇다=4, 보통이다=3, 그렇지 않다=2, 전혀 그렇지 않다=1)

‘나의 애완견은 식탐이 적은 편이다.’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 <그림IV-6>과 같다. 전체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는 40명인 17.4%, ‘그렇다’는 44명인 19.1%, ‘보통이다’는 19명인 8.3%, ‘그렇지 않다’는 50명인 21.7%, ‘전혀 그렇지 않다’는 77명인 33.5%로

나타났다.

<그림IV-6> 반려견의 식탐



견주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 결과는 다음 <표IV-11>과 같다.

여성이 2.72%, 남성이 2.40%로 여성이 높게 나타났고, 연령대는 10대는 2.00%, 20대 2.55%, 30대 3.23%, 40대 이상은 2.90%로 30대가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 구성원이 1명은 2.44%, 2명은 2.91%, 3명은 3.07%, 4명 이상은 2.53%로 3명이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음식조절이 불가능한 반려견들을 절제하고 조절해 주어야 하는 견주들의 의식이 약하다는 것도 함께 보여주고 있고, 견주들의 사고방식에 따라서 반려견의 건강 악화에 대한 우려와 비만견이 될 확률 또한 높아질 수 있다고 사료된다.



<표IV-11> 견주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반려견의 식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t/F
성별	여자	빈도 61 비율 32.3%	39 20.6%	16 8.5%	38 20.1%	35 18.5%	2.72 (1.540)	t=1.257 p=0.210
	남자	빈도 16 비율 37.2%	12 27.9%	3 7.0%	6 14.0%	6 14.0%	2.40 (1.466)	
나이	10대	빈도 3 비율 75.0%	0 0.0%	0 0.0%	0 0.0%	1 25.0%	2.00 (2.000)	F=2.183 p=0.091
	20대	빈도 65 비율 36.7%	37 20.9%	15 8.5%	33 18.6%	27 15.3%	2.55 (1.511)	
	30대	빈도 6 비율 20.0%	7 23.3%	1 3.3%	6 20.0%	10 33.3%	3.23 (1.612)	
	40대	빈도 3 비율 14.3%	7 33.3%	3 14.3%	5 23.8%	3 14.3%	2.90 (1.338)	
	이상	빈도 3 비율 33.3%	3 33.3%	1 11.1%	0 0.0%	2 22.2%	2.44 (1.590)	
	가족 수	1명	빈도 6 비율 27.3%	5 22.7%	1 4.5%	5 22.7%	5 22.7%	
2명	빈도 14 비율 32.6%	4 9.3%	2 4.7%	11 25.6%	12 27.9%	3.07 (1.682)		
3명	빈도 54 비율 34.2%	39 24.7%	15 9.5%	28 17.7%	22 13.9%	2.53 (1.462)		
4명 이상								

반려견의 특성에 따른 차이 결과는 다음 <표IV-12>와 같다.

‘3~4살’이 3.0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7~8살’ 2.86%, ‘9살 이상’ 2.77%, ‘1~2살’ 2.45%, ‘5~6살’ 2.2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암컷’이 2.81%로 ‘수컷’ 2.48%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중성화수술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 2.76%로 ‘중성화수술을 한 반려견’ 2.52%보다 높게 나타났고, ‘마른형’이 2.8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비만형’ 2.69%, ‘표준 체형’ 2.66%, ‘매우 마른형’ 1.86%, ‘살찐형’ 1.63%의 순으로 나타났다.

George J 등(2004)은 개는 음식에 한번 맛을 알면 맛있는 것을 알아서 보충기 시작하고, 개는 오랫동안 먹지 않으면 주인이 좀 더 맛있는 음식을 줄 것을 알고 가끔 음식을 안 먹기도 하기 때문에, Bruce F와 홍(2003)은 식탐이 많아지면 이미 배는 과포화상태이면서도 사람음식 및 사료에 대한 집착도 강해진다고 볼 수 있다. 식탐이 많아질수록 과체중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견주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반려견들의 음식을 절제하고 조절해야 하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고, 가족 구성원의 협력이 없는 한 반려견들의 식탐은 더해 갈 것으로 추측되는 부분이다.

<표IV-12> 반려견의 특성에 따른 반려견의 식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t/F
1~2살	빈도	27	24	7	15	9	2.45	
	비율	32.9%	29.3%	8.5%	18.3%	11.0%	(1.398)	
3~4살	빈도	13	10	4	6	15	3.00	
	비율	27.1%	20.8%	8.3%	12.5%	31.3%	(1.650)	
나이	5~6살	빈도	13	6	3	7	2.23	F=1.738
	비율	43.3%	20.0%	10.0%	23.3%	3.3%	(1.331)	p=0.142
7~8살	빈도	9	2	0	3	7	2.86	
	비율	42.9%	9.5%	.0%	14.3%	33.3%	(1.852)	
9살 이상	빈도	15	8	5	13	7	2.77	
	비율	31.3%	16.7%	10.4%	27.1%	14.6%	(1.505)	
성별	암컷	빈도	40	20	8	29	2.81	t=1.627
	비율	33.1%	16.5%	6.6%	24.0%	19.8%	(1.583)	p=0.105
수컷	빈도	37	29	11	15	16	2.48	
	비율	34.3%	26.9%	10.2%	13.9%	14.8%	(1.456)	
중성화 수술 여부	수술함	빈도	40	18	12	15	2.52	t=-1.176
	비율	39.2%	17.6%	11.8%	14.7%	16.7%	(1.533)	p=0.241
수술 안함	빈도	37	32	7	29	23	2.76	
	비율	28.9%	25.0%	5.5%	22.7%	18.0%	(1.520)	
매우 마른형	빈도	5	0	1	0	1	1.86	
	비율	71.4%	.0%	14.3%	.0%	14.3%	(1.574)	
마른형	빈도	10	13	5	10	9	2.89	
	비율	21.3%	27.7%	10.6%	21.3%	19.1%	(1.463)	
표준 체형	빈도	43	30	7	26	23	2.66	F=1.700
	비율	33.3%	23.3%	5.4%	20.2%	17.8%	(1.544)	p=0.151
살찐형	빈도	4	3	1	0	0	1.63	
	비율	50.0%	37.5%	12.5%	.0%	.0%	(0.744)	
비만형	빈도	15	4	5	8	7	2.69	
	비율	38.5%	10.3%	12.8%	20.5%	17.9%	(1.5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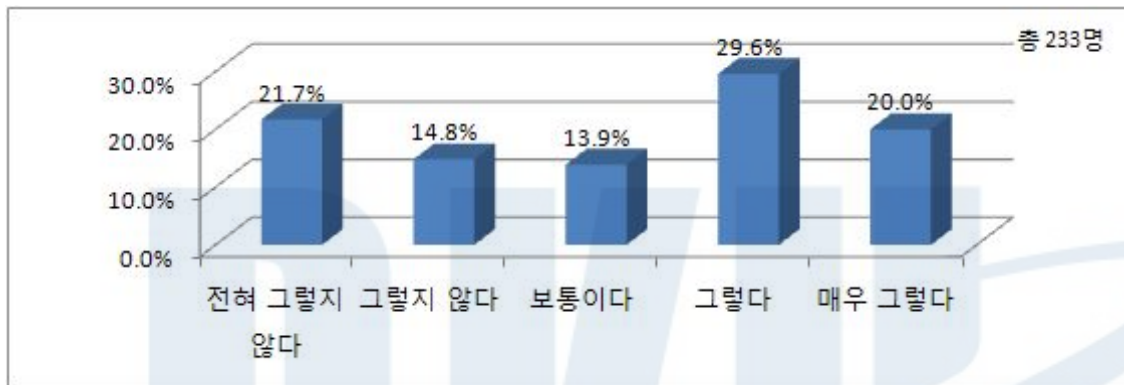
## 1.7 반려견의 식사담당 유무

(매우 그렇다=5, 그렇다=4, 보통이다=3, 그렇지 않다=2, 전혀 그렇지 않다=1)



‘나의 애완견에게 식사담당식구가 정해져 있는 편이다.’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 <그림 IV-7>과 같다. 전체 233명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는 46명의 20.0%, ‘그렇다’는 68명의 29.6%, ‘보통이다’는 32명의 13.9%, ‘그렇지 않다’는 34명의 14.8%, ‘전혀 그렇지 않다’는 50명의 21.7%로 나타났다.

<그림 IV-7> 반려견의 식사담당 유무



견주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 결과는 다음 <표 IV-13>과 같다.

여성이 3.12%, 남성이 3.09%로 여성이 높게 나타났고, 연령대는 10대는 3.00%, 20대 3.01%, 30대 3.17%, 40대 이상은 3.95%로 40대 이상이 높게 나타났고, 유의확률이  $p=0.04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가족 구성원은 1명은 3.44%, 2명은 3.55%, 3명은 3.00%, 4명 이상은 3.07%로 2명이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 식사담당이 정해져 있는 가정이 있는 반면, 식사담당이 정해져 있지 않는 가정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각 가족 구성원 개개인이 사료량의 인식차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 견종의 특성에 따른 충분한 이해와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IV-13> 건주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반려견의 식사담당 유무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t/F
성별	여자	빈도	43	27	24	54	41	3.12	t=0.117 p=0.907
		비율	22.8%	14.3%	12.7%	28.6%	21.7%	(1.484)	
	남자	빈도	7	7	9	15	5	3.09	p=0.907
		비율	16.3%	16.3%	20.9%	34.9%	11.6%	(1.288)	
	10대	빈도	1	1	0	1	1	3.00	F=2.727 p=0.045
		비율	25.0%	25.0%	0.0%	25.0%	25.0%	(1.826)	
나이	20대	빈도	41	27	28	51	30	3.01	F=2.727 p=0.045
		비율	23.2%	15.3%	15.8%	28.8%	16.9%	(1.434)	
	30대	빈도	7	3	4	10	6	3.17	p=0.045
		비율	23.3%	10.0%	13.3%	33.3%	20.0%	(1.487)	
	40대	빈도	1	3	1	7	9	3.95	F=0.946 p=0.419
		비율	4.8%	14.3%	4.8%	33.3%	42.9%	(1.244)	
	이상	빈도	3	0	1	0	5	3.44	F=0.946 p=0.419
		비율	33.3%	0.0%	11.1%	0.0%	55.6%	(1.944)	
가족 수	1명	빈도	4	2	1	8	7	3.55	F=0.946 p=0.419
		비율	18.2%	9.1%	4.5%	36.4%	31.8%	(1.503)	
	2명	빈도	13	3	5	15	7	3.00	F=0.946 p=0.419
		비율	30.2%	7.0%	11.6%	34.9%	16.3%	(1.528)	
	3명	빈도	30	29	26	46	27	3.07	F=0.946 p=0.419
		비율	19.0%	18.4%	16.5%	29.1%	17.1%	(1.387)	

반려견의 특성에 따른 차이 결과는 다음 <표IV-14>와 같다.

‘5~6살’이 3.3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3~4살’ 3.19%, ‘9살 이상’ 3.10%, ‘7~8살’ 3.05%, ‘1~2살’ 3.04%의 순으로 나타났고, ‘암컷’이 3.21%로 ‘수컷’ 2.99%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중성화수술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 3.22%로 중성화수술을 한 반려견 2.98%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체형으로는 표준 체형이 3.2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살찐형’ 3.25%, ‘마른형’ 2.96%, ‘비만형’ 2.95%, ‘매우 마른형’ 2.00%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IV-14> 반려견의 특성에 따른 반려견의 식사담당 유무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t/F
1~2살	빈도	20	12	10	25	15	3.04	
	비율	24.4%	14.6%	12.2%	30.5%	18.3%	(1.478)	
3~4살	빈도	11	6	6	13	12	3.19	
	비율	22.9%	12.5%	12.5%	27.1%	25.0%	(1.525)	
나이	5~6살	빈도	6	4	4	7	3.30	F=0.220
	비율	20.0%	13.3%	13.3%	23.3%	30.0%	(1.535)	p=0.927
7~8살	빈도	4	3	5	6	3	3.05	
	비율	19.0%	14.3%	23.8%	28.6%	14.3%	(1.359)	
9살 이상	빈도	9	8	7	17	7	3.10	
	비율	18.8%	16.7%	14.6%	35.4%	14.6%	(1.372)	
성별	암컷	빈도	25	15	14	43	3.21	t=1.164
	비율	20.7%	12.4%	11.6%	35.5%	19.8%	(1.439)	p=0.245
수컷	빈도	25	19	18	24	22	2.99	
	비율	23.1%	17.6%	16.7%	22.2%	20.4%	(1.469)	
중성화 수술 여부	수술함	빈도	25	18	15	22	2.98	t=-1.238
	비율	24.5%	17.6%	14.7%	21.6%	21.6%	(1.502)	p=0.217
수술 안함	빈도	25	16	17	46	24	3.22	
	비율	19.5%	12.5%	13.3%	35.9%	18.8%	(1.408)	
매우 마른형	빈도	4	0	2	1	0	2.00	
	비율	57.1%	.0%	28.6%	14.3%	.0%	(1.291)	
마른형	빈도	9	12	7	10	9	2.96	
	비율	19.1%	25.5%	14.9%	21.3%	19.1%	(1.429)	
표준 체형	빈도	24	18	15	43	29	3.27	F=1.709
	비율	18.6%	14.0%	11.6%	33.3%	22.5%	(1.435)	p=0.149
살찐형	빈도	2	1	1	1	3	3.25	
	비율	25.0%	12.5%	12.5%	12.5%	37.5%	(1.753)	
비만형	빈도	11	3	7	13	5	2.95	
	비율	28.2%	7.7%	17.9%	33.3%	12.8%	(1.4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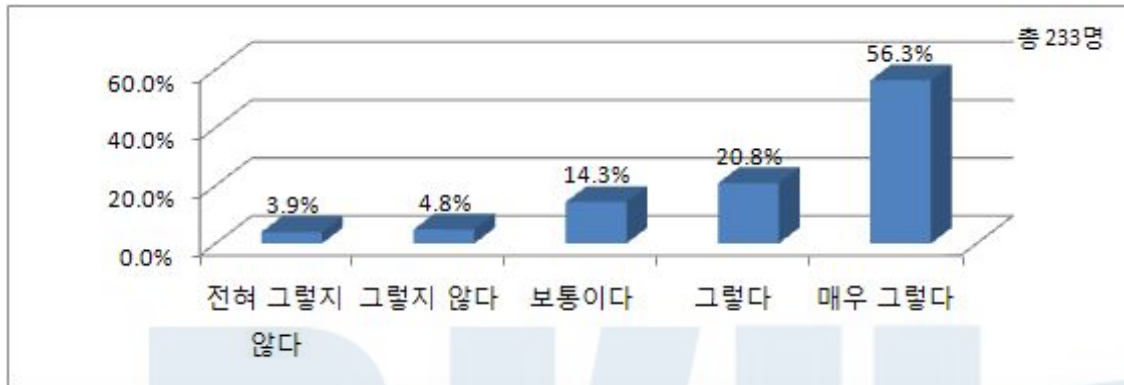
## 1.8 반려견의 고칼로리 식품 섭취

(매우 그렇다=5, 그렇다=4, 보통이다=3, 그렇지 않다=2, 전혀 그렇지 않다=1)

‘나의 애완견에게 튀김류, 육류 등 고칼로리 음식을 잘 먹이지 않는 편이다.’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 <그림IV-8>과 같다. 전체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는 130명인 56.3%, ‘그렇다’는 48명인 20.8%, ‘보통이다’는 33명인 14.3%, ‘그렇지 않다’는 11명인

4.8%, '전혀 그렇지 않다'는 9명인 3.9%로 나타났다.

<그림 IV-8> 반려견의 고칼로리 식품 섭취



견주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 결과는 다음 <표 IV-15>와 같다.

여성이 4.18%, 남성이 4.35%로 남성이 높게 나타났고, 연령대는 10대는 3.75%, 20대 4.16%, 30대 4.39%, 40대 이상은 4.48%로 40대 이상이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 구성원이 1명은 4.33%, 2명은 4.18%, 3명은 4.19%, 4명 이상은 4.21%로 4명 이상이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를 살펴보면 가족 구성원 모두 대체적으로 고칼로리 식품을 제한하여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IV-15> 건주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반려견의 고칼로리 식품 섭취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t/F
성별	여자	빈도 8	9	29	39	105	4.18	t=-0.918 p=0.360
		비율 4.2%	4.7%	15.3%	20.5%	55.3%	(1.117)	
	남자	빈도 1	2	4	10	26	4.35	p=0.360
		비율 2.3%	4.7%	9.3%	23.3%	60.5%	(0.997)	
나이	10대	빈도 0	1	0	2	1	3.75	F=1.050 p=0.371
		비율 0.0%	25.0%	0.0%	50.0%	25.0%	(1.258)	
	20대	빈도 9	9	25	36	98	4.16	
		비율 5.1%	5.1%	14.1%	20.3%	55.4%	(1.157)	
	30대	빈도 0	1	4	8	18	4.39	
		비율 0.0%	3.2%	12.9%	25.8%	58.1%	(0.844)	
	40대	빈도 0	0	4	3	14	4.48	
		비율 0.0%	0.0%	19.0%	14.3%	66.7%	(0.814)	
가족 수	1명	빈도 1	0	0	2	6	4.33	F=0.050 p=0.985
		비율 11.1%	0.0%	0.0%	22.2%	66.7%	(1.323)	
	2명	빈도 2	0	2	6	12	4.18	
		비율 9.1%	0.0%	9.1%	27.3%	54.5%	(1.220)	
	3명	빈도 0	6	4	9	24	4.19	
		비율 0.0%	14.0%	9.3%	20.9%	55.8%	(1.097)	
	4명	빈도 6	5	27	32	89	4.21	
		비율 3.8%	3.1%	17.0%	20.1%	56.0%	(1.075)	

반려견의 특성에 따른 차이 결과는 다음 <표IV-16>과 같다.

‘1~2살’이 4.2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3~4살’4.27%,‘7~8살’4.19%,‘9살 이상’4.14%, ‘5~6살’3.9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수컷’이 4.34%로‘암컷’4.09%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성화수술을 한 반려견’이 4.36%로‘중성화수술을 하지 않은 반려견’4.09%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체형으로는 살찐형’이 4.3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마른형’4.35%,‘표준 체형’4.31%,‘비만형’3.82%,‘매우 마른형’3.29%의 순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 결과는‘매우 마른형’의 반려견이 42.9%, 그 다음으로‘비만형’의 반려견이 15.4%로 고칼로리 식품을 섭취하고 있었다.

<표IV-16> 반려견의 특성에 따른 반려견의 고칼로리 식품 섭취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t/F
1~2살	빈도	1	4	13	16	48	4.29	
	비율	1.2%	4.9%	15.9%	19.5%	58.5%	(0.987)	
3~4살	빈도	3	1	7	6	31	4.27	
	비율	6.3%	2.1%	14.6%	12.5%	64.6%	(1.180)	
5~6살	빈도	3	1	4	8	14	3.97	F=0.560
	비율	10.0%	3.3%	13.3%	26.7%	46.7%	(1.299)	p=0.692
7~8살	빈도	0	1	4	6	10	4.19	
	비율	0.0%	4.8%	19.0%	28.6%	47.6%	(0.928)	
9살 이상	빈도	2	4	5	12	26	4.14	
	비율	4.1%	8.2%	10.2%	24.5%	53.1%	(1.155)	
암컷	빈도	6	8	17	29	62	4.09	t=-1.742
	비율	4.9%	6.6%	13.9%	23.8%	50.8%	(1.164)	p=0.083
수컷	빈도	3	3	16	18	68	4.34	
	비율	2.8%	2.8%	14.8%	16.7%	63.0%	(1.015)	
중성화 수술 여부	빈도	4	1	14	18	65	4.36	t=1.916
	비율	3.9%	1.0%	13.7%	17.6%	63.7%	(1.022)	p=0.057
수술 안함	빈도	5	10	19	30	65	4.09	
	비율	3.9%	7.8%	14.7%	23.3%	50.4%	(1.146)	
매우 마른형	빈도	0	3	1	1	2	3.29	
	비율	.0%	42.9%	14.3%	14.3%	28.6%	(1.380)	
마른형	빈도	1	3	5	8	31	4.35	
	비율	2.1%	6.3%	10.4%	16.7%	64.6%	(1.041)	
표준 체형	빈도	2	5	19	28	75	4.31	F=3.087
	비율	1.6%	3.9%	14.7%	21.7%	58.1%	(0.967)	p=0.017
살찐형	빈도	0	0	2	1	5	4.38	
	비율	.0%	.0%	25.0%	12.5%	62.5%	(0.916)	
비만형	빈도	6	0	6	10	17	3.82	
	비율	15.4%	.0%	15.4%	25.6%	43.6%	(1.412)	

## 2. 반려견의 생활습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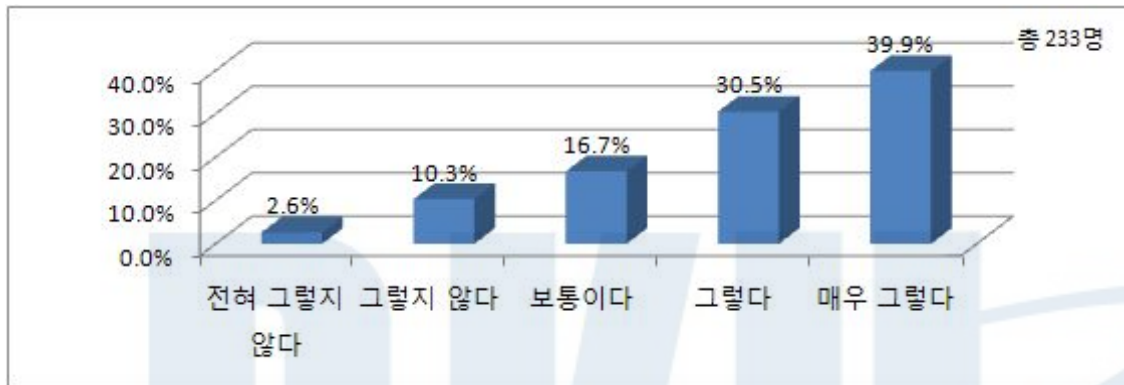
### 2.1 반려견의 활발한 성격

(매우 그렇다=5, 그렇다=4, 보통이다=3, 그렇지 않다=2, 전혀 그렇지 않다=1)

‘나의 애완견은 활발한 성격이다.’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 <그림IV-9>와 같다. 전체 응

답비율을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는 93명인 39.9%, ‘그렇다’는 71명인 30.5%, ‘보통이다’는 39명인 16.7%, ‘그렇지 않다’는 24명인 10.3%, ‘전혀 그렇지 않다’는 6명인 2.6%로 나타났다.

<그림 IV-9> 반려견의 활발한 성격



견주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 결과는 다음 <표 IV-17>와 같다.

여성이 3.88%, 남성이 4.23%로 남성이 높게 나타났고, 연령대는 10대는 4.00%, 20대 3.98%, 30대 3.77%, 40대 이상은 3.90%로 10대가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 구성원은 1명 4.67%, 2명 3.86%, 3명 3.72%, 4명 이상은 3.98%로 1명이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IV-17> 건주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반려견의 활발한 성격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t/F
성별	여자	빈도 6	19	36	59	70	3.88	t=-1.883 p=0.061
	비율 3.2%	10.0%	18.9%	31.1%	36.8%	(1.111)		
남자	빈도 0	5	3	12	23	4.23	(1.020)	F=0.328 p=0.805
	비율 0.0%	11.6%	7.0%	27.9%	53.5%	(1.155)		
나이	10대	빈도 0	0	2	0	2	4.00	F=0.328 p=0.805
	비율 0.0%	0.0%	50.0%	0.0%	50.0%	(1.155)		
	20대	빈도 5	20	21	58	73	3.98	
	비율 2.8%	11.3%	11.9%	32.8%	41.2%	(1.115)		
	30대	빈도 1	3	9	7	11	3.77	
	비율 3.2%	9.7%	29.0%	22.6%	35.5%	(1.146)		
	40대	빈도 0	1	7	6	7	3.90	
	비율 0.0%	4.8%	33.3%	28.6%	33.3%	(0.944)		
가족 수	1명	빈도 0	0	1	1	7	4.67	F=2.004 p=0.114
	비율 0.0%	0.0%	11.1%	11.1%	77.8%	(0.707)		
	2명	빈도 0	3	5	6	8	3.86	
	비율 0.0%	13.6%	22.7%	27.3%	36.4%	(1.082)		
	3명	빈도 2	6	8	13	14	3.72	
	비율 4.7%	14.0%	18.6%	30.2%	32.6%	(1.202)		
	4명	빈도 4	15	25	51	64	3.98	
	비율 2.5%	9.4%	15.7%	32.1%	40.3%	(1.082)		

반려견의 특성에 따른 차이 결과는 다음 <표IV-18>과 같다.

‘1~2살’이 4.3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3~4살’4.02%, ‘5~6살’ 3.67%, ‘7~8살’3.57%, ‘9살 이상’3.55%의 순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수컷’이 4.09%로 ‘암컷’3.84%보다 높게 나타났고, ‘중성화수술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 4.00%로 ‘중성화수술을 한 반려견’3.89%보다 높게 나타났다.

체형으로는 ‘마른형’이 4.27%, 다음으로 ‘표준 체형’3.95%, ‘살찐형 3.75%, ‘매우 마른형’3.71%, ‘비만형’3.67%의 순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비만형의 반려견과 나이가 들수록 움직임이 덜하고, 활발함 즉, 활동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IV-18> 반려견의 특성에 따른 반려견의 활발한 성격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t/F
1~2살	빈도	0	7	6	21	48	4.34	
	비율	0.0%	8.5%	7.3%	25.6%	58.5%	(0.946)	
3~4살	빈도	1	3	6	22	16	4.02	
	비율	2.1%	6.3%	12.5%	45.8%	33.3%	(0.956)	
나이	5~6살	빈도	1	4	8	8	3.67	F=5.778
	비율	3.3%	13.3%	26.7%	26.7%	30.0%	(1.155)	p<0.001
7~8살	빈도	2	3	4	5	7	3.57	
	비율	9.5%	14.3%	19.0%	23.8%	33.3%	(1.363)	
9살 이상	빈도	2	7	14	14	12	3.55	
	비율	4.1%	14.3%	28.6%	28.6%	24.5%	(1.138)	
성별	암컷	빈도	4	15	24	33	3.84	t=-1.765
	비율	3.3%	12.3%	19.7%	27.0%	37.7%	(1.160)	p=0.079
수컷	빈도	2	9	13	37	47	4.09	
	비율	1.9%	8.3%	12.0%	34.3%	43.5%	(1.028)	
중성화 수술 여부	수술함	빈도	3	12	16	33	3.89	t=-0.736
	비율	2.9%	11.8%	15.7%	32.4%	37.3%	(1.125)	p=0.462
수술 안함	빈도	3	12	22	37	55	4.00	
	비율	2.3%	9.3%	17.1%	28.7%	42.6%	(1.090)	
매우 마른형	빈도	1	0	2	1	3	3.71	
	비율	14.3%	.0%	28.6%	14.3%	42.9%	(1.496)	
마른형	빈도	0	5	5	10	28	4.27	
	비율	.0%	10.4%	10.4%	20.8%	58.3%	(1.026)	
표준 체형	빈도	2	14	20	46	47	3.95	F=1.826
	비율	1.6%	10.9%	15.5%	35.7%	36.4%	(1.048)	p=0.125
살찐형	빈도	0	2	1	2	3	3.75	
	비율	.0%	25.0%	12.5%	25.0%	37.5%	(1.282)	
비만형	빈도	3	3	10	11	12	3.67	
	비율	7.7%	7.7%	25.6%	28.2%	30.8%	(1.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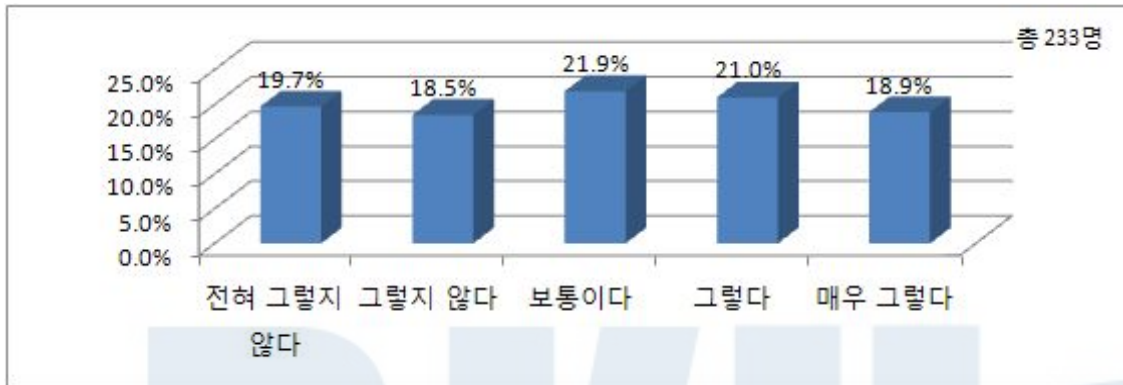
## 2.2 반려견의 산책시간

(매우 그렇다=5, 그렇다=4, 보통이다=3, 그렇지 않다=2, 전혀 그렇지 않다=1)

‘1회 산책시간은 평균 30분 이상 하는 편이다.’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 <그림IV-10>과 같다. 전체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는 44명인 18.9%, ‘그렇다’는 49명인 21.0%, ‘보통이다’는 51명인 21.9%, ‘그렇지 않다’는 43명인 18.5%, ‘전혀 그렇지 않다’는 46명

인 19.7%로 나타났다.

<그림 IV-10> 반려견의 산책시간



견주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 결과는 다음 <표 IV-19>와 같다.

여성이 3.01%, 남성이 3.00%로 차이가 나지 않았고, 연령대는 10대는 3.75%, 20대 3.07%, 30대 2.94%, 40대 이상은 2.43%로 10대가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 구성원은 1명 2.56%, 2명 2.6%8, 3명 2.79%, 4명 이상은 3.14%로 4명 이상이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Margaret, G 등(2005)은 운동 중의 산책은 일시적인 식욕 억제 효과와 육체 및 정신적인 건강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에너지의 섭취와 소비의 불균형을 줄이고 칼로리의 소모량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산책을 시키는 것이 비만과 건강을 지키는 일부분으로 가족 구성원의 협력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IV-19> 건주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반려견의 산책시간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t/F	
성별	여자	빈도	41	33	36	43	37	3.01	t=0.045 p=0.964
	비율	21.6%	17.4%	18.9%	22.6%	19.5%	(1.433)		
	남자	빈도	5	10	15	6	7	3.00	
	비율	11.6%	23.3%	34.9%	14.0%	16.3%	(1.234)		
나이	10대	빈도	0	1	0	2	1	3.75	F=1.758 p=0.156
		비율	0.0%	25.0%	0.0%	50.0%	25.0%	(1.258)	
	20대	빈도	32	31	43	34	37	3.07	
		비율	18.1%	17.5%	24.3%	19.2%	20.9%	(1.390)	
	30대	빈도	8	4	5	10	4	2.94	
		비율	25.8%	12.9%	16.1%	32.3%	12.9%	(1.436)	
	40대	빈도	6	7	3	3	2	2.43	
		비율	28.6%	33.3%	14.3%	14.3%	9.5%	(1.326)	
가족 수	1명	빈도	1	5	1	1	1	2.56	F=1.536 p=0.206
		비율	11.1%	55.6%	11.1%	11.1%	11.1%	(1.236)	
	2명	빈도	6	5	3	6	2	2.68	
		비율	27.3%	22.7%	13.6%	27.3%	9.1%	(1.393)	
	3명	빈도	12	5	10	12	4	2.79	
		비율	27.9%	11.6%	23.3%	27.9%	9.3%	(1.372)	
	4명	빈도	27	28	37	30	37	3.14	
		비율	17.0%	17.6%	23.3%	18.9%	23.3%	(1.403)	

반려견의 특성에 따른 차이 결과는 다음 <표IV-20>과 같다.

‘1~2살’이 3.3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3~4살’ 2.98%, ‘5~6살’ 2.90%, ‘7~8살’ 2.76%, ‘9살 이상’ 2.73%의 순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암컷’이 3.05%로 ‘수컷’ 3.01%보다 높게 나타났고, ‘중성화수술을 한 반려견’이 3.03%로 ‘중성화수술을 하지 않은 반려견’ 3.01%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

체형으로는 ‘마른형’이 3.29% 다음으로 ‘살찐형’ 3.25%, ‘표준 체형’ 3.01%, ‘매우 마른형’ 3.00%, ‘비만형’ 2.72%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IV-20> 반려견의 특성에 따른 반려견의 산책시간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t/F
1~2살	빈도	13	9	17	21	22	3.37	
	비율	15.9%	11.0%	20.7%	25.6%	26.8%	(1.401)	
3~4살	빈도	10	6	13	13	6	2.98	
	비율	20.8%	12.5%	27.1%	27.1%	12.5%	(1.329)	
나이	5~6살	빈도	6	9	4	4	2.90	F=2.077
	비율	20.0%	30.0%	13.3%	13.3%	23.3%	(1.494)	p=0.085
7~8살	빈도	3	9	3	2	4	2.76	
	비율	14.3%	42.9%	14.3%	9.5%	19.0%	(1.375)	
9살 이상	빈도	11	10	14	9	5	2.73	
	비율	22.4%	20.4%	28.6%	18.4%	10.2%	(1.287)	
성별	암컷	빈도	26	18	27	26	3.05	t=0.217
	비율	21.3%	14.8%	22.1%	21.3%	20.5%	(1.431)	p=0.829
수컷	빈도	18	24	24	23	19	3.01	
	비율	16.7%	22.2%	22.2%	21.3%	17.6%	(1.350)	
중성화 수술 여부	수술함	빈도	20	18	25	17	3.03	t=0.033
	비율	19.6%	17.6%	24.5%	16.7%	21.6%	(1.417)	p=0.973
수술 안함	빈도	24	25	26	32	22	3.02	
	비율	18.6%	19.4%	20.2%	24.8%	17.1%	(1.372)	
매우 마른형	빈도	1	2	2	0	2	3.00	
	비율	14.3%	28.6%	28.6%	.0%	28.6%	(1.528)	
마른형	빈도	8	8	6	14	12	3.29	
	비율	16.7%	16.7%	12.5%	29.2%	25.0%	(1.443)	
표준 체형	빈도	26	23	29	26	25	3.01	F=0.976
	비율	20.2%	17.8%	22.5%	20.2%	19.4%	(1.406)	p=0.421
살찐형	빈도	0	2	3	2	1	3.25	
	비율	.0%	25.0%	37.5%	25.0%	12.5%	(1.035)	
비만형	빈도	9	8	11	7	4	2.72	
	비율	23.1%	20.5%	28.2%	17.9%	10.3%	(1.2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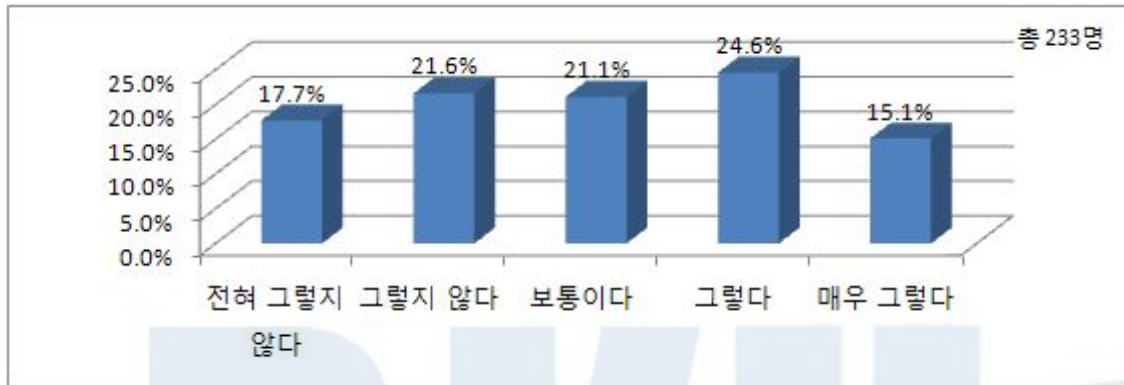
### 2.3 반려견의 평소 움직임

(매우 그렇다=5, 그렇다=4, 보통이다=3, 그렇지 않다=2, 전혀 그렇지 않다=1)

‘나의 애완견은 평소 혼자 잘 놀고, 움직임이 많은 편이다.’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 <그림IV-11>과 같다. 전체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는 35명인 15.1%, ‘그렇다’는 57명인 24.6%, ‘보통이다’는 49명인 21.1%, ‘그렇지 않다’는 50명인 21.6%, ‘전혀 그렇지

않다'는 41명인 17.7%로 나타났다.

<그림 IV-11> 반려견의 평소 움직임



견주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 결과는 다음 <표 IV-21>과 같다.

여성이 2.93%, 남성이 3.21%로 남성이 높게 나타났고, 연령대는 10대는 3.75%, 20대 3.01%, 30대 2.77%, 40대 이상은 2.90%로 10대가 높게 나타났다.

가족 구성원은 1명은 3.11%, 2명은 2.91%, 3명은 2.84%, 4명 이상은 3.02%로 1명이 높게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를 보면 움직임이 적고 평소 잘 놀지 않는 반려견이 39.3%를 나타내고 있고, 보통이다 는 21.1%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각 견종들의 유전적인 요소와 환경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고, 각 가족 구성원의 개개인의 스타일 라이프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사료된다.



<표IV-21> 견주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반려견의 평소 움직임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t/F
성별	여자	빈도 37 비율 19.6%	39 20.6%	40 21.2%	47 24.9%	26 13.8%	2.93 (1.339)	t=-1.259 p=0.209
	남자	빈도 4 비율 9.3%	11 25.6%	9 20.9%	10 23.3%	9 20.9%	3.21 (1.301)	
나이	10대	빈도 0 비율 0.0%	1 25.0%	0 0.0%	2 50.0%	1 25.0%	3.75 (1.258)	F=0.742 p=0.528
	20대	빈도 34 비율 19.2%	35 19.8%	34 19.2%	44 24.9%	30 16.9%	3.01 (1.380)	
	30대	빈도 6 비율 20.0%	7 23.3%	7 23.3%	8 26.7%	2 6.7%	2.77 (1.251)	
	40대	빈도 1 비율 4.8%	7 33.3%	8 38.1%	3 14.3%	2 9.5%	2.90 (1.044)	
	이상	빈도 1 비율 11.1%	3 33.3%	1 11.1%	2 22.2%	2 22.2%	3.11 (1.453)	
	가족 수	1명	빈도 6 비율 27.3%	3 13.6%	3 13.6%	7 31.8%	3 13.6%	
2명	빈도 8 비율 18.6%	12 27.9%	7 16.3%	11 25.6%	5 11.6%	2.84 (1.326)		
3명	빈도 26 비율 16.5%	32 20.3%	38 24.1%	37 23.4%	25 15.8%	3.02 (1.319)		
4명 이상	빈도	비율						

반려견의 특성에 따른 차이 결과는 다음 <표IV-22>와 같다.

‘1~2살’이 3.6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7~8살’ 2.90%, ‘3~4살’ 2.75%, ‘5~6살’ 2.70%, ‘9살 이상’ 2.29%의 순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수컷’이 3.05%로 ‘암컷’ 2.91%보다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려견의 중성화수술 여부에 대한 응답 차이를 살펴보면, ‘중성화수술을 하지 않은 애완견’이 3.16%로 중성화수술을 한 애완견 2.75%보다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체형으로는 ‘매우 마른형’이 3.29%, 다음으로 ‘마른형’ 3.11%, ‘표준 체형’ 3.07%, ‘살찐형’ 3.00%, ‘비만형’ 2.46%의 순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암컷과 9살 이상의 노령견과 중성화 수술을 한 반려견과 비만형의 반려견이 혼자 잘 놀지 않고, 평소 움직임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IV-22> 반려견의 특성에 따른 반려견의 평소움직임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t/F
1~2살	빈도	6	9	17	27	23	3.63	
	비율	7.3%	11.0%	20.7%	32.9%	28.0%	(1.212)	
3~4살	빈도	12	8	12	12	4	2.75	
	비율	25.0%	16.7%	25.0%	25.0%	8.3%	(1.313)	
나이	5~6살	빈도	7	8	5	7	2.70	F=1.169 p<0.001
	비율	23.3%	26.7%	16.7%	23.3%	10.0%	(1.343)	
7~8살	빈도	4	4	6	4	3	2.90	
	비율	19.0%	19.0%	28.6%	19.0%	14.3%	(1.338)	
9살 이상	빈도	12	20	8	6	2	2.29	
	비율	25.0%	41.7%	16.7%	12.5%	4.2%	(1.110)	
성별	암컷	빈도	24	25	29	24	2.91	t=-0.774 p=0.440
	비율	19.8%	20.7%	24.0%	19.8%	15.7%	(1.354)	
수컷	빈도	17	24	20	31	16	3.05	
	비율	15.7%	22.2%	18.5%	28.7%	14.8%	(1.321)	
중성화 수술 여부	수술함	빈도	23	23	22	24	2.75	t=-2.284 p=0.023
	비율	22.5%	22.5%	21.6%	23.5%	9.8%	(1.308)	
수술 안함	빈도	18	26	27	32	25	3.16	
	비율	14.1%	20.3%	21.1%	25.0%	19.5%	(1.337)	
매우 마른형	빈도	2	0	1	2	2	3.29	
	비율	28.6%	.0%	14.3%	28.6%	28.6%	(1.704)	
마른형	빈도	5	13	10	10	9	3.11	
	비율	10.6%	27.7%	21.3%	21.3%	19.1%	(1.306)	
표준 체형	빈도	20	25	28	38	18	3.07	F=1.837 p=0.123
	비율	15.5%	19.4%	21.7%	29.5%	14.0%	(1.294)	
살찐형	빈도	0	3	3	1	1	3.00	
	비율	.0%	37.5%	37.5%	12.5%	12.5%	(1.069)	
비만형	빈도	14	8	7	5	5	2.46	
	비율	35.9%	20.5%	17.9%	12.8%	12.8%	(1.4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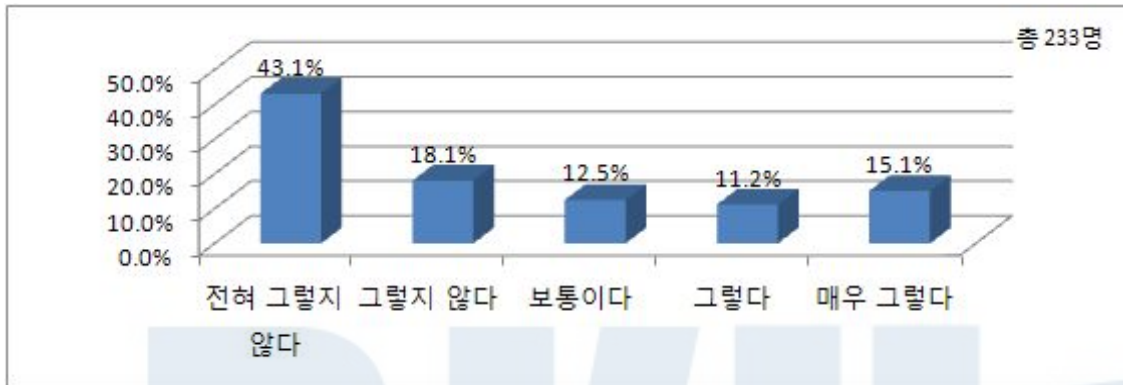
## 2.4 반려견의 산책횟수

(매우 그렇다=5, 그렇다=4, 보통이다=3, 그렇지 않다=2, 전혀 그렇지 않다=1)

‘나의 애완견은 일주일에 3회 이상 산책하는 편이다.’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 <그림IV-12>와 같다. 전체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는 35명 15.1%, ‘그렇다’는 26명인 11.2%, ‘보통이다’는 29명인 12.5%, ‘그렇지 않다’는 42명인 18.1%, ‘전혀 그렇지 않다’는

100명인 43.1%로 나타났다.

<그림 IV-12> 반려견의 산책횟수



견주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 결과는 다음 <표 IV-23>와 같다.

여성이 2.25%, 남성이 2.91%로 남성이 높게 나타났고, 유의확률이  $p=0.009$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연령대는 10대 3.00%, 20대 2.51%, 30대 2.03%, 40대 이상은 1.52%로 10대가 높게 나타났고, 유의확률이  $p=0.013$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족 구성원은 1명은 2.22%, 2명은 2.45%, 3명은 2.07%, 4명 이상은 2.45%로 2명과 4명 이상이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40대 이상이 반려견의 산책을 시켜주는 횟수는 가장 적었으며, 대체적으로 산책의 횟수는 일주일에 3회 이상으로 하는 견주는 233명 중 91명 이었고, 142명은 산책하는 횟수가 불규칙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반려견에게 산책이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인 운동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가족 모두가 동참하여 협력해야 할 것이며, 기분전환 또는 운동부족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인 스트레스 해소로 정기적인 단시간의 짧은 산책이라도 필요한 것을 견주의 입장에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표IV-23> 견주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반려견의 산책횟수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t/F
성별	여자	빈도	89	35	19	21	25	2.25	t=-2.640 p=0.009
		비율	47.1%	18.5%	10.1%	11.1%	13.2%	(1.468)	
	남자	빈도	11	7	10	5	10	2.91	F=3.658 p=0.013
		비율	25.6%	16.3%	23.3%	11.6%	23.3%	(1.509)	
나이	10대	빈도	1	1	0	1	1	3.00	F=3.658 p=0.013
		비율	25.0%	25.0%	0.0%	25.0%	25.0%	(1.826)	
	20대	빈도	67	33	26	21	30	2.51	F=3.658 p=0.013
		비율	37.9%	18.6%	14.7%	11.9%	16.9%	(1.508)	
	30대	빈도	16	5	3	4	2	2.03	F=3.658 p=0.013
		비율	53.3%	16.7%	10.0%	13.3%	6.7%	(1.351)	
	40대	빈도	16	3	0	0	2	1.52	F=3.658 p=0.013
	이상	비율	76.2%	14.3%	0.0%	0.0%	9.5%	(1.209)	
가족 수	1명	빈도	6	0	0	1	2	2.22	F=0.777 p=0.508
		비율	66.7%	0.0%	0.0%	11.1%	22.2%	(1.856)	
	2명	빈도	8	3	6	3	2	2.45	F=0.777 p=0.508
		비율	36.4%	13.6%	27.3%	13.6%	9.1%	(1.371)	
	3명	빈도	21	9	5	5	3	2.07	F=0.777 p=0.508
		비율	48.8%	20.9%	11.6%	11.6%	7.0%	(1.316)	
	4명	빈도	65	30	18	17	28	2.45	F=0.777 p=0.508
	이상	비율	41.1%	19.0%	11.4%	10.8%	17.7%	(1.537)	

반려견의 특성에 따른 차이 결과는 다음 <표IV-24>와 같다.

‘1~2살’이 2.9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7~8살’ 2.43%, ‘3~4살’ 2.23%, ‘9살 이상’ 2.13%, ‘7~8살’ 1.57%의 순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수컷’이 3.39%로 ‘암컷’ 3.37%보다 높게 나타났고, ‘중성화수술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 2.51%로 ‘중성화수술을 한 반려견’ 2.21%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살찐형’이 2.8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매우 마른형’ 2.57%, ‘마른형’ 2.47%, ‘표준 체형’ 2.34%, ‘비만형’ 2.23%의 순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IV-24> 반려견의 특성에 따른 반려견의 산책횟수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t/F
1~2살	빈도	22	14	14	14	18	2.90	
	비율	26.8%	17.1%	17.1%	17.1%	22.0%	(1.520)	
3~4살	빈도	23	8	6	5	6	2.23	
	비율	47.9%	16.7%	12.5%	10.4%	12.5%	(1.462)	
나이	5~6살	빈도	20	6	2	1	1.57	F=5.593
	비율	66.7%	20.0%	6.7%	3.3%	3.3%	(1.006)	p<0.001
7~8살	빈도	9	4	2	2	4	2.43	
	비율	42.9%	19.0%	9.5%	9.5%	19.0%	(1.599)	
9살 이상	빈도	24	10	4	4	6	2.13	
	비율	50.0%	20.8%	8.3%	8.3%	12.5%	(1.438)	
성별	암컷	빈도	53	23	12	13	2.37	
	비율	43.8%	19.0%	9.9%	10.7%	16.5%	(1.528)	t=-0.085
수컷	빈도	45	19	16	13	15	2.39	p=0.932
	비율	41.7%	17.6%	14.8%	12.0%	13.9%	(1.471)	
중성화 수술 여부	수술함	빈도	48	19	13	10	2.21	
	비율	47.1%	18.6%	12.7%	9.8%	11.8%	(1.424)	t=-1.523
수술 안함	빈도	51	23	15	16	23	2.51	p=0.129
	비율	39.8%	18.0%	11.7%	12.5%	18.0%	(1.547)	
매우 마른형	빈도	2	2	1	1	1	2.57	
	비율	28.6%	28.6%	14.3%	14.3%	14.3%	(1.512)	
마른형	빈도	20	8	5	5	9	2.47	
	비율	42.6%	17.0%	10.6%	10.6%	19.1%	(1.586)	
표준 체형	빈도	59	19	16	18	17	2.34	F=0.401
	비율	45.7%	14.7%	12.4%	14.0%	13.2%	(1.492)	p=0.808
살찐형	빈도	2	2	1	1	2	2.88	
	비율	25.0%	25.0%	12.5%	12.5%	25.0%	(1.642)	
비만형	빈도	16	11	5	1	6	2.23	
	비율	41.0%	28.2%	12.8%	2.6%	15.4%	(1.4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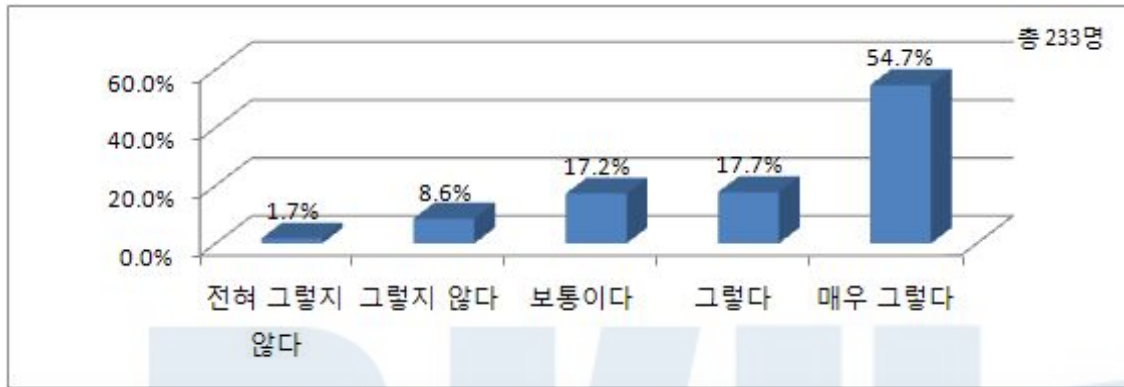
## 2.5 반려견의 스트레스 해소(음식)

(매우 그렇다=5, 그렇다=4, 보통이다=3, 그렇지 않다=2, 전혀 그렇지 않다=1)

‘나의 애완견은 평소 스트레스 음식으로 해소하려 하지 않는다.’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그림IV-13>과 같다. 전체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는 127명인 54.7%, ‘그렇다’는 41명인 17.7%, ‘보통이다’는 40명인 17.2%, ‘그렇지 않

다’는 20명인 8.6%,‘전혀 그렇지 않다’는 4명인 1.7%로 나타났다.

<그림 IV-13> 반려견의 스트레스 해소(음식)



견주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 결과는 다음 <표IV-25>와 같다.  
 여성이 4.14%, 남성이 4.21%로 남성이 높게 나타났고, 연령대는 10대 4.25%, 20대 4.10%, 30대 4.37%, 40대 이상은 4.24%로 30대가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 구성원은 평균값이 1명은 4.11%, 2명은 4.18%, 3명은 4.16%, 4명 이상은 4.15%로 2명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평상시 주의 깊은 관심과 함께 반려견의 욕구불만을 잘 이해하고, 해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IV-25> 건주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반려견의 스트레스 해소(음식)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t/F	
성별	여자	빈도	4	17	34	28	106	4.14	
	비율	2.1%	9.0%	18.0%	14.8%	56.1%	(1.131)	t=-0.387	
남자	빈도	0	3	6	13	21	4.21	p=0.699	
	비율	0.0%	7.0%	14.0%	30.2%	48.8%	(0.940)		
나이	10대	빈도	0	0	1	1	2	4.25	
		비율	0.0%	0.0%	25.0%	25.0%	50.0%	(0.957)	
	20대	빈도	3	17	33	30	94	4.10	F=0.558
		비율	1.7%	9.6%	18.6%	16.9%	53.1%	(1.118)	
	30대	빈도	0	2	3	7	18	4.37	p=0.643
		비율	0.0%	6.7%	10.0%	23.3%	60.0%	(0.928)	
40대 이상	빈도	1	1	3	3	13	4.24		
비율	4.8%	4.8%	14.3%	14.3%	61.9%	(1.179)			
가족 수	1명	빈도	0	1	2	1	5	4.11	
		비율	0.0%	11.1%	22.2%	11.1%	55.6%	(1.167)	
	2명	빈도	0	3	2	5	12	4.18	F=0.013
		비율	0.0%	13.6%	9.1%	22.7%	54.5%	(1.097)	
	3명	빈도	1	4	5	10	23	4.16	p=0.998
		비율	2.3%	9.3%	11.6%	23.3%	53.5%	(1.111)	
	4명 이상	빈도	3	12	31	25	87	4.15	
		비율	1.9%	7.6%	19.6%	15.8%	55.1%	(1.099)	

반려견의 특성에 따른 차이 결과는 다음 <표IV-26>와 같다.

‘1~2살’이 2.9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7~8살’ 2.43%, ‘3~4살’ 2.23%, 9살 이상 2.13%, 7~8살 1.57%의 순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수컷’이 3.39%로 ‘암컷’ 3.37%보다 높게 나타났고, ‘중성화수술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 2.51%로 ‘중성화수술을 한 반려견’ 2.21%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살찐형’이 2.8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매우 마른형’ 2.57%, ‘마른형’ 2.47%, ‘표준 체형’ 2.34%, ‘비만형’ 2.23%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IV-26> 반려견의 특성에 따른 반려견의 스트레스 해소(음식)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t/F
1~2살	빈도	1	5	19	14	43	4.13	
	비율	1.2%	6.1%	23.2%	17.1%	52.4%	(1.051)	
3~4살	빈도	1	2	7	11	27	4.27	
	비율	2.1%	4.2%	14.6%	22.9%	56.3%	(1.005)	
5~6살	빈도	0	4	6	3	17	4.10	F=0.185
	비율	0.0%	13.3%	20.0%	10.0%	56.7%	(1.155)	p=0.946
7~8살	빈도	0	3	4	1	13	4.14	
	비율	0.0%	14.3%	19.0%	4.8%	61.9%	(1.195)	
9살 이상	빈도	2	5	4	12	25	4.10	
	비율	4.2%	10.4%	8.3%	25.0%	52.1%	(1.195)	
암컷	빈도	3	10	17	17	74	4.23	t=1.154
	비율	2.5%	8.3%	14.0%	14.0%	61.2%	(1.124)	p=0.250
수컷	빈도	1	9	23	24	51	4.06	
	비율	0.9%	8.3%	21.3%	22.2%	47.2%	(1.053)	
수술함	빈도	3	9	21	17	52	4.04	t=-1.460
	비율	2.9%	8.8%	20.6%	16.7%	51.0%	(1.160)	p=0.146
수술 여부	빈도	1	10	19	24	74	4.25	
	비율	0.8%	7.8%	14.8%	18.8%	57.8%	(1.027)	
매우 마른형	빈도	1	1	2	1	2	3.29	
	비율	14.3%	14.3%	28.6%	14.3%	28.6%	(1.496)	
마른형	빈도	0	1	8	9	29	4.40	
	비율	.0%	2.1%	17.0%	19.1%	61.7%	(0.851)	
표준 체형	빈도	2	7	20	22	78	4.29	F=5.405
	비율	1.6%	5.4%	15.5%	17.1%	60.5%	(1.019)	p<0.001
살찐형	빈도	0	2	4	0	2	3.25	
	비율	.0%	25.0%	50.0%	.0%	25.0%	(1.165)	
비만형	빈도	1	8	6	9	15	3.74	
	비율	2.6%	20.5%	15.4%	23.1%	38.5%	(1.251)	

### 3. 견주의 애견식품(사료 및 간식)에 대한 생각

#### 3.1 애견식품의 양과 질에 대한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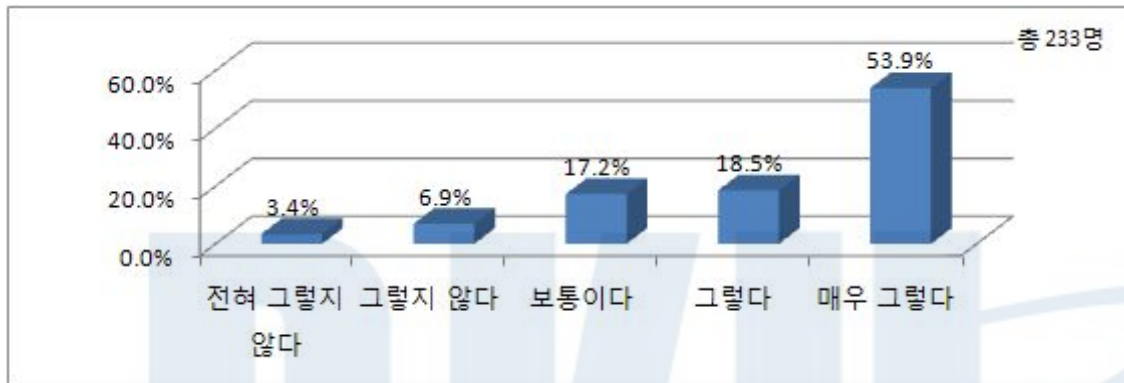
(매우 그렇다=5, 그렇다=4, 보통이다=3, 그렇지 않다=2, 전혀 그렇지 않다=1)

‘애견식품 구입 시 양보다 질을 선호한다.’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 <그림IV-26>과 같



다. 전체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는 125명인 53.9%, '그렇다'는 43명인 18.5%, '보통이다'는 40명인 17.2%, '그렇지 않다'는 16명인 6.9%, '전혀 그렇지 않다'는 8명인 3.4%로 나타났다.

<그림 IV-14> 애견식품의 양과 질에 대한 선호도



견주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 결과는 다음 <표 IV-27>와 같다.

여성이 4.21%, 남성이 3.77%로 여성이 높게 나타났고, 유의확률이  $p=0.022$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대는 10대 4.50%, 20대 4.01%, 30대 4.37%, 40대 이상은 4.67%로 40대 이상이 높게 나타났고, 유의확률이  $p=0.038$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족 구성원은 1명은 4.78%, 2명은 4.41%, 3명은 4.00%, 4명 이상은 4.08%로 1명이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여성이 남정보다 양보다 애견 식품 구입시 가격과 상관없이 질 좋은 사료를 구매한다는 것은 반려견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인식변화와 40대 이상이 높게 나타난 것은 경제소득의 안정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표IV-27> 건주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애견식품의 양과 질에 대한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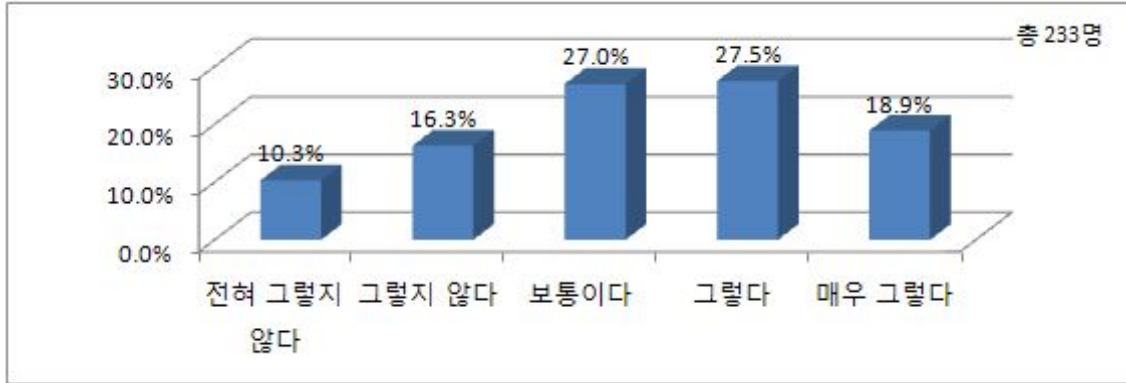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t/F
성별	여자	빈도 5	15	26	33	110	4.21	t=2.311 p=0.022
		비율 2.6%	7.9%	13.8%	17.5%	58.2%	(1.113)	
	남자	빈도 3	1	14	10	15	3.77	F=2.854 p=0.038
		비율 7.0%	2.3%	32.6%	23.3%	34.9%	(1.172)	
나이	10대	빈도 0	0	0	2	2	4.50	F=2.854 p=0.038
		비율 0.0%	0.0%	0.0%	50.0%	50.0%	(0.577)	
	20대	빈도 6	15	35	36	85	4.01	F=2.854 p=0.038
		비율 3.4%	8.5%	19.8%	20.3%	48.0%	(1.153)	
	30대	빈도 1	1	5	2	21	4.37	F=2.854 p=0.038
		비율 3.3%	3.3%	16.7%	6.7%	70.0%	(1.098)	
	40대	빈도 1	0	0	3	17	4.67	F=2.854 p=0.038
	이상	비율 4.8%	0.0%	0.0%	14.3%	81.0%	(0.913)	
가족 수	1명	빈도 0	0	1	0	8	4.78	F=1.717 p=0.164
		비율 0.0%	0.0%	11.1%	0.0%	88.9%	(0.667)	
	2명	빈도 0	1	3	4	14	4.41	F=1.717 p=0.164
		비율 0.0%	4.5%	13.6%	18.2%	63.6%	(0.908)	
	3명	빈도 3	2	9	7	22	4.00	F=1.717 p=0.164
		비율 7.0%	4.7%	20.9%	16.3%	51.2%	(1.254)	
	4명	빈도 5	13	27	32	81	4.08	F=1.717 p=0.164
	이상	비율 3.2%	8.2%	17.1%	20.3%	51.3%	(1.140)	

### 3.2 친환경 사료에 대한 선호도

(매우 그렇다=5, 그렇다=4, 보통이다=3, 그렇지 않다=2, 전혀 그렇지 않다=1)

‘애견식품 구입 시 친환경이나 웰빙식품을 선호한다.’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 <그림IV-15>와 같다. 전체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는 44명인 18.9%, ‘그렇다’는 64명인 27.5%, ‘보통이다’는 63명인 27.0%, ‘그렇지 않다’는 38명인 16.3%, ‘전혀 그렇지 않다’는 24명인 10.3%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한방사료, 유기농 사료, 기능성의 다양화와 세분화된 사료, 건강식품에 해당하는 각종 비타민, 오메가3, 허브 등이 첨가된 웰빙사료 까지 새로운 패턴이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친환경이나 웰빙사료에 대한 선호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반려견의 건강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결과이다.

<그림IV-15> 친환경 사료에 대한 선호도



전주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 결과는 다음 <표IV-28>와 같다.

여성이 3.28%, 남성이 3.28%로 여성과 남성이 같게 나타났고, 연령대는 10대 4.25%, 20대 3.21%, 30대 3.55%, 40대 이상은 3.33%로 10대가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 구성원은 1명은 3.78%, 2명은 3.45%, 3명은 3.14%, 4명 이상은 3.27%로 1명이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를 보면 반려견을 바라보는 인식변화로 친환경 및 웰빙식품을 구입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IV-28> 건주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 사료에 대한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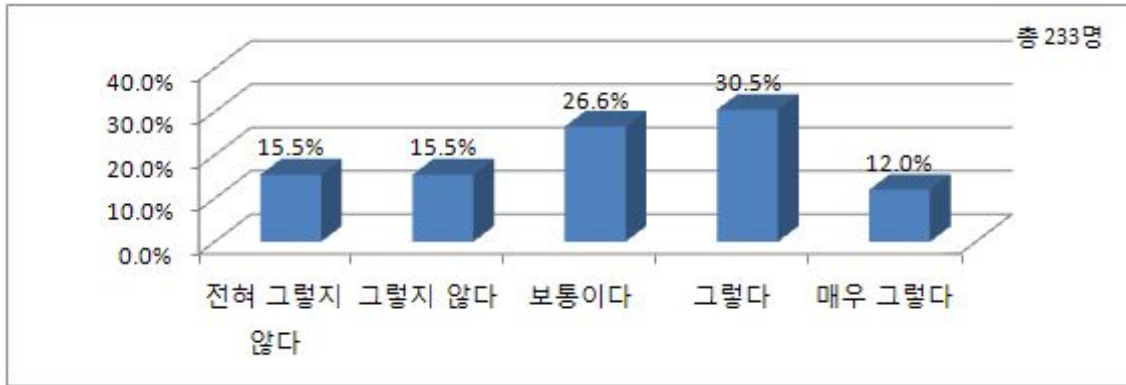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t/F
성별	여자	빈도 22 비율 11.6%	29 15.3%	48 25.3%	55 28.9%	36 18.9%	3.28 (1.261)	t=0.025 p=0.980
	남자	빈도 2 비율 4.7%	9 20.9%	15 34.9%	9 20.9%	8 18.6%	3.28 (1.141)	
나이	10대	빈도 0 비율 0.0%	0 0.0%	1 25.0%	1 25.0%	2 50.0%	4.25 (0.957)	F=1.522 p=0.210
	20대	빈도 18 비율 10.2%	31 17.5%	51 28.8%	50 28.2%	27 15.3%	3.21 (1.200)	
	30대	빈도 5 비율 16.1%	2 6.5%	7 22.6%	5 16.1%	12 38.7%	3.55 (1.480)	
	40대	빈도 1 비율 4.8%	5 23.8%	4 19.0%	8 38.1%	3 14.3%	3.33 (1.155)	
	이상	빈도 0 비율 0.0%	1 11.1%	2 22.2%	4 44.4%	2 22.2%	3.78 (0.972)	
	가족 수	1명	빈도 1 비율 4.5%	5 22.7%	6 27.3%	3 13.6%	7 31.8%	
2명	빈도 4 비율 9.3%	7 16.3%	16 37.2%	11 25.6%	5 11.6%	3.14 (1.125)		
3명	빈도 19 비율 11.9%	25 15.7%	39 24.5%	46 28.9%	30 18.9%	3.27 (1.271)		
4명 이상	빈도	비율						

### 3.3 유명브랜드 사료에 대한 선호도

(매우 그렇다=5, 그렇다=4, 보통이다=3, 그렇지 않다=2, 전혀 그렇지 않다=1)

‘애견식품 구입 시 유명브랜드 및 제조사를 선호한다.’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 <그림IV-16>과 같다. 전체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는 28명인 12.0%, ‘그렇다’는 71명인 30.5%, ‘보통이다’는 62명인 26.6%, ‘그렇지 않다’는 36명인 15.5%, ‘전혀 그렇지 않다’는 36명인 15.5%로 나타났다.

<그림IV-16> 유명브랜드 사료에 대한 선호도



견주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 결과는 다음 <표IV-29>과 같다.

여성이 3.08%, 남성이 3.07%로 여성이 남성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고, 연령대는 10대 2.50%, 20대 3.04%, 30대 3.19%, 40대 이상은 3.38%로 40대 이상이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 구성원은 1명은 3.44%, 2명은 3.09%, 3명은 2.86%, 4명 이상은 3.12%로 1명이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반려견이 또다른 가족의 개념으로 자리매김함으로서, 건강의 관심과 신중하게 생각하여 대중매체 및 홍보와 인터넷 등의 정보를 통하거나 지인 권유 또는 매장 등의 권유로 유명 브랜드를 선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IV-29> 건주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명브랜드 사료에 대한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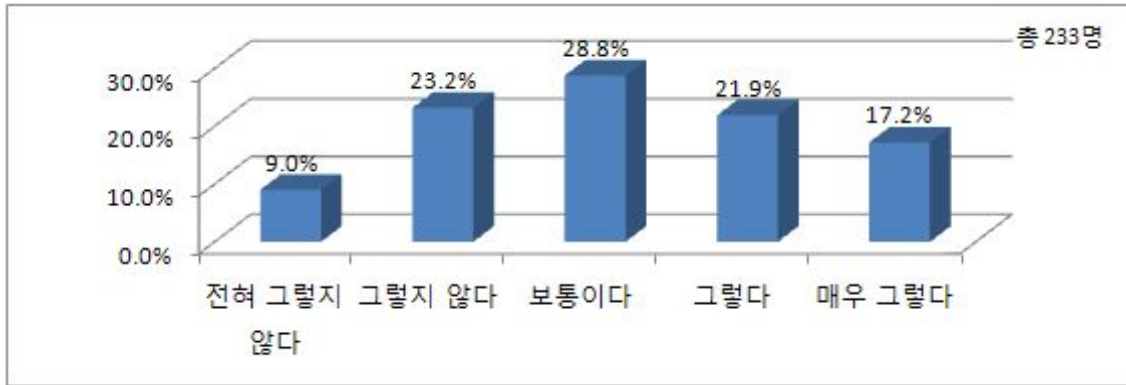
구분		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t/F		
성별	여자	빈도	29	31	51	53	26	3.08	t=0.068 p=0.946		
	비율	15.3%	16.3%	26.8%	27.9%	13.7%	(1.265)				
	남자	빈도	7	5	11	18	2	3.07	p=0.946		
	비율	16.3%	11.6%	25.6%	41.9%	4.7%	(1.183)				
나이	10대	빈도	1	1	1	1	0	2.50	F=0.840 p=0.473		
		비율	25.0%	25.0%	25.0%	25.0%	0.0%	(1.291)			
	20대	빈도	28	27	48	58	16	3.04			
		비율	15.8%	15.3%	27.1%	32.8%	9.0%	(1.217)			
	30대	빈도	7	4	5	6	9	3.19			
		비율	22.6%	12.9%	16.1%	19.4%	29.0%	(1.558)			
	40대	빈도	0	4	8	6	3	3.38			
		비율	0.0%	19.0%	38.1%	28.6%	14.3%	(0.973)			
	가족 수	1명	빈도	0	1	5	1	2		3.44	F=0.750 p=0.523
			비율	0.0%	11.1%	55.6%	11.1%	22.2%		(1.014)	
2명		빈도	4	3	6	5	4	3.09			
		비율	18.2%	13.6%	27.3%	22.7%	18.2%	(1.377)			
3명		빈도	9	7	12	11	4	2.86			
		비율	20.9%	16.3%	27.9%	25.6%	9.3%	(1.283)			
4명		빈도	23	25	39	54	18	3.12			
		비율	14.5%	15.7%	24.5%	34.0%	11.3%	(1.234)			

### 3.4 애견식품 가격의 구매 영향

(매우 그렇다=5, 그렇다=4, 보통이다=3, 그렇지 않다=2, 전혀 그렇지 않다=1)

‘애견식품 구입 시 가격이 구매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 <그림 IV-17>과 같다. 전체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는 40명인 17.2%, ‘그렇다’는 51명인 21.9%, ‘보통이다’는 67명인 28.8%, ‘그렇지 않다’는 54명인 23.2%, ‘전혀 그렇지 않다’는 21명인 9.0%로 나타났다.

<그림IV-17> 애견식품의 가격의 구매 영향



전주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 결과는 다음 <표IV-30>과 같다.

여성이 3.26%, 남성이 2.67%로 여성이 높게 나타났고, 유의확률이  $p=0.004$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연령대는 10대 3.25%, 20대 3.00%, 30대 3.58%, 40대 이상은 3.76%로 40대 이상이 높게 나타났고, 유의확률이  $p=0.007$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가족 구성원 1명은 4.56%, 2명은 3.50%, 3명은 3.12%, 4명 이상은 3.03%으로 1명이 높게 나타났고, 유의확률이  $p=0.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 결과 68.2%가 가격의 구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32.2%는 40대 이상이 애견식품 구매에 가격이 영향을 미치는 것에 예민한 것은 특히 여성은 생활수준의 영향과 생활비 지출의 부담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족 구성이 1인 일수록 생활비는 물론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감이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표IV-30> 건주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애견식품의 가격의 구매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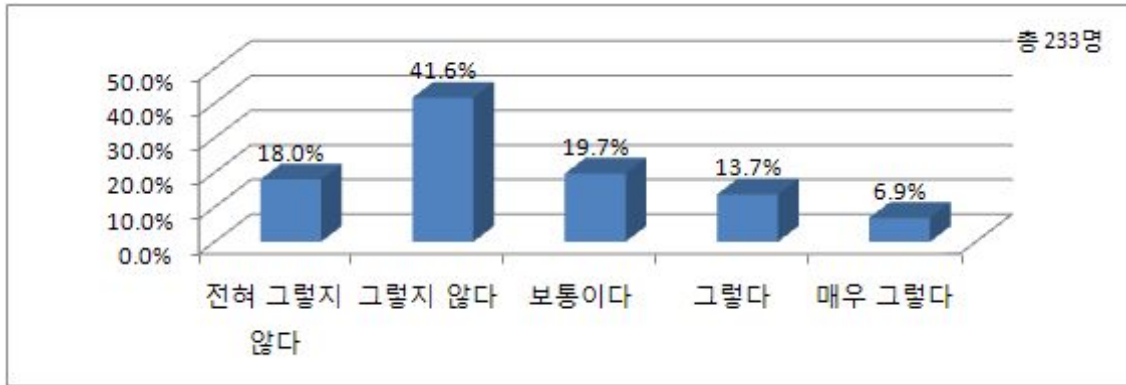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t/F
성별	여자	빈도 14 비율 7.4%	43 22.6%	52 27.4%	42 22.1%	39 20.5%	3.26 (1.227)	t=2.883 p=0.004
	남자	빈도 7 비율 16.3%	11 25.6%	15 34.9%	9 20.9%	1 2.3%	2.67 (1.063)	
나이	10대	빈도 0 비율 0.0%	0 0.0%	3 75.0%	1 25.0%	0 0.0%	3.25 (0.500)	F=4.128 p=0.007
	20대	빈도 19 비율 10.7%	47 26.6%	50 28.2%	37 20.9%	24 13.6%	3.00 (1.206)	
	30대	빈도 1 비율 3.2%	4 12.9%	12 38.7%	4 12.9%	10 32.3%	3.58 (1.177)	
	40대	빈도 1 비율 4.8%	3 14.3%	2 9.5%	9 42.9%	6 28.6%	3.76 (1.179)	
	이상	빈도 0 비율 0.0%	0 0.0%	2 22.2%	0 0.0%	7 77.8%	4.56 (0.882)	
	가족 수	1명	빈도 2 비율 9.1%	3 13.6%	5 22.7%	6 27.3%	6 27.3%	
2명	빈도 2 비율 4.7%	11 25.6%	15 34.9%	10 23.3%	5 11.6%	3.12 (1.074)		
3명	빈도 17 비율 10.7%	40 25.2%	45 28.3%	35 22.0%	22 13.8%	3.03 (1.209)		
4명 이상	빈도 17 비율 10.7%	40 25.2%	45 28.3%	35 22.0%	22 13.8%	3.03 (1.209)		

### 3.5 애견식품의 기호성 생각

(매우 그렇다=5, 그렇다=4, 보통이다=3, 그렇지 않다=2, 전혀 그렇지 않다=1)

‘애견식품 구입 시 제품의 기호성을 생각하며 구입한다.’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 <그림 IV-18>과 같다. 전체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는 16명의 6.9%, ‘그렇다’는 32명의 13.7%, ‘보통이다’는 46명의 19.7%, ‘그렇지 않다’는 97명의 41.6%, ‘전혀 그렇지 않다’는 42명의 18.0%로 나타났다.

<그림IV-18> 애견식품의 기호성 생각



견주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 결과는 다음 <표IV-31>과 같다.

여성이 2.49%, 남성이 2.53%으로 남성이 높게 나타났고, 연령대 10대는 2.75%, 20대 2.51%, 30대 2.48%, 40대 이상은 2.33%로 10대가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 구성원이 1명은 2.00%, 2명은 2.55%, 3명은 2.70%, 4명 이상은 2.47%로 3명이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IV-31> 건주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애견식품의 기호성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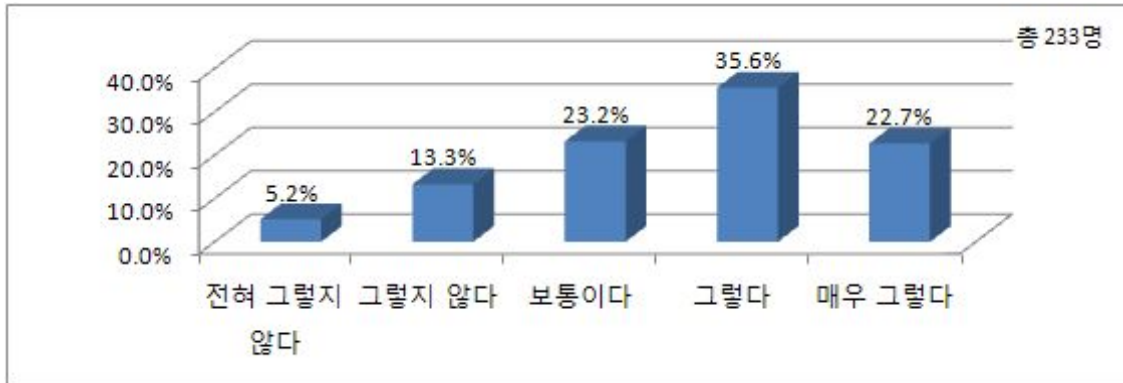
구분		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t/F
성별	여자	빈도	39	74	36	27	14	2.49	t=-0.268 p=0.790
		비율	20.5%	38.9%	18.9%	14.2%	7.4%	(1.181)	
	남자	빈도	3	23	10	5	2	2.53	p=0.790
		비율	7.0%	53.5%	23.3%	11.6%	4.7%	(0.960)	
나이	10대	빈도	0	1	3	0	0	2.75	F=0.222 p=0.881
		비율	0.0%	25.0%	75.0%	0.0%	0.0%	(0.500)	
	20대	빈도	28	77	39	19	14	2.51	
		비율	15.8%	43.5%	22.0%	10.7%	7.9%	(1.124)	
	30대	빈도	11	7	2	9	2	2.48	
		비율	35.5%	22.6%	6.5%	29.0%	6.5%	(1.411)	
	40대	빈도	3	12	2	4	0	2.33	
		비율	14.3%	57.1%	9.5%	19.0%	0.0%	(0.966)	
가족 수	1명	빈도	2	5	2	0	0	2.00	F=1.067 p=0.364
		비율	22.2%	55.6%	22.2%	0.0%	0.0%	(0.707)	
	2명	빈도	6	5	4	7	0	2.55	
		비율	27.3%	22.7%	18.2%	31.8%	0.0%	(1.224)	
	3명	빈도	4	19	10	6	4	2.70	
		비율	9.3%	44.2%	23.3%	14.0%	9.3%	(1.124)	
	4명	빈도	30	68	30	19	12	2.47	
		비율	18.9%	42.8%	18.9%	11.9%	7.5%	(1.152)	

### 3.6 애견식품의 영양소와 성분 생각

(매우 그렇다=5, 그렇다=4, 보통이다=3, 그렇지 않다=2, 전혀 그렇지 않다=1)

‘애견식품 구입 시 영양소와 성분을 생각하여 구입한다.’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 <그림 IV-19>와 같다. 전체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는 53명인 22.7%, ‘그렇다’는 83명인 35.6%, ‘보통이다’는 54명인 23.2%, ‘그렇지 않다’는 31명인 13.3%, ‘전혀 그렇지 않다’는 12명인 5.2%로 나타났다.

<그림IV-19> 애견식품의 영양소와 성분 생각



견주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 결과는 다음 <표IV-32>와 같다.

여성이 3.57%, 남성이 3.58%로 남성과 여성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고, 연령대는 10대 3.00%, 20대 3.47%, 30대 3.87%, 40대 이상은 4.10%로 40대 이상이 높게 나타났고, 유의확률이  $p=0.028$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족 구성원은 1명은 4.78%, 2명은 3.68%, 3명은 3.42%, 4명 이상은 3.53%로 1명이 높게 나타났고, 유의확률이  $p=0.009$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 결과는 가족 구성원 수가 1명일 경우와 40대 이상이 애견을 먹는 식품을 구매할 때마다 애견에 필요한 영양소와 성분 등이 잘 표시되어 있는 패키지를 보면서 구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핵가족화로 인한 현상으로 반려견을 가족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꼼꼼히 살펴보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IV-32> 건주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애견식품의 영양소와 성분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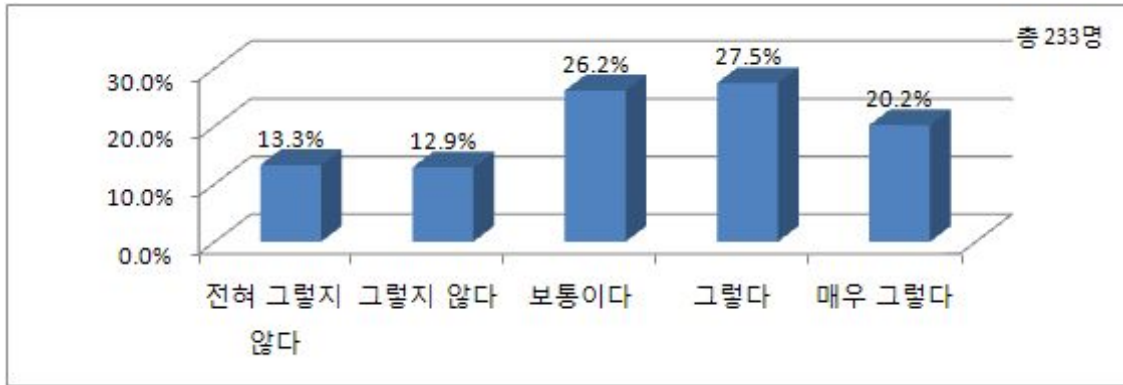
구분		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t/F
성별	여자	빈도	9	26	45	67	43	3.57	t=-0.040 p=0.968
		비율	4.7%	13.7%	23.7%	35.3%	22.6%	(1.123)	
	남자	빈도	3	5	9	16	10	3.58	p=0.968
		비율	7.0%	11.6%	20.9%	37.2%	23.3%	(1.180)	
나이	10대	빈도	0	1	2	1	0	3.00	F=3.077 p=0.028
		비율	0.0%	25.0%	50.0%	25.0%	0.0%	(0.816)	
	20대	빈도	11	24	45	64	33	3.47	
		비율	6.2%	13.6%	25.4%	36.2%	18.6%	(1.128)	
	30대	빈도	1	3	6	10	11	3.87	
		비율	3.2%	9.7%	19.4%	32.3%	35.5%	(1.118)	
	40대	빈도	0	3	1	8	9	4.10	
		비율	0.0%	14.3%	4.8%	38.1%	42.9%	(1.044)	
가족 수	1명	빈도	0	0	0	2	7	4.78	F=3.942 p=0.009
		비율	0.0%	0.0%	0.0%	22.2%	77.8%	(0.441)	
	2명	빈도	0	5	5	4	8	3.68	
		비율	0.0%	22.7%	22.7%	18.2%	36.4%	(1.211)	
	3명	빈도	4	5	9	19	6	3.42	
		비율	9.3%	11.6%	20.9%	44.2%	14.0%	(1.159)	
	4명	빈도	8	21	40	58	32	3.53	
		비율	5.0%	13.2%	25.2%	36.5%	20.1%	(1.107)	

### 3.7 애견식품의 안전성(특허 및 인증마크) 확인

(매우 그렇다=5, 그렇다=4, 보통이다=3, 그렇지 않다=2, 전혀 그렇지 않다=1)

‘애견식품 구입 시 안전성(특허 및 인증마크)을 확인하는 편이다.’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 <그림IV-20>과 같다. 전체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는 47명인 20.2%, ‘그렇다’는 64명인 27.5%, ‘보통이다’는 61명인 26.2%, ‘그렇지 않다’는 30명인 12.9%, ‘전혀 그렇지 않다’는 31명인 13.3%로 나타났다.

<그림IV-20> 애견식품의 안전성(특허 및 인증마크) 확인



견주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 결과는 다음 <표IV-33>와 같다.

여성이 3.32%, 남성이 3.12%로 여성이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연령대는 10대 3.25%, 20대 3.11%, 30대 4.06%, 40대 이상은 3.57%로 30대가 높게 나타났고, 유의확률이  $p=0.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가족 구성원은 1명은 4.00%, 2명은 3.23%, 3명은 3.23%, 4명 이상은 3.26%로 1명이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사람 이상으로 반려견의 건강을 위하여 안정성을 고려하고 확인하며 신중히 구매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가족 구성원이 1명인 경우 평균 값이 높게 나타난 것은 건강의 불안한 요소와 함께 외롭고 소외감에 정서적으로 반려견에게 의지하고 사람이상의 존재감을 느끼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표IV-33> 견주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애견식품의 안전성 확인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t/F
성별	여자	빈도	24	24	50	51	41	3.32	t=0.938 p=0.349
		비율	12.6%	12.6%	26.3%	26.8%	21.6%	(1.292)	
	남자	빈도	7	6	11	13	6	3.12	F=5.448 p=0.001
		비율	16.3%	14.0%	25.6%	30.2%	14.0%	(1.295)	
나이	10대	빈도	0	0	3	1	0	3.25	F=5.448 p=0.001
		비율	0.0%	0.0%	75.0%	25.0%	0.0%	(0.500)	
	20대	빈도	29	26	48	44	30	3.11	F=5.448 p=0.001
		비율	16.4%	14.7%	27.1%	24.9%	16.9%	(1.314)	
	30대	빈도	1	2	5	9	14	4.06	F=5.448 p=0.001
		비율	3.2%	6.5%	16.1%	29.0%	45.2%	(1.093)	
	40대	빈도	1	2	5	10	3	3.57	F=5.448 p=0.001
	이상	비율	4.8%	9.5%	23.8%	47.6%	14.3%	(1.028)	
가족 수	1명	빈도	0	1	1	4	3	4.00	F=0.970 p=0.408
		비율	0.0%	11.1%	11.1%	44.4%	33.3%	(1.000)	
	2명	빈도	4	3	5	4	6	3.23	F=0.970 p=0.408
		비율	18.2%	13.6%	22.7%	18.2%	27.3%	(1.478)	
	3명	빈도	8	3	11	13	8	3.23	F=0.970 p=0.408
		비율	18.6%	7.0%	25.6%	30.2%	18.6%	(1.360)	
	4명	빈도	19	23	44	43	30	3.26	F=0.970 p=0.408
	이상	비율	11.9%	14.5%	27.7%	27.0%	18.9%	(1.2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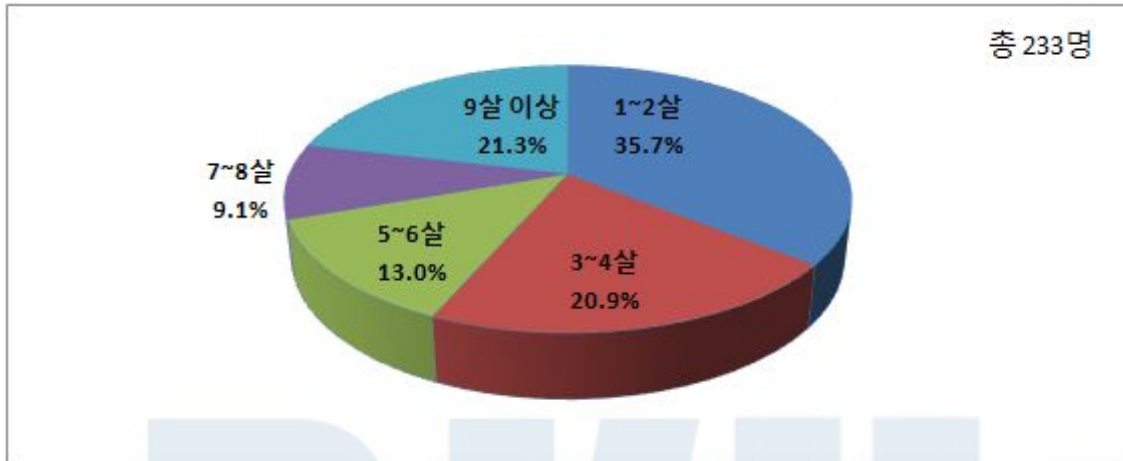
#### 4. 응답자의 반려견의 특성

응답자의 반려견의 특성은 다음 <표IV-34>과 같다.

반려견의 나이를 보면 '1~2살'은 35.7%, '3~4살'은 20.9%, '5~6살'은 13.0%, '7~8살'은 9.1%, '9살 이상'은 21.3%로 나타났다<그림IV-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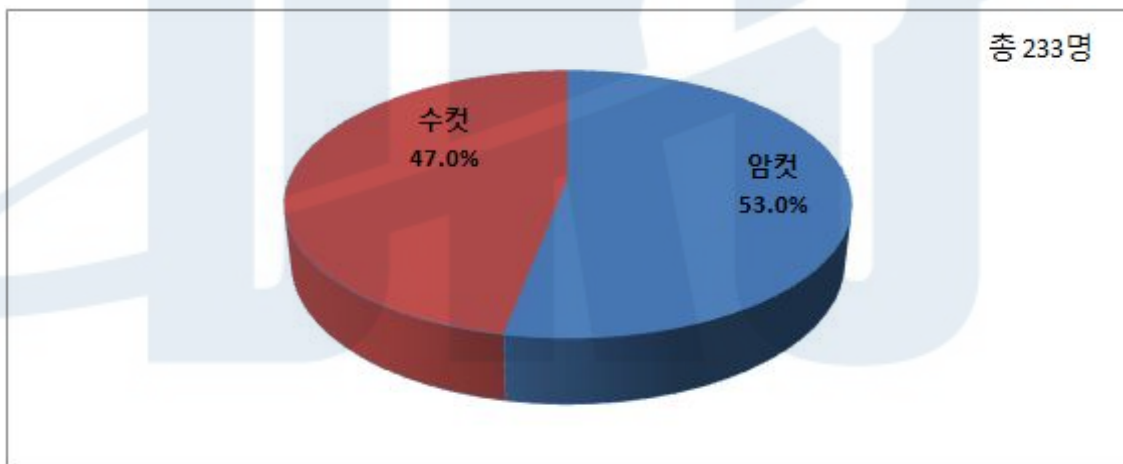


<그림IV-21> 연구대상 반려견의 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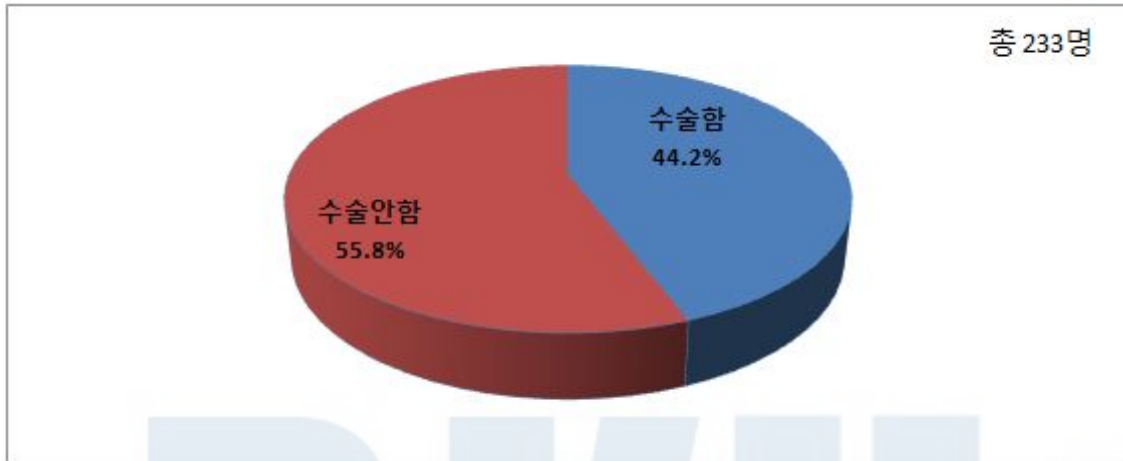
반려견의 성별로는 암컷이 53.0%, 수컷이 47.0%로 나타났다<그림IV-22>.

<그림IV-22> 응답자의 반려견의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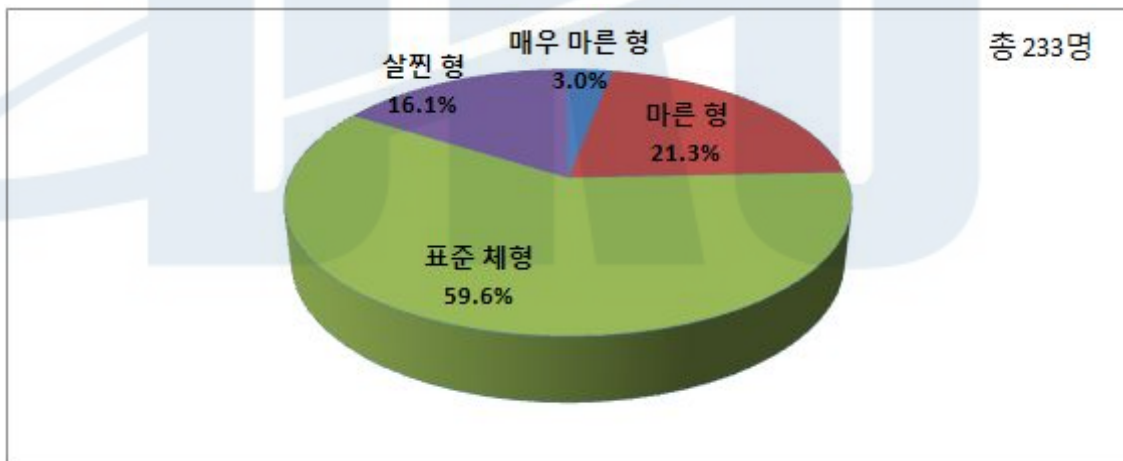
중성화수술 여부로는 수술을 한 반려견이 108마리인 44.2%, 수술을 안 한 반려견이 122마리인 55.8%로 나타났다 <그림IV-23>. 중성화 수술로 인한 암컷은 Asano와Asano (2002)는 호르몬 밸런스의 불균형, 운동량의 감소 등의 원인으로 정상견 보다 비만이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중성화 수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림IV-23> 응답자의 반려건의 중성화수술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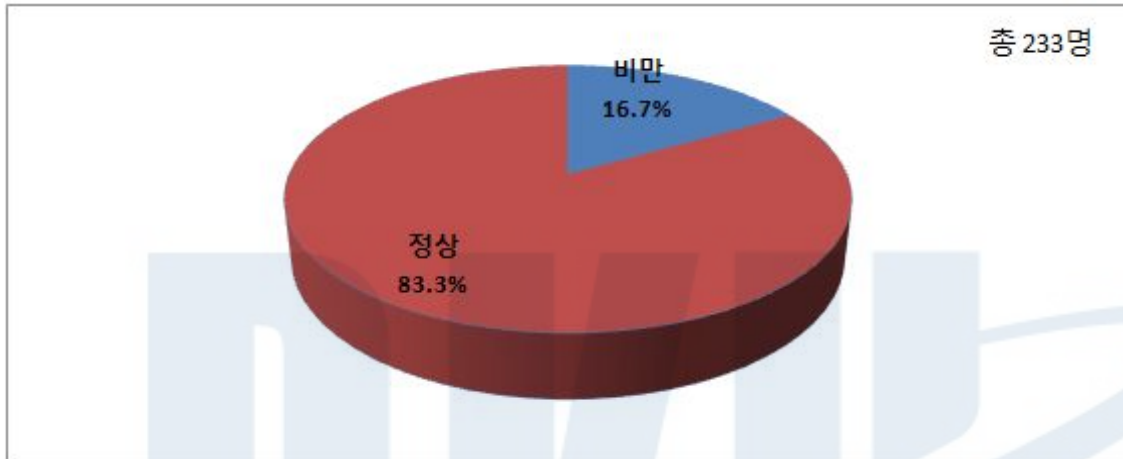
반려건의 체형을 살펴보면 매우 마른 형이 7마리 3.0%, 마른 형이 49마리 21.3%, 표준 체형이 13마리 59.6%, 살찐 형이 37마리 16.1%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살찐 형의 16.1%의 비만견이 될 가능성을 견주는 인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그림IV-24>.

<그림IV-24> 응답자의 반려건의 체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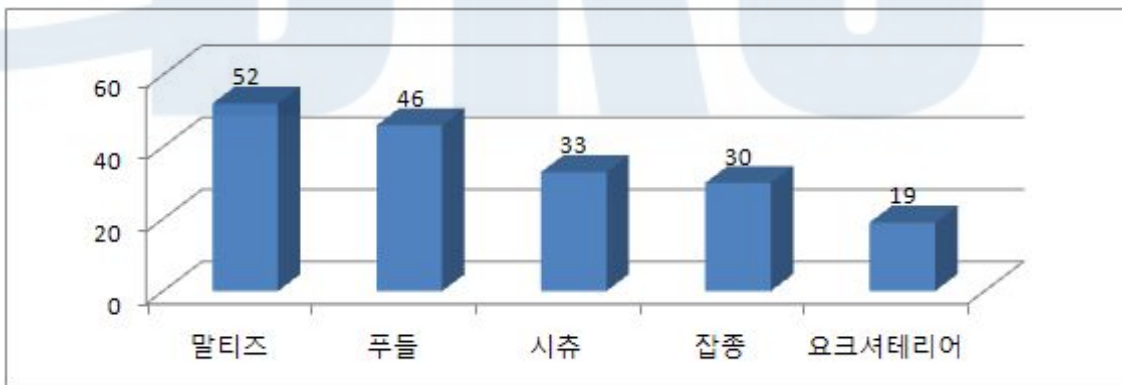
반려견의 비만여부로는 비만이 39마리의 16.7%, 정상이 194마리 83.3%를 보였다<그림IV-25>.

<그림IV-25> 응답자의 반려견의 비만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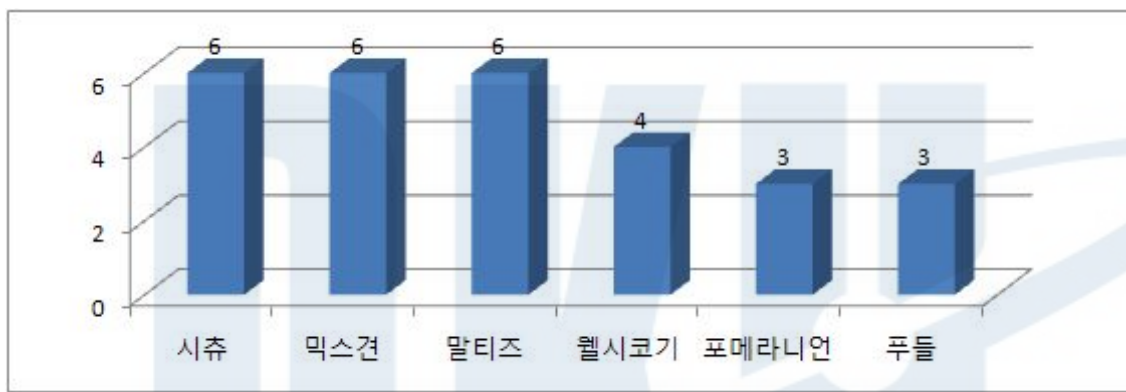
반려견의 견종으로는 말티즈가 53명 21.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푸들 46명 18.3%, 시츄 33명 13.1%, 믹스견 30명 12.0%, 요크셔테리어 19명 7.6%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IV-26>.이 결과는 말티즈, 푸들, 시츄 등의 순으로 키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IV-26> 응답자의 반려견의 견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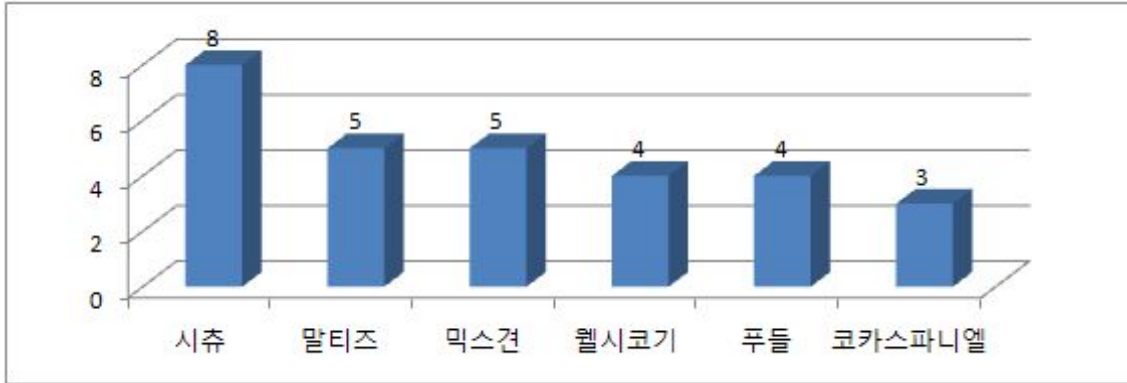
비만견들의 견종을 보면 시츄와 말티즈, 믹스견이 비만견 중 6마리 15.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웰시코기 4마리 10.3%, 포메라니언 3마리 7.7%, 푸들 3마리 7.5%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IV-27>. Margaret,G 등(2005)은 비만은 유전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고, 정승영(2011)은 주둥이가 짧은 단두종과 비만이 되기 쉬운 견종들을 견주들은 충분한 관리와 인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IV-27> 비만견의 견종



체형이 살찐 형인 반려견의 견종을 보면 시츄가 살찐 형의 반려견 중 8마리 20.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말티즈 5마리 12.5%, 믹스견 5마리 12.5%, 웰시코기 4마리 10.0%, 푸들 4마리 10.0%, 코카스파니엘 3마리 7.5%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IV-28>. 이 결과는 살찐 형의 반려견은 충분히 비만견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평상시의 주의 깊은 관심과 건강관리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림 IV-28> 체형이 살찐 형인 반려견의 견종



<표 IV-34> 응답자의 반려견의 특성

항목	세부사항	빈도	백분율
반려견의 나이	1~2살	82	35.7%
	3~4살	48	20.9%
	5~6살	30	13.0%
	7~8살	21	9.1%
	9살 이상	49	21.3%
반려견의 성별	암컷	122	53.0%
	수컷	108	47.0%
중성화수술여부	수술함	102	44.2%
	수술안함	129	55.8%
반려견의 체형	매우 마른 형	7	3.0%
	마른 형	49	21.3%
	표준 체형	137	59.6%
	살찐 형	37	16.1%
비만여부	비만	39	16.7%
	정상	194	83.3%

무응답으로 인해 문항에 따라 사례수에 차이가 있음.

<표IV-35> 응답자의 반려견의 견종

견종	빈도	퍼센트
말티즈	52	20.7%
푸들	46	18.3%
시츄	33	13.1%
믹스견	30	12.0%
요크셔테리어	19	7.6%
포메라니언	9	3.6%
토이푸들	7	2.8%
슈나우저	6	2.4%
웰시코기	6	2.4%
코카스파니엘	6	2.4%
미니핀	5	2.0%
스피츠	5	2.0%
치와와	5	2.0%
보더콜리	4	1.6%
페키니즈	4	1.6%
진돗개	3	1.2%
닥스훈트	2	0.8%
기타	골든 리트리버, 비글, 비숃 프리제, 사모예스, 시베리안 허스키, 아메리칸 스탠포드셔 테리어, 투견용 도사견, 페그	

<표IV-36> 응답자의 비만견의 견종

견종	빈도	퍼센트
시츄	6	15.4%
믹스견	6	15.4%
말티즈	6	15.4%
웰시코기	4	10.3%
포메라니언	3	7.7%
푸들	3	7.7%
미니핀	2	5.1%
요크셔테리어	2	5.1%
코카스파니엘	2	5.1%
기타	보더콜리, 슈나우저, 스피츠, 페키니즈	

<표IV-37> 응답자의 반려견의 살찐 체형의 견종

견종	빈도	퍼센트
시츄	8	20.0%
말티즈	5	12.5%
잡종	5	12.5%
웰시코기	4	10.0%
푸들	4	10.0%
코카스파니엘	3	7.5%
미니핀	2	5.0%
요크셔테리어	2	5.0%
기타	슈нау저, 시베리안 허스키, 페키니즈, 포메라니언, 스피츠	

## 5. 비만견에 대한 경험사례

자신의 반려견이 비만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만견에 대한 경험사례 빈도분석결과는 <표IV-38>과 같다.

“나의 애완견의 비만을 방치한 적이 있다.”라는 질문에 자신의 반려견이 현재 비만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 중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그렇다’는 21명인 53.8%, ‘그렇지 않다’는 18명인 46.2%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반려견의 과체중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제 2의 또 다른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으며 장기간에 걸쳐 에너지 소비량에 비해 과다하게 영양소를 섭취할 경우, 에너지 불균형에 의해 Asano와 Asano(2002)는 비만이 된다. 42.2%의 18명은 비만이 질병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반려견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견주 자신의 반려견이 비만이라는 질병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된다.

“나의 애완견이 비만으로 인해 죽음을 당한 적이 있다.”라는 질문에 자신의 반려견이 현재 비만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 중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모두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나의 애완견이 비만으로 인해 합병증을 유발한 적이 있다.”라는 질문에 자신의 반려견이 현재 비만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 중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그렇다’는



4명인 10.3%, '그렇지 않다'는 35명인 89.7%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일반 정상견들 보다 합병증 및 질병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주미옥 (2007)은 동물비만을 연구하고 있는 엘라인 펜들버리(Elaine Pendlebury)는 비만인 개들은 관절염과 당뇨병에 걸리기 쉬워 그렇지 않은 개보다 평균적으로 2년 빨리 죽는다는 보고서와 비만은 다리와 허리의 관절에 상당한 무리와 부담감을 주고 내장질환과 피부질환 등의 여러 가지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으며, Kusumo M (2003)은 노화를 촉진시키는 원인이 되고, Ono.k등(1996)은 유전적인 비만, 운동부족 등의 환경요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견주들은 합병증의 심각성과 비만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나의 애완견은 비만치료를 위해 다이어트 사료를 구입한 적이 있다.”라는 질문에 자신의 반려견이 현재 비만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 중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그렇다'는 23명인 59.0%, '그렇지 않다'는 16명인 41.0%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비만치료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나의 애완견이 비만으로 인해 병원 상담 및 처방을 받은 적이 있다.”라는 질문에 자신의 반려견이 현재 비만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 중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그렇다'는 10명인 25.6%, '그렇지 않다'는 29명인 74.4%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상담 및 처방 받기 전까지 견주 자신의 반려견이 비만견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비만을 방치하고, 비만의 위험성의 인식 수준이 낮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나의 애완견이 비만으로 인해 견주의 생활에 불편함을 유발한 적이 있다.”라는 질문에 자신의 반려견이 현재 비만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 중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그렇다'는 7명인 15.8%, '그렇지 않다'는 32명인 84.2%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보면 함께 공생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나 생활하는데 지장이 되는 일이 발생함으로써 반려견과의 트러블과 스트레스도 발생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표IV-38> 비만견에 대한 경험사례 결과

문 항	응 답	
	그렇다.	그렇지 않다.
1. 나의 애완견의 비만을 방치한 적이 있다.	21 53.8%	18 46.2%
2. 나의 애완견이 비만으로 인해 죽음을 당한 적이 있다.	0 0.0%	39 100.0%
3. 나의 애완견이 비만으로 인해 합병증을 유발한 적이 있다.	4 10.3%	35 89.7%
4. 나의 애완견은 비만치료를 위해 다이어트 사료를 구입한 적이 있다.	23 59.0%	16 41.0%
5. 나의 애완견이 비만으로 인해 병원 상담 및 처방을 받은 적이 있다.	10 25.6%	29 74.4%
6. 나의 애완견이 비만으로 인해 견주의 생활에 불편함을 유발한 적이 있다.	7 15.8%	32 8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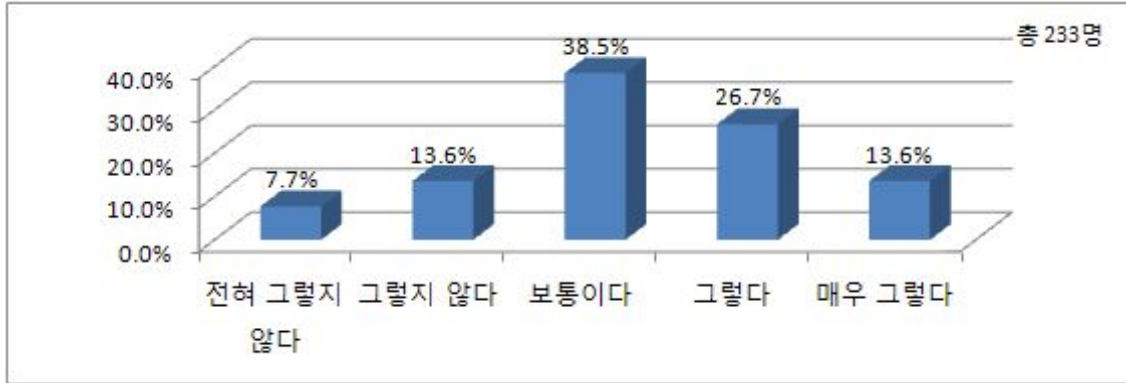
## 6. 반려견의 비만인지

### 6.1 반려견 비만의 위험성 인지

(매우 그렇다=5, 그렇다=4, 보통이다=3, 그렇지 않다=2, 전혀 그렇지 않다=1)

‘귀하께서는 반려견 비만의 위험성을 많이 알고 계십니까?’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 <그림IV-29>과 같다. 전체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는 30명인 13.6%, ‘그렇다’는 59명인 26.7%, ‘보통이다’는 85명인 38.5%, ‘그렇지 않다’는 30명인 13.6%, ‘전혀 그렇지 않다’는 17명인 7.7%로 나타났다.

<그림IV-29> 반려견 비만의 위험성 인지



견주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 결과는 다음 <표IV-39>과 같다.

여성이 3.29%, 남성이 3.08%로 여성이 높게 나타났고, 연령대는 10대 2.33%, 20대 3.18%, 30대 3.35%, 40대 이상은 3.80%로 40대 이상이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확률  $p=0.042$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족 구성원은 1명은 3.78%, 2명은 3.55%, 3명은 3.00%, 4명 이상은 3.24%로 1명이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를 보면 상대적으로 여성이 비만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고, 40대 이상이 비만의 위험성을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이 또한 반려견을 돌보는 역할에 있어서 시간적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사료되고, 가족 구성원이 적을수록 반려견의 건강에 더욱 신경쓰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IV-39> 견주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반려견 비만의 위험성 인지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t/F
성별	여자	빈도 14 비율 7.7%	22 12.2%	69 38.1%	50 27.6%	26 14.4%	3.29 (1.098)	t=1.111 p=0.268
	남자	빈도 3 비율 7.5%	8 20.0%	16 40.0%	9 22.5%	4 10.0%	3.08 (1.071)	
나이	10대	빈도 1 비율 33.3%	0 0.0%	2 66.7%	0 0.0%	0 0.0%	2.33 (1.155)	F=2.778 p=0.042
	20대	빈도 12 비율 7.2%	26 15.6%	67 40.1%	44 26.3%	18 10.8%	3.18 (1.055)	
	30대	빈도 3 비율 9.7%	2 6.5%	12 38.7%	9 29.0%	5 16.1%	3.35 (1.142)	
	40대	빈도 1 비율 5.0%	2 10.0%	4 20.0%	6 30.0%	7 35.0%	3.80 (1.196)	
	이상	빈도 1 비율 11.1%	0 0.0%	3 33.3%	1 11.1%	4 44.4%	3.78 (1.394)	
	가족 수	1명	빈도 2 비율 10.0%	0 0.0%	6 30.0%	9 45.0%	3 15.0%	
2명	빈도 6 비율 15.0%	6 15.0%	15 37.5%	8 20.0%	5 12.5%	3.00 (1.219)		
3명	빈도 8 비율 5.3%	24 15.8%	61 40.1%	41 27.0%	18 11.8%	3.24 (1.029)		
4명 이상	빈도	비율						

반려견의 특성에 따른 차이 결과는 다음 <표IV-40>과 같다.

‘3~4살’이 3.3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9살 이상’ 3.35%, ‘5~6살’ 3.34%, ‘7~8살’ 3.30%, ‘3.05%의 순으로 나타났고, 암컷’이 3.29%로 ‘수컷’ 3.22%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중성화수술을 한 반려견’이 3.36%로 ‘중성화수술을 하지 않은 반려견’ 3.17%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살찐형’이 3.7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비만형’ 3.47%, ‘표준 체형’ 3.26%, ‘마른형’ 3.07%, ‘매우 마른형’ 2.71%의 순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IV-40> 반려견의 특성에 따른 반려견 비만의 위험성 인지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t/F
1~2살	빈도	7	15	28	15	9	3.05	
	비율	9.5%	20.3%	37.8%	20.3%	12.2%	(1.133)	
3~4살	빈도	4	6	12	18	7	3.38	
	비율	8.5%	12.8%	25.5%	38.3%	14.9%	(1.153)	
나이	5~6살	빈도	2	2	14	6	3.34	F=0.949
	비율	6.9%	6.9%	48.3%	20.7%	17.2%	(1.078)	p=0.436
7~8살	빈도	0	4	7	8	1	3.30	
	비율	.0%	20.0%	35.0%	40.0%	5.0%	(0.865)	
9살 이상	빈도	3	3	24	10	8	3.35	
	비율	6.3%	6.3%	50.0%	20.8%	16.7%	(1.041)	
성별	암컷	빈도	9	13	46	33	3.29	t=0.491
	비율	7.7%	11.1%	39.3%	28.2%	13.7%	(1.083)	p=0.624
수컷	빈도	7	17	38	25	14	3.22	
	비율	6.9%	16.8%	37.6%	24.8%	13.9%	(1.101)	
중성화 수술 여부	수술함	빈도	8	7	36	32	3.36	t=-1.311
	비율	8.3%	7.3%	37.5%	33.3%	13.5%	(1.077)	p=0.191
수술 안함	빈도	8	23	49	26	17	3.17	
	비율	6.5%	18.7%	39.8%	21.1%	13.8%	(1.092)	
매우 마른형	빈도	1	2	2	2	0	2.71	
	비율	14.3%	28.6%	28.6%	28.6%	.0%	(1.113)	
마른형	빈도	5	5	20	12	3	3.07	
	비율	11.1%	11.1%	44.4%	26.7%	6.7%	(1.053)	
표준 체형	빈도	8	20	44	32	18	3.26	F=1.481
	비율	6.6%	16.4%	36.1%	26.2%	14.8%	(1.104)	p=0.209
살찐형	빈도	0	1	2	2	2	3.71	
	비율	.0%	14.3%	28.6%	28.6%	28.6%	(1.113)	
비만형	빈도	2	2	17	10	7	3.47	
	비율	5.3%	5.3%	44.7%	26.3%	18.4%	(1.0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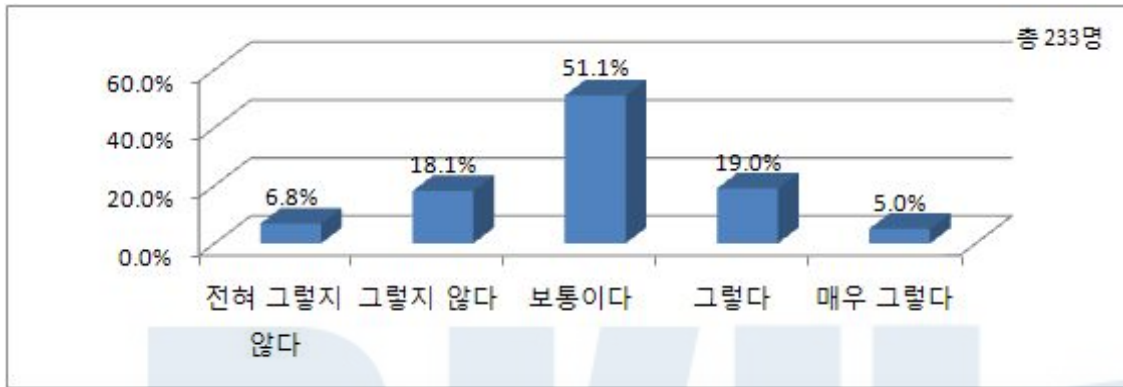
## 6.2 반려견 비만의 대응방안 인지

(매우 그렇다=5, 그렇다=4, 보통이다=3, 그렇지 않다=2, 전혀 그렇지 않다=1)

‘귀하께서는 반려견의 비만에 대하여 대응방안을 많이 알고 계십니까?’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 <그림IV-30>과 같다. 전체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는 11명인 5.0%, ‘그렇다’는 42명인 19.0%, ‘보통이다’는 113명인 51.1%, ‘그렇지 않다’는 40명인 18.1%,

‘전혀 그렇지 않다’는 15명인 6.8%로 나타났다.

<그림IV-30> 반려견 비만의 위험성 인지



견주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 결과는 다음 <표IV-41>과 같다.

여성이 3.00%, 남성이 2.85%로 여성이 높게 나타났고, 연령대는 10대 2.33%, 20대 2.95%, 30대 3.03%, 40대 이상은 3.15%로 40대 이상이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 구성원은 1명은 3.11%, 2명은 3.05%, 3명은 2.78%, 4명 이상은 3.01%로 1명이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보다 남성이 연령대는 나이가 적을수록 대응 방안의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된다.

<표IV-41> 견주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반려견 비만의 대응방안 인지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t/F			
성별	여자	빈도	11	29	99	33	9	3.00	t=0.839 p=0.405		
	비율	6.1%	16.0%	54.7%	18.2%	5.0%	(0.888)				
	남자	빈도	4	11	14	9	2	2.85	p=0.405		
	비율	10.0%	27.5%	35.0%	22.5%	5.0%	(1.051)				
나이	10대	빈도	1	0	2	0	0	2.33	F=0.801 p=0.494		
		비율	33.3%	0.0%	66.7%	0.0%	0.0%	(1.155)			
	20대	빈도	11	33	84	31	8	2.95			
		비율	6.6%	19.8%	50.3%	18.6%	4.8%	(0.917)			
	30대	빈도	2	5	16	6	2	3.03			
		비율	6.5%	16.1%	51.6%	19.4%	6.5%	(0.948)			
	40대	빈도	1	2	11	5	1	3.15			
		비율	5.0%	10.0%	55.0%	25.0%	5.0%	(0.875)			
	가족 수	1명	빈도	0	1	6	2	0		3.11	F=0.799 p=0.496
			비율	0.0%	11.1%	66.7%	22.2%	0.0%		(0.601)	
2명		빈도	2	3	9	4	2	3.05			
		비율	10.0%	15.0%	45.0%	20.0%	10.0%	(1.099)			
3명		빈도	4	9	19	8	0	2.78			
		비율	10.0%	22.5%	47.5%	20.0%	0.0%	(0.891)			
4명		빈도	9	27	79	28	9	3.01			
		비율	5.9%	17.8%	52.0%	18.4%	5.9%	(0.917)			

반려견의 특성에 따른 차이 결과는 다음 <표IV-42>과 같다.

‘3~4살이 3.2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9살 이상’ 3.04%, ‘7~8살’ 2.95%, ‘1~2살’ 2.86%, ‘5~6살’ 2.79%의 순으로 나타났고, ‘수컷’이 3.03%로 ‘암컷’ 2.9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중성화수술을 한 반려견’이 3.07%로 ‘중성화수술을 하지 않은 반려견’ 2.91%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체형에는 ‘비만형’이 3.2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살찐형’ 3.14%, ‘표준 체형’ 2.99%, ‘마른형’ 2.82%, ‘매우 마른형’ 2.43%의 순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IV-42> 반려견의 특성에 따른 반려견 비만의 대응방안 인지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t/F
1~2살	빈도	5	21	31	13	4	2.86	
	비율	6.8%	28.4%	41.9%	17.6%	5.4%	(0.970)	
3~4살	빈도	2	5	24	13	3	3.21	
	비율	4.3%	10.6%	51.1%	27.7%	6.4%	(0.883)	
나이	5~6살	빈도	3	3	20	3	2.79	F=1.433 p=0.224
	비율	10.3%	10.3%	69.0%	10.3%	.0%	(0.774)	
7~8살	빈도	1	5	9	4	1	2.95	
	비율	5.0%	25.0%	45.0%	20.0%	5.0%	(0.945)	
9살 이상	빈도	3	6	28	8	3	3.04	
	비율	6.3%	12.5%	58.3%	16.7%	6.3%	(1.898)	
성별	암컷	빈도	8	22	62	19	2.94	t=-0.719 p=0.473
	비율	6.8%	18.8%	53.0%	16.2%	5.1%	(0.912)	
수컷	빈도	6	18	49	23	5	3.03	
	비율	5.9%	17.8%	48.5%	22.8%	5.0%	(0.921)	
중성화 수술 여부	수술함	빈도	6	13	51	20	3.07	t=1.307 p=0.193
	비율	6.3%	13.5%	53.1%	20.8%	6.3%	(0.920)	
수술 안함	빈도	8	27	61	22	5	2.91	
	비율	6.5%	22.0%	49.6%	17.9%	4.1%	(0.905)	
매우 마른형	빈도	1	3	2	1	0	2.43	
	비율	14.3%	42.9%	28.6%	14.3%	.0%	(0.976)	
마른형	빈도	6	7	23	7	2	2.82	
	비율	13.3%	15.6%	51.1%	15.6%	4.4%	(1.007)	
표준 체형	빈도	6	25	62	22	7	2.99	F=1.658 p=0.161
	비율	4.9%	20.5%	50.8%	18.0%	5.7%	(0.904)	
살찐형	빈도	0	1	4	2	0	3.14	
	비율	.0%	14.3%	57.1%	28.6%	.0%	(0.690)	
비만형	빈도	1	4	21	10	2	3.21	
	비율	2.6%	10.5%	55.3%	26.3%	5.3%	(0.8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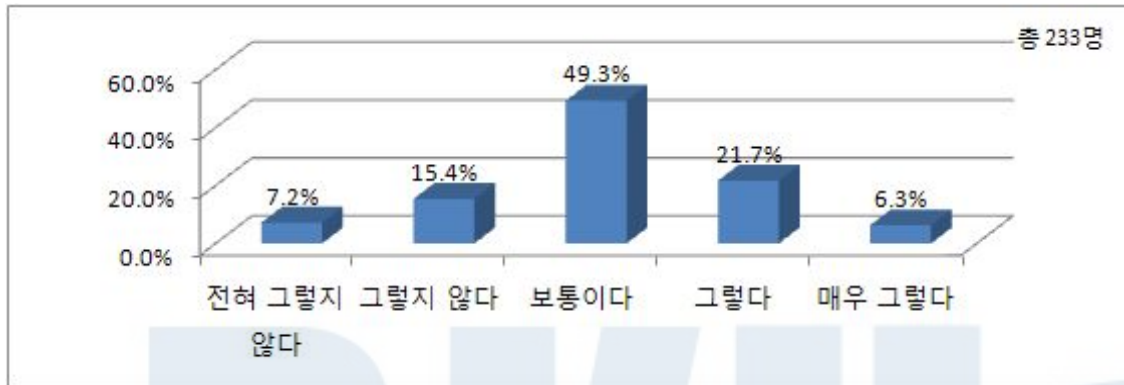
### 6.3 반려견 비만 예방책 인지

(매우 그렇다=5, 그렇다=4, 보통이다=3, 그렇지 않다=2, 전혀 그렇지 않다=1)

‘귀하께서는 반려견 비만 예방책에 대하여 많이 알고 계십니까?’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 <그림IV-31>과 같다. 전체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는 14명인 6.3%, ‘그렇다’는 48명인 21.7%, ‘보통이다’는 109명인 49.3%, ‘그렇지 않다’는 34명인 15.4%, ‘전혀

그렇지 않다'는 16명인 7.2%로 나타났다.

<그림IV-31> 반려견 비만 예방책 인지



견주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 결과는 다음 <표IV-43>과 같다.

여성이 3.08%, 남성이 2.90%로 여성이 높게 나타났고, 연령대는 10대는 2.33%, 20대 3.02%, 30대 3.06%, 40대 이상은 3.30%로 40대 이상이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 구성원은 1명은 3.22%, 2명은 3.20%, 3명은 2.85%, 4명 이상은 3.07%로 1명이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에서는 대부분 예방책을 알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요시다와 정(2009)은 반려견이 비만이 되지 않도록 건강관리와 평소 가족 모두가 주의 깊은 관심과 애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결과이다.

<표IV-43> 건주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반려견 비만의 예방책 인지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t/F
성별	여자	빈도 13 비율 7.2%	24 13.3%	92 50.8%	40 22.1%	12 6.6%	3.08 (0.951)	t=1.061 p=0.290
	남자	빈도 3 비율 7.5%	10 25.0%	17 42.5%	8 20.0%	2 5.0%	2.90 (0.982)	
나이	10대	빈도 1 비율 33.3%	0 0.0%	2 66.7%	0 0.0%	0 0.0%	2.33 (1.155)	F=1.058 p=0.368
	20대	빈도 13 비율 7.8%	26 15.6%	81 48.5%	38 22.8%	9 5.4%	3.02 (0.957)	
	30대	빈도 2 비율 6.5%	5 16.1%	16 51.6%	5 16.1%	3 9.7%	3.06 (0.998)	
	40대	빈도 0 비율 0.0%	3 15.0%	10 50.0%	5 25.0%	2 10.0%	3.30 (0.865)	
	이상	빈도 1 비율 11.1%	0 0.0%	5 55.6%	2 22.2%	1 11.1%	3.22 (1.093)	
	가족 수	1명	빈도 2 비율 10.0%	0 0.0%	12 60.0%	4 20.0%	2 10.0%	
2명	빈도 4 비율 10.0%	7 17.5%	21 52.5%	7 17.5%	1 2.5%	2.85 (0.921)		
3명	빈도 9 비율 5.9%	27 17.8%	71 46.7%	35 23.0%	10 6.6%	3.07 (0.954)		
4명 이상	빈도	비율						

반려견의 특성에 따른 차이 결과는 다음 <표IV-44>와 같다.

3~4살'이 3.2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9살 이상'3.17%, '7~8살'3.00%, '1~2살'2.97%, '5~6살'2.83%의 순으로 나타났고, '수컷'이 3.09%로 '암컷'3.0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중성화수술을 한 반려견'이 3.15%로 '중성화수술을 하지 않은 반려견'2.98%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체형에서는'비만형'이 3.1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살찐형'3.14%, '표준 체형'3.11%, '마른형' 2.89%, '매우 마른형 2.29%의 순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IV-44> 반려견의 특성에 따른 반려견 비만 예방책 인지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t/F	
1~2살	빈도	6	14	33	18	3	2.97		
	비율	8.1%	18.9%	44.6%	24.3%	4.1%	(0.965)		
3~4살	빈도	3	6	22	10	6	3.21		
	비율	6.4%	12.8%	46.8%	21.3%	12.8%	(1.041)		
나이	5~6살	빈도	2	4	20	3	2.83	F=1.057	
	비율	6.9%	13.8%	69.0%	10.3%	.0%	(0.711)	p=0.379	
7~8살	빈도	1	3	12	3	1	3.00		
	비율	5.0%	15.0%	60.0%	15.0%	5.0%	(0.858)		
9살 이상	빈도	3	7	21	13	4	3.17		
	비율	6.3%	14.6%	43.8%	27.1%	8.3%	(0.996)		
성별	암컷	빈도	9	19	57	24	8	3.03	t=-0.489
	비율	7.7%	16.2%	48.7%	20.5%	6.8%	(0.978)	p=0.625	
수컷	빈도	6	15	50	24	6	3.09		
	비율	5.9%	14.9%	49.5%	23.8%	5.9%	(0.928)		
중성화 수술 여부	수술함	빈도	7	12	46	22	9	3.15	t=1.253
	비율	7.3%	12.5%	47.9%	22.9%	9.4%	(1.005)	p=0.212	
수술 안함	빈도	8	22	62	26	5	2.98		
	비율	6.5%	17.9%	50.4%	21.1%	4.1%	(0.905)		
매우 마른형	빈도	2	2	2	1	0	2.29		
	비율	28.6%	28.6%	28.6%	14.3%	.0%	(1.113)		
마른형	빈도	5	7	23	8	2	2.89		
	비율	11.1%	15.6%	51.1%	17.8%	4.4%	(0.982)		
표준 체형	빈도	5	20	61	28	8	3.11	F=1.825	
	비율	4.1%	16.4%	50.0%	23.0%	6.6%	(0.902)	p=0.125	
살찐형	빈도	1	0	4	1	1	3.14		
	비율	14.3%	.0%	57.1%	14.3%	14.3%	(1.215)		
비만형	빈도	2	5	18	10	3	3.18		
	비율	5.3%	13.2%	47.4%	26.3%	7.9%	(0.9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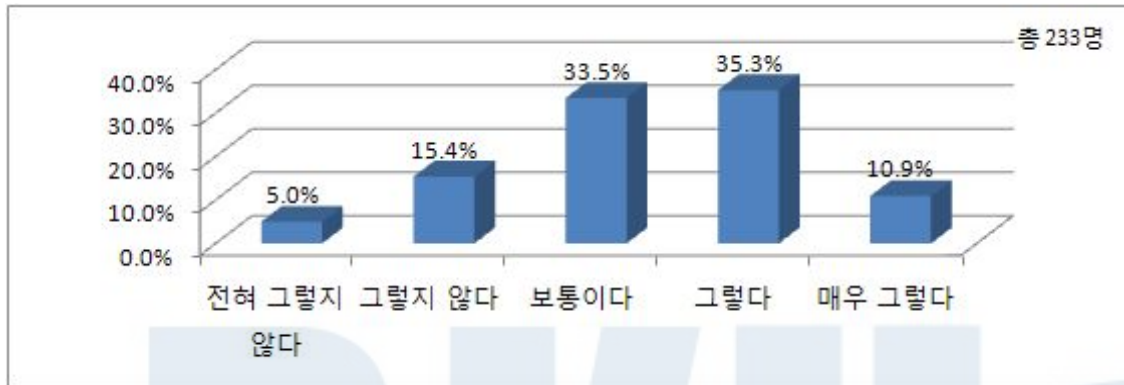
#### 6.4 반려견 비만원인 인지

(매우 그렇다=5, 그렇다=4, 보통이다=3, 그렇지 않다=2, 전혀 그렇지 않다=1)

‘귀하께서는 반려견 비만 원인에 대하여 많이 알고 계십니까?’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 <그림IV-32>와 같다. 전체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는 24명인 10.9%, ‘그렇다’는 78명인 35.3%, ‘보통이다’는 74명인 33.5%, ‘그렇지 않다’는 34명인 15.4%, ‘전혀 그렇

지 않다'는 11명인 5.0%로 나타났다.

<그림 IV-32> 반려견 비만원인 인지



견주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 결과는 다음 <표 IV-45>과 같다.

여성이 3.36%, 남성이 3.13%로 여성이 높게 나타났고, 연령대는 10대는 2.33%, 20대 3.34%, 30대 3.16%, 40대 이상은 3.55%로 40대 이상이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 구성원은 평균값이 1명은 3.89%, 2명은 3.20%, 3명은 2.88%, 4명 이상은 3.41%로 1명이 높게 나타났고, 유의확률이  $p=0.007$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 결과를 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연령대는 40대 이상이 비만원인에 대하여 인식도가 높았지만, 비만예방에 대한 인식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 구성원이 1명인 경우가 높게 나타난 것은 혼자 생활하는 사람일수록 반려견을 가족, 애인, 친구 등으로 정서적 교감으로 의지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반려견에 대한 애정과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표IV-45> 견주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반려견 비만원인 인지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t/F
성별	여자	빈도 7	25	63	68	18	3.36	t=1.313 p=0.190
	비율 3.9%	13.8%	34.8%	37.6%	9.9%	(0.971)		
	남자	빈도 4	9	11	10	6	3.13	p=0.190
	비율 10.0%	22.5%	27.5%	25.0%	15.0%	(1.223)		
나이	10대	빈도 1	0	2	0	0	2.33	F=1.542 p=0.205
		비율 33.3%	0.0%	66.7%	0.0%	0.0%	(1.155)	
	20대	빈도 8	28	51	60	20	3.34	
		비율 4.8%	16.8%	30.5%	35.9%	12.0%	(1.045)	
	30대	빈도 2	4	15	7	3	3.16	
		비율 6.5%	12.9%	48.4%	22.6%	9.7%	(1.003)	
	40대	빈도 0	2	6	11	1	3.55	
		비율 0.0%	10.0%	30.0%	55.0%	5.0%	(0.759)	
가족 수	1명	빈도 0	0	2	6	1	3.89	F=4.152 p=0.007
		비율 0.0%	0.0%	22.2%	66.7%	11.1%	(0.601)	
	2명	빈도 2	1	9	7	1	3.20	
		비율 10.0%	5.0%	45.0%	35.0%	5.0%	(1.005)	
	3명	빈도 2	11	17	10	0	2.88	
		비율 5.0%	27.5%	42.5%	25.0%	0.0%	(0.853)	
	4명	빈도 7	22	46	55	22	3.41	
		비율 4.6%	14.5%	30.3%	36.2%	14.5%	(1.051)	

반려견의 특성에 따른 차이 결과는 다음 <표IV-46>와 같다.

‘9살 이상’이 3.5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3~4살’3.36%, ‘5~6살’3.34%, ‘7~8살’3.25%, ‘1~2살’3.20%의 순으로 나타났고, ‘수컷’이 3.41%로 ‘암컷’3.26%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중성화수술을 한 반려견’이 3.42%로 ‘중성화수술을 하지 않은 반려견’3.26%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체형에서는 ‘비만형’이 3.8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살찐형’3.43%, ‘마른형’3.27%, ‘표준 체형’3.21%, ‘매우 마른형’3.00%의 순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 결과는 반려견이 나이가 많고, 비만견을 키우는 견주일수록 비만의 원인을 잘 알고 있었다. 이는 반대로 반려견을 키우면서 반려견의 식습관과 생활습관의 어느 일부분의 나쁜 영향으로 인해 비만견이 되었다 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비만에 대한 인식 차이를 볼 수 있는 부분이다.



<표IV-46> 반려견의 특성에 따른 반려견 비만원인 인지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t/F
1~2살	빈도	3	12	32	21	6	3.20	
	비율	4.1%	16.2%	43.2%	28.4%	8.1%	(0.951)	
3~4살	빈도	1	10	14	15	7	3.36	
	비율	2.1%	21.3%	29.8%	31.9%	14.9%	(1.051)	
나이	5~6살	빈도	2	3	9	13	3.34	F=0.666
	비율	6.9%	10.3%	31.0%	44.8%	6.9%	(1.010)	p=0.617
7~8살	빈도	2	3	4	10	1	3.25	
	비율	10.0%	15.0%	20.0%	50.0%	5.0%	(1.118)	
9살 이상	빈도	2	6	14	18	8	3.50	
	비율	4.2%	12.5%	29.2%	37.5%	16.7%	(1.052)	
성별	암컷	빈도	5	19	46	34	3.26	t=-1.021
	비율	4.3%	16.2%	39.3%	29.1%	11.1%	(1.003)	p=0.308
수컷	빈도	5	15	26	44	11	3.41	
	비율	5.0%	14.9%	25.7%	43.6%	10.9%	(1.031)	
중성화 수술 여부	수술함	빈도	5	12	28	40	3.42	t=1.134
	비율	5.2%	12.5%	29.2%	41.7%	11.5%	(1.023)	p=0.258
수술 안함	빈도	5	22	45	38	13	3.26	
	비율	4.1%	17.9%	36.6%	30.9%	10.6%	(1.007)	
매우 마른형	빈도	0	2	3	2	0	3.00	
	비율	.0%	28.6%	42.9%	28.6%	.0%	(0.816)	
마른형	빈도	3	7	15	15	5	3.27	
	비율	6.7%	15.6%	33.3%	33.3%	11.1%	(1.074)	
표준 체형	빈도	6	21	46	39	10	3.21	F=2.929
	비율	4.9%	17.2%	37.7%	32.0%	8.2%	(0.989)	p=0.022
살찐형	빈도	0	1	3	2	1	3.43	
	비율	.0%	14.3%	42.9%	28.6%	14.3%	(0.976)	
비만형	빈도	1	3	6	20	8	3.82	
	비율	2.6%	7.9%	15.8%	52.6%	21.1%	(0.955)	

## 6.5 반려견 비만치료의 필요성 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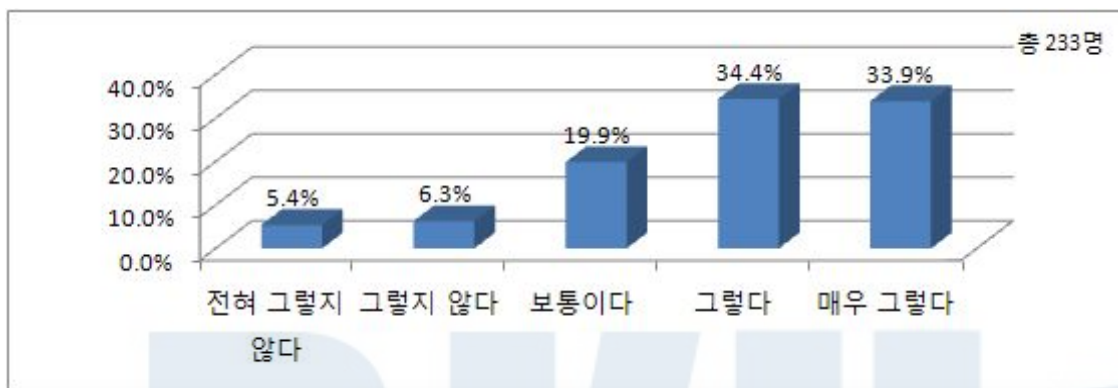
(매우 그렇다=5, 그렇다=4, 보통이다=3, 그렇지 않다=2, 전혀 그렇지 않다=1)

귀하께서는 반려견 비만치료의 필요성을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 <그림IV-33>와 같다. 전체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는 75명인 33.9%, ‘그렇다’는 76명인 34.4%, ‘보통이다’는 44명인 19.9%, ‘그렇지 않다’는 14명인



6.3%, '전혀 그렇지 않다'는 12명인 5.4%로 나타났다.

<그림IV-33> 반려견 비만치료의 필요성 인지



견주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 결과는 다음 <표IV-47>과 같다.

여성이 3.92%, 남성이 3.53%로 여성이 높게 나타났고, 유의확률이  $p=0.043$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대는 10대는 2.33%, 20대 3.82%, 30대 3.74%, 40대 이상은 4.50%로 40대 이상이 높게 나타났고, 유의확률이  $p=0.00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견주의 가족 수에 대한 응답 차이를 살펴보면, 평균값이 1명은 4.44%, 2명은 3.45%, 3명은 3.50%, 4명 이상은 3.96%로 1명이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비만치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반려견을 돌보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추측되며, 40대 이상의 연령층이 비만치료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 구성원이 낮을수록 반려견에게 의지하는 존재감이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비만의 치료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IV-47> 견주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반려견 비만치료의 필요성 인지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t/F
성별	여자	빈도 9	9	34	64	65	3.92	t=2.039 p=0.043
	비율 5.0%	5.0%	18.8%	35.4%	35.9%	(1.093)		
	남자	빈도 3	5	10	12	10	3.53	p=0.043
	비율 7.5%	12.5%	25.0%	30.0%	25.0%	(1.219)		
나이	10대	빈도 1	0	2	0	0	2.33	F=4.375 p=0.005
	비율 33.3%	0.0%	66.7%	0.0%	0.0%	(1.155)		
	20대	빈도 7	14	33	61	52	3.82	
	비율 4.2%	8.4%	19.8%	36.5%	31.1%	(1.094)		
	30대	빈도 4	0	8	7	12	3.74	
	비율 12.9%	0.0%	25.8%	22.6%	38.7%	(1.341)		
	40대	빈도 0	0	1	8	11	4.50	
	비율 0.0%	0.0%	5.0%	40.0%	55.0%	(0.607)		
가족 수	1명	빈도 1	0	0	1	7	4.44	F=2.567 p=0.055
	비율 11.1%	0.0%	0.0%	11.1%	77.8%	(1.333)		
	2명	빈도 3	1	5	6	5	3.45	
	비율 15.0%	5.0%	25.0%	30.0%	25.0%	(1.356)		
	3명	빈도 4	5	11	7	13	3.50	
	비율 10.0%	12.5%	27.5%	17.5%	32.5%	(1.340)		
	4명	빈도 4	8	28	62	50	3.96	
	비율 2.6%	5.3%	18.4%	40.8%	32.9%	(0.983)		

반려견의 특성에 따른 차이 결과는 다음 <표IV-48>와 같다.

‘5~6살’과‘7~8살’이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3~4살’ 3.94%,‘1~2살’ 3.80%, ‘9살 이상’3.79%의 순으로 나타났고,‘암컷’이 3.94%로‘수컷’3.8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중성화수술을 한 반려견’이 3.92%로 ‘중성화수술을 하지 않은 반려견’3.85%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체형으로는‘비만형’이 3.9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표준 체형’3.93%,‘살찐형’3.86%,‘마른형’3.69%,‘매우 마른형’3.57%의 순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IV-48> 반려건의 특성에 따른 반려건 비만치료의 필요성 인지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t/F
1~2살	빈도	3	4	17	31	19	3.80	
	비율	4.1%	5.4%	23.0%	41.9%	25.7%	(1.020)	
3~4살	빈도	2	3	7	19	16	3.94	
	비율	4.3%	6.4%	14.9%	40.4%	34.0%	(1.071)	
5~6살	빈도	2	0	7	7	13	4.00	F=0.354
	비율	6.9%	.0%	24.1%	24.1%	44.8%	(1.165)	p=0.841
7~8살	빈도	1	2	1	8	8	4.00	
	비율	5.0%	10.0%	5.0%	40.0%	40.0%	(1.170)	
9살 이상	빈도	2	5	12	11	18	3.79	
	비율	4.2%	10.4%	25.0%	22.9%	37.5%	(1.184)	
암컷	빈도	6	8	21	34	48	3.94	t=0.926
	비율	5.1%	6.8%	17.9%	29.1%	41.0%	(1.154)	p=0.355
수컷	빈도	4	6	23	41	27	3.80	
	비율	4.0%	5.9%	22.8%	40.6%	26.7%	(1.030)	
중성화 수술 여부	빈도	6	4	15	38	33	3.92	t=0.476
	비율	6.3%	4.2%	15.6%	39.6%	34.4%	(1.111)	p=0.635
수술 안함	빈도	4	10	29	38	42	3.85	
	비율	3.3%	8.1%	23.6%	30.9%	34.1%	(1.087)	
매우 마른형	빈도	1	0	2	2	2	3.57	
	비율	14.3%	.0%	28.6%	28.6%	28.6%	(1.397)	
마른형	빈도	3	3	13	12	14	3.69	
	비율	6.7%	6.7%	28.9%	26.7%	31.1%	(1.184)	
표준 체형	빈도	4	10	20	44	44	3.93	F=0.622
	비율	3.3%	8.2%	16.4%	36.1%	36.1%	(1.074)	p=0.647
살찐형	빈도	0	0	3	2	2	3.86	
	비율	.0%	.0%	42.9%	28.6%	28.6%	(0.900)	
비만형	빈도	2	1	6	16	13	3.97	
	비율	5.3%	2.6%	15.8%	42.1%	34.2%	(1.052)	

## 7. 반려건의 특성에 따른 비만여부와 반려건의 체형

### 7.1 반려건의 특성에 따른 반려건의 비만여부

반려건의 특성에 따른 반려건의 비만여부의 교차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IV-49>. 반려건의 나이는 7~8살의 비만비율이 28.6%로 가장 높았고 '1~2살'의 비율이 8.5%로 가

장 낮았다. 유의확률(p=0.045)이 유의수준 0.05보다 작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반려견의 비만여부는 나이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암컷’과‘수컷’의 비만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유의확률(p=0.512)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반려견의 비만여부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중성화수술을 한 반려견’의 비만비율이 25.5%로‘중성화수술을 하지 않은 반려견’의 비율 10.1%보다 높았다. 유의확률(p=0.002)이 유의수준 0.05보다 작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반려견의 비만여부는 중성화수술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이 결과는 나이가 들수록 즉, 이와 정(2005)은 7~9세의 노령견이 될수록 비만에 걸리기 쉽고, 중성화 수술을 한 후에는 식욕증가와 호르몬의 변화로 인한 활동량 감소로 비만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견주들의 충분한 인지와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표IV-49> 반려견의 특성에 따른 반려견의 비만여부

구분		비만	정상	Pearson $\chi^2$ 값	
나이	1~2살	빈도 비율	7 8.5%	75 91.5%	$\chi^2=9.719$ p=0.045
	3~4살	빈도 비율	7 14.6%	41 85.4%	
	5~6살	빈도 비율	6 20.0%	24 80.0%	
	7~8살	빈도 비율	6 28.6%	15 71.4%	
	9살	빈도	13	36	
	이상	비율	26.5%	73.5%	
성별	암컷	빈도 비율	22 18.0%	100 82.0%	$\chi^2=0.430$ p=0.512
	수컷	빈도 비율	16 14.8%	92 85.2%	
중성화 수술 여부	수술함	빈도 비율	26 25.5%	76 74.5%	$\chi^2=9.643$ p=0.002
	수술 안함	빈도 비율	13 10.1%	116 89.9%	

## 7.2 반려견의 특성에 따른 반려견의 체형

반려견의 특성에 따른 반려견의 체형의 교차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IV-50>. 나이는 7~8살의 살찐형과 비만형 비율이 33.4%로 가장 높았고, '1~2살'의 비율이 10.9%로 가장 낮았다. 유의확률(p=0.044)이 유의수준 0.05보다 작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반려견의 체형은 나이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성별은 '암컷'과 '수컷'의 비만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유의확률(p=0.137)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반려견의 체형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중성화 수술 여부는 '중성화수술을 한 반려견'의 살찐형과 비만형 비율이 29.4%로 '중성화수술을 하지 않은 반려견'의 비율 14.2%보다 높았다. 유의확률(p=0.024)이 유의수준 0.05보다 작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반려견의 체형은 중성화수술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이 결과는 중성화 수술은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호르몬의 변화로 식욕이 증가하여 체중이 증가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 주고 있는 결과이다. 이는 견주들의 건강관리와 식습관 개선의 필요성의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표IV-50> 반려견의 특성에 따른 반려견 비만치료의 필요성 인지

구분		매우 마른형	마른형	표준 체형	살찐형	비만형	Pearson $\chi^2$ 값
나이	1~2살	빈도 3	25	45	2	7	$\chi^2=26.7$ 65 p=0.044
	비율	3.7%	30.5%	54.9%	2.4%	8.5%	
	3~4살	빈도 1	6	31	3	7	
	비율	2.1%	12.5%	64.6%	6.3%	14.6%	
	5~6살	빈도 0	2	21	1	6	
	비율	.0%	6.7%	70.0%	3.3%	20.0%	
	7~8살	빈도 1	1	12	1	6	
	비율	4.8%	4.8%	57.1%	4.8%	28.6%	
성별	9살 이상	빈도 2	13	20	1	13	$\chi^2=6.98$ 0 p=0.137
	비율	4.1%	26.5%	40.8%	2.0%	26.5%	
	암컷	빈도 5	20	73	2	22	
	비율	4.1%	16.4%	59.8%	1.6%	18.0%	
	수컷	빈도 2	28	56	6	16	
	비율	1.9%	25.9%	51.9%	5.6%	14.8%	
중성화 수술 여부	수술함	빈도 4	17	51	4	26	$\chi^2=11.2$ 08 p=0.024
	비율	3.9%	16.7%	50.0%	3.9%	25.5%	
	수술 안함	빈도 3	31	78	4	13	
	비율	2.3%	24.0%	60.5%	3.1%	10.1%	

## 8. 반려견의 비만에 미치는 요인 분석결과

### 8.1 변수선정

독립변수는 반려견의 비만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반려견의 특성(나이, 성별, 중성화수술 여부), 반려견의 비만인지, 견주의 애견식품 생각, 반려견의 음식습관, 반려견의 생활습관으로 7개의 변수를 선정하였다. 다만 비정량적 자료인 반려견의 나이, 성별, 중성화수술 여부는 더미변수를 활용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반려견의 나이는 4살 이하와 5살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종속변수는 반려견의 비만여부를 사용하였다 <표IV-51>.

<표IV-51> 반려견의 비만에 미치는 요인 분석 변수선정

종속변수		독립변수	
구분	변수명	변수전환	구분(Coding)
비만 : 0	반려견의 나이	더미변수	4살 이하: 0, 5살 이상: 1
	반려견의 성별	더미변수	암컷: 0, 수컷: 1
정상 :1	반려견의 중성화수술여부	더미변수	수술함: 0, 수술안함: 1
	반려견의 비만인지		
	견주의 애견식품 생각		
	반려견의 음식습관		
	반려견의 생활습관		

### 8.2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도출

모형의 추정은 7가지의 독립변수를 모두 분석에 포함시키는 동시적 변수투입방법을 통해 실시하였으며 상수항은 모형의 구성요소에서 제외하였다.

추정된 모형의 유의성에 대한 통계적 검정(기본모형으로부터 우도(-2LL: -2Log Likelihood) 값의 변화를  $\chi^2$ 통계량으로 검정하는 방법)을 확인한 결과, 변수와 상수를 포함시키지 않은 기본모형의 -2로그우도 값이 300.826로, 7개의 독립변수가 포함된 모형의 -2로그우도 값

이 167.604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독립변수가 투입됨으로써 -2로그우도 값이 133.222만큼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줄어든 -2로그우도 값의 차이를  $\chi^2$ -test로 검정해 본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이 확인되었다. 이로써 모형에 투입된 독립변수 7가지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다중회귀분석의  $R^2$ 과 모형의 적합도 판정에 있어 동일한 유용성을 가지는 Cox and Snell의  $R^2$ 과 Narelkerke의  $R^2$ 값이 각각 0.459와 0.612로 나타났다 <표IV-52>.

<표IV-52> 회귀모형의 적합성 검정

-2Log Likelihood						
기본모형	7개 변수가	$\chi^2$ 통계량	자유도	p값	Cox & Snell $R^2$	Narelkerke $R^2$
	투입된 모형					
300.826	167.604	133.222	7	0.000	0.459	0.612

### 8.3 분석결과

이상의 검정을 통해 모형이 적합하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검정되었다. 다음으로 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변수들에 대하여 통계적 유의성 검정 및 해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중성화수술여부와 반려견의 비만인지, 반려견의 음식습관의 계수들이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IV-53>.



<표IV-53>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1

독립변수	계수	표준오차	Wals	자유도	유의확률	Exp(B)
반려견의 나이	-0.734	0.402	3.341	1	0.068	0.480
반려견의 성별	0.745	0.434	2.950	1	0.086	2.107
중성화수술여부	1.299	0.444	8.554	1	0.003	3.665
비만인지	-0.589	0.262	5.076	1	0.024	0.555
음식습관	0.768	0.309	6.196	1	0.013	2.156
생활습관	0.460	0.268	2.951	1	0.086	1.584
애견식품	-0.319	0.332	0.926	1	0.336	0.727

<로지스틱 회귀모형>

$$\hat{Y} = -0.734 \times \text{반려견의 나이} + 0.745 \times \text{반려견의 성별} + 1.299 \times \text{중성화수술여부} \\ - 0.589 \times \text{반려견의 비만인지} + 0.768 \times \text{반려견의 음식습관} + 0.460 \times \text{반려견의 생활습관} \\ - 0.319 \times \text{견주의 애견식품에 대한 생각}$$

도출된 로지스틱 회귀모형에서도 보듯이 반려견의 비만여부에 양의 관계를 보이는 독립변수는 반려견의 성별, 중성화수술여부, 반려견의 음식습관, 반려견의 생활습관으로 나타났으며, 반려견의 나이, 반려견의 비만인지, 견주의 애견식품에 대한 생각은 음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표IV-54>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2

독립변수	반려견의 비만여부	
	비만	정상
반려견의 나이	많을수록	적을수록
반려견의 성별	암컷	수컷
중성화수술여부	수술함	수술안함
반려견의 비만인지	많이 알수록	모를수록
반려견의 음식습관	나쁠수록	좋을수록
반려견의 생활습관	나쁠수록	좋을수록
견주의 애견식품에 대한 생각	많이 따질수록	따지지 않을수록

## IV. 결론

본 연구는 반려견의 음식습관, 생활습관, 보호자의 애견식품에 대한 생각이 반려견의 비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기초자료로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목적으로 실시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을 대상으로 233명을 설문조사 하였고, 특히 애견미용학원의 학원생, 펫샵 및 동물병원을 방문하는 보호자, 애완동물과 전공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호자의 인적사항과 반려견의 특성에 따라 반려견의 음식습관과 생활습관이 비만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남녀노소 구별 없이 40대 이상( $p=0.045$ )의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식사담당의 필요성의 인식이 높았다. 이는 가정에서 반려견을 돌보는 시간할애가 많고, 다른 연령대 보다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추측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가족 구성원의 개개인이 급여하면 간식량과 사료량의 인식 차이로 인해 일일 에너지 요구량 이상의 불필요한 영양소의 과잉섭취로 과체중 또는 비만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말해 주고 있었다.

반려견들은 대체적으로 상당히 활발한 성격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활동량이 적고, 움직임이 덜한 비율은 중성화 수술을 하고, 나이가 많은 반려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전적, 환경적인 요소를 들 수 있는데 좁은 실내에서의 제한과 이웃 주민의 소음으로 인한 민원, 반려견의 성격과 성장기의 생활환경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추측할 수 있었다.

둘째, 보호자의 애견식품(사료, 간식)이 반려견의 비만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료 구매에 대한 전반적인 보호자의 인식이 남성보다 여성이( $p=0.022$ ) 높았고, 신중 구매자는 대부분 40대 이상의 연령층으로 건강을 고려하여 구매한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가족 구성원이 적을수록 반려견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고, 핵가족화와 고령화, 독신주의 증가로 인해 반려견의 존재 인식변화가 야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사료는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주식이기 때문에 사료에 대한 안전성과 더불어 영양성분의 양보다는 질을 선호하고 친환경 웰빙 사료를 구매하는 것이 지금의 시대에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반려견의 특성에 따른 비만에 대한 영향에서는 과체중의 반려견 39마리와 비만견 39마리의 실험결과 시츄가 가장 많았고, 믹스견과 말티즈 순으로 비만이 많았다. 이에따라 유전적으로 비만이 되기 쉬운 견종은 보호자의 충분한 이해와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넷째, 비만견에 대한 경험사례에서 ‘나의 반려견의 비만을 방치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보호자가 더 많았다는 것은 비만에 대한 위험성 인지수준이 낮은 것으로 사료되고, 비만으로 인해 합병증을 유발한 적이 있는 사례도 있었으며, 비만치료를 위해 다이어트 사료를 구입해 본적이 있었다는 긍정적인 응답도 나왔다.

우수한 제품으로 안전성, 영양소 등을 고려하여 선택한 웰빙사료, 또는 질 좋은 사료의 급여에도 불구하고 비만이라는 질병에 걸리는 발생 빈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올바르게 못한 사료의 급여방법과 각 견종의 체질과 연령에 맞는 사료 등의 충분하지 못한 이해부족, 견종의 양육방법 및 생활환경의 일부인 운동량의 부족과 식습관 등에 있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려견이 비만으로 인해 보호자의 불편함을 유발한 적이 있는 사례는 모두 스트레스를 안고 함께 공생하는 불편함을 겪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불편함으로 인하여 성격 또한 예민해져 공격적이거나 난폭해질 우려가 있고, 오히려 반려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불러일으킬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째, 보호자들의 반려견에 대한 비만 인지 수준은 남성보다 여성이 높았고, 연령층은 전부 40대 이상이 비만 인지에 대한 수준과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 구성원이 많은 가정보다 가족 구성원이 1명일 경우에 비만에 대한 위험성과 인식, 치료의 필요성, 비만 예방과 대응방안에 대한 인식이 높았는데, 이는 반려견을 돌보는 역할에 있어서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고, 40대 이상이 가장 반려견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다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보호자들의 비만에 대한 올바른 예방책과 평상시 반려견의 건강에 주의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제기된다.

여섯째, 반려견의 비만에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음식습관( $p=0.013$ )으로 나타났다.

특히 나이가 많은 노령견과 암컷일수록 비만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려견의 생활습관 중 운동량의 부족과 활동량의 감소와 가족 구성원의 스타일 라이프의 영향을 받아 잘못된 식사급여량과 급여방법 등의 인식차이로 비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결과이다.

중성화 수술을 한 반려견이( $p=0.003$ ) 수술을 하지 않은 반려견 보다 비만율이 높게 나온 것은 호르몬 변화와 식욕증가로 인한 식습관과 생활환경의 일부분인 운동량의 부족으로 비만의 원인이 있다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견주들의 중성화 수술 후의 사후 관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반려견의 비만정보에 무지 할수록 비만일 것이다’라는 가설과 그 반대로 비만 인지를 많이 알수록 비만견이 많았다는 결과는 대부분 중성화 수술을 하고, 나이가 많고, 비만견이고 살찐 체형을 키우는 견주가 비만 인지의 수준이 높았다. 그러나

비만인지를 알면서도 단순히 간과하게 되는 보호자의 의식수준과 비만으로 인한 질병의 위험수준의 인식차이로 인해 비만증이 더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애견식품의 사료와 간식 구매 시 신중한 구매성향의 보호자일수록 비만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영양성분과 효과를 생각하여, 질 좋은 사료, 친환경 사료, 유명 브랜드 까지 고려하여 제품을 급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비만으로 나타난 것은 비만의 주된 요인이 사료 그 자체가 아니라 보호자의 잘못된 급여방식 즉 사료량, 간식급여횟수, 식탐 조절, 사람음식의 급여 등 생활환경적 요인도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었다.

여기서 비만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모든 역할은 보호자 자신뿐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하며, 더 중요한 요소는 가족 모두가 반려견의 비만이 반려견 건강에 큰 악영향을 끼치는 위험성요소 인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각 견종에 맞는 사료의 공급과 식단조절, 운동량의 증가, 식습관 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족 모두의 동참으로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비만증을 위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위험성을 알리는데 중요함을 인식해야 하고, 비만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보호자들의 올바른 지식과 의식수준이 한층 더 향상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반려견은 주거환경에서 인간과 함께 공생하면서 공존하는 관계로, 반려견도 하나의 살아있는 소중한 생명체로서 우리의 삶의 또 다른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일부분이라는 인식과 함께, 생명의 존엄성을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 V.참고문헌

- Bruce F. (홍성혁 번역) (2003) 최신 애견 대백과 사전. 신희메드사이언스 (주), 서울, pp. 402-403
- George J. Mckeon. (오문규,장환수,전재인 번역) (2004) 애견의 행동학. 한진 출판사, 서울, pp. 222-229
- Hayasi, Y., Ohta, M., Sakai, S., Takumi A., Tsujimoto H., and Niizuma A. (2000) The Illustrated Encyclopedia of The DOG, goudang, JP. pp. 82-83
- Kimi, A., and Ryuji, A. (2002) Health Management of Companion Animals, interzoo, JP. pp. 66-68.
- Kusumoto, M. (2013). Declaration of diet. Vol 69, pp.51~52. Shi-Ba.Inoue. Tatsumi, tokyo, JP
- Margaret. Gill Simpson. (박우대,강명곤,김종경,김충희,박대곤,오윤아,이정치,전재인,정재용,황학균 번역) (2005) 수의내과간호학. 한진 출판사, 서울, pp. 303-305
- Ono, K., Imai, M., Tagawa, A., Yasukawa, A., and Goto N. (1996) The Atlas of Dog Diseases, goudang, JP. pp. 112
- 김희연. (2004). 애견가구산업의 전망과 시장 진입 전략. 석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경영학과, 충남
- 김은정. (2006). 수컷 개에게서 중성화 수술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상대 대학원, 경남
- 김영미. (2008). 아동의 반려동물 경험과 가족건강성. 박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인천
- 구민경.(2007)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美 애완동물시장. <http://www.globalwindow.org>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2012) 동물 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서울
- 리처드 H, 수전허블. (양현국, 양창윤 번역) (2010) 개·고양이 자연주의 육아백과. 책 공장 더불어 출판사, 서울, pp. 402
- 박선영. (2004). 애견의상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순천대 대학원, 전남
- 이강원. (2002). 애완동물 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서울
- 이서윤. (2009). 현대 한국사회에서 '애완동물'의 사회학적 의미. 석사학위논문. 부산대 대학원, 부산



- 이강원. (2010). 애견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서울.
- 임준희. (2006). 웰빙이미지가 고객의 지각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 오혁중.(2004) 폭발하는 세계 Pet 산업 <http://www.globalwindow.org>
- 요시다,정영희 (2009) 강아지 탐구생활. 랜덤하우스코리아 출판사, 서울, pp. 142-143
- 신동욱,김정연 (2004) 애견학개론. 한진 출판사, 서울. pp. 107-116
- 황양원. (2004) 애완견 114. 가림 출판사, 서울. pp. 95
- 조희경. (2005). 한국 반려동물의 현황 및 실태. 대한수의사회지, 41(10): 908-911.
- 정형학,이형석 (2005) 애완동물 영양학. 펫 미디어(주), 서울. pp. 154-169, 217-225
- 주미옥. (2007) 개들은 괴로워...英 늘어나는 비만견 고민. 페티앙, 서울, pp. 41
- 장은용. (2013) 비만견의 견주 대부분 과체중자 .데일리 펫, <http://www.dailypet.net>
- 최윤주. (2005). 인간에게 기여하는 반려동물. 대한수의사회지, 41(10): pp.901-907.
- 최종덕. (2006). 애완견산업의 실태분석 및 발전방향.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서울
- 한국사료협회 (2007). 국내 애견식품 시장의 변동과정과 발전전망. 5(48) pp 120-124. 두산백과사전, <http://www.doopedia.go.kr>
- 세계일보 (2012). ,비만견을 위한 엘리베이터, 가격이... 깜짝 <http://www.segye.com>
- 사단법인 한국애견협회, <http://www.kkc.or.kr>



## 부 록

### <부록 1 > 설문지

ID, no				
--------	--	--	--	--

#### 반려견의 생활환경이 비만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안녕하십니까?

저는 단국대학교 생명자원과학과 동물자원학 전공 이해연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 조사는 석사학위 논문 작성을 위한 것으로서 반려견의 생활환경이 비만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자료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의 평소 생각과 귀하의 반려견에 대한 생활습관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응답 자료는 학문적인 목적에만 이용되며, 개인적인 용도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단국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김인호 교수님

연구자: 생명자원과학과 동물자원학 전공 석사과정 이해연

I. 다음은 귀하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보기에서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① 여자

② 남자

2. 귀하의 나이는?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이상

3. 귀하의 가족은 몇 명입니까?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이상

4. 귀하는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II. 귀하의 반려견의 음식습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보기에서 해당되는 번호를 기록해 주십시오

<보기>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그렇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항 목	응답 점수
1. 나의 애완견은 식사시간이 규칙적인 편이다.	
2. 나의 애완견에게 사료량을 적당히 주는 편이다.	
3. 나의 애완견은 평소 음식을 적당량 먹는 편이다.	
4. 나의 애완견은 평소 간식을 자주 먹지 않는 편이다.	
5. 나의 애완견은 하루 3번 이상 식사를 하지 않는 편이다.	
6. 나의 애완견은 식탐이 적은 편이다.	
7. 나의 애완견에게 식사담당 식구가 정해져 있는 편이다.	
8. 나의 애완견에게 튀김류, 육류 등의 고칼로리 사료음식을 자주 먹이지 않는 편이다.	

Ⅲ. 귀하의 반려견의 생활습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보기에서 해당되는 번호를 기록해 주십시오(중복 체크 가능)

<보기>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그렇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항 목	응답 점수		
1. 나의 애완견은 활발한 성격이다.			
2. 1회 산책시간은 평균 30분 이상 하는 편이다.			
3. 나의 애완견은 평소 혼자 잘 놀고, 움직임이 많은 편이다.			
4. 나의 애완견은 일주일에 3회 이상 산책을 하는 편이다.			
5. 나의 애완견은 평소 스트레스를 음식으로 해소하려고 하지 않는다.			





VII. 귀하께서는 비만에 대하여 대응방안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그렇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	--------	----------	--------------

VIII. 귀하께서는 비만 예방책에 대하여 많이 알고 계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그렇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	--------	----------	--------------

IX. 귀하께서는 비만 원인에 대하여 많이 알고 계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그렇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	--------	----------	--------------

X. 귀하께서는 비만치료의 필요성을 많이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그렇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	--------	----------	--------------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bstract)

The Study on the Effect of Living Environmental Factors on Obesity  
in Companion Dogs

Hae-yun, Lee

Department of Animal Resource and Science

Graduate School (of ○ ○ ○)

Dankook University

Advisor : Professor In-Ho, Kim



The escalation of individualism all over the society, from the spread of IT industries and digital products and the shift of social structures such as low birth-rate, late marriage, high divorce-rate and the increase of single people and seniors who live alone, has caused loneliness and a sense of alienation doubled with loss of humanism and disconnection from social ties. In order to fix this problem, The people whose human characteristics that he or she should build social relationships are looking for things that could them help form social relationships and emphasize their emotions and feelings, something like that. As a result, the existence of companion animals is increasingly considered as a member of another family, which leads to the fact that the number of household raising companion animals is on the rise.

Despite the rise of role played on human society, it is generally shown that most people are not aware of the fact that companion animals brought up in the same environments as human ones are likely to be exposed to disease caused by indoor breed and supply of hyper-nutrients such as obesity.

This study encompasses a range of research in order to definitely extract environmental problems causing obesity of companion animals; ① the effect of eating habit and daily life habit according to life environment of owners on obesity of companion animals, ②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feature both of owners and of companion animals and obesity, and ③ the influence the behavior of owners according to the awareness of obesity of companion animals.

Through this study, a various of results come up. First off, obesity of companion animals is attributed to many factors including the improper way of breeding according to the size and kind of companion animals, difference of recognition and lack of cooperation among family members that are naturally going to unrecognized importance of exercises, and overindulgence of unnecessary nutrients due to insufficient understanding over the amount of feed according to inconsistency.

Second, it is required that dogs with neutralization operation are more likely to the obesity than dogs without it because of change of hormones and decrease of active mass and that they need dietary treatments and periodic walks, resulting in the rise of quantity of motion and consumption of energy.

Next, companion animals with less active mass and motion are more likely to be obesity, which is resulting from the fact that owners don't recognize the significance of walks, part of daily living environment, causing companion animals to consume less energy and accumulate it in their body, leading to obesity.

Fourth, for consumers with prudence are members of nuclear families, purchasing the food of companion animals considering them as a member of family.

Lastly, Both those who have fat dogs and those who don't have fat dogs are highly aware of the obesity, while there's no difference between two when it comes to the danger of the obesity. This is coming from the deficiency of awareness.

The some ramifications from this study above, it suggests that people take into considerations that the increase of right awareness on obesity, family cooperation, improvement of eating habit, and change of daily living environment are priorities. Moreover, to fix this, it is considered that a variety of programs for fat animals and prevention on obesity of companion animals through promotion of social awareness are necessary.